

『화엄경』 권 14의 어미

이홍구(규장각한국학연구원)

목 차

1. 서론
2. 《화엄》의 연결어미
3. 《화엄》의 종결어미
4. 《화엄》의 선어말어미
5. 《화엄》의 전성어미
6. 결론

※ 참고문헌

1. 서론

1.1. 자료 소개 및 연구 현황 정리

◎ 자료 소개

- 석독구결이 기입되어 있는 『대방광불화엄경』 권 14는 1993년 7월 13~14일에 열린 구결연구회 제10회 공동연구회에서 남권희 교수에 의해 학계에 처음 공개되었음(혼동을 피하기 위해 석독구결 자료인 권 14는 《화엄》으로 약칭하겠음).
- 『화엄경』의 한역본으로는 동진(東晉)의 실타발타라(佛陀跋陀羅)가 번역한 60권본(구역본, 晋本), 당의 실차난타(實叉難陀)가 695~699년에 번역한 80권본(신역본, 周本), 당(唐)의 반야삼장(般若三藏)이 795년부터 번역을 하고 징관(澄觀), 원조(圓照) 등이 상정하여 798년 완성한 40권본(貞元本)이 있음.
- 석독구결이 기입된 《화엄》은 주본 제14권에 해당. 구체적인 서지 사항은 다음과 같음.

[표 1] 『화엄경』 권14의 형태 서지

책 크기	12.5X21.9cm
장정	절첩본, 1장 4면, 총 20장
표제·권수제·권말제	大方廣佛華嚴經 卷第十四
판종	목판본
판식	上下單邊, 匡高23.4cm, 無界, 24행 17자

- 《화엄》의 서지에 대한 연구인 남권희(1996: 390)에서는 지질과 판식 등을 고려해 12세기 후반에서 13세기 전반에 간행된 것으로 파악한 바 있음.

- 석독구결의 기입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으나 대체로 12~13세기 정도로 보고 있는 듯함. 남풍현(1994)에서는 12세기 후반에서 13세기 초, 백두현(2005)에서는 12세기 말에서 13세기 초, 정재영(2006)에서는 12세기 후반에서 13세기 전반 정도로 추정하였음.
- 『화엄경』 권14의 내용은 ‘보광법당회(普光法堂會)’에 해당하며, 그 중에서도 마지막 제11품 ‘정행품(淨行品)’과 제12품 ‘현수품(賢首品)’의 전반부에 해당함. 보광법당회에서는 석가모니가 보광법당의 사자와 자리에 있고, 문수보살부터 시작해 10명의 보살이 각각 심오한 진리를 설하는 내용으로 구성됨(남권희 1996: 382). 정행품과 현수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 ㄱ. 淨行品: 지수보살(智首菩薩)의 물음에 대해 문수보살(文殊菩薩)이 답하는 형식. 어떤 방법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닦아야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게 되는가에 대해 설명.
- ㄴ. 賢首品: 문수보살의 요청으로 현수보살(賢首菩薩)이 계송(偈頌)으로 답하는 형식. 보살이 수행해야 할 여러 실천 항목들을 조목조목 열거하며, 그 실천이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깨달음으로 이끄는 길임을 밝힘.

◎ 연구 현황

- 《화엄》을 중심에 놓은 연구는 자료 공개 직후에 집중적으로 진행된 바 있음. 앞서 언급한 남권희(1993)의 발표에서 자료가 소개된 이후 가장 먼저 이승재(1993)에서 구결자 목록과 그 독법에 대해 정리하였음.¹⁾ 이어서 남풍현(1994)에서 석독구결이 기입된 전체 원문을 정리하였고 이승재·심재기(1998)에서는 원문을 다시 한글로 전사해 제시하였음.²⁾ 물론 이들 연구에서는 개별 구결자의 기능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루었음. 이어진 김두찬(2000)에서는 기입된 구결 전체에 대해 그 기능 체계를 정리했는데, 이때 개별 어미의 목록에 대해서도 개략적으로 다루어 본 발표에서 참조할 수 있었음. 《화엄》 문헌의 특징에 대한 정리가 일단락된 이후에는, 《화엄》만을 단독으로 다룬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학회 차원에서는 1994년 5월부터 1995년 11월까지 《화엄》을 강독한 바 있으며 2013년 제46회 구결학회 여름 전국학술대회에서 다른 구결 문헌들과 더불어 현대역(김성주 2013)이 발표된 바 있음. 이러한 현대역은 (일부 수정이 되어) Sktot에도 반영되어 배포되었음(Sktot introduction 참조). Sktot는 자토석독구결 자료 6종의 전산 입력 자료로써 2004년 2월에 공개된 이후 매년 개정되어 배포되고 있음. 특히 형태소 분석이 되어 있어 본 발표문의 토대로 삼을 수 있었음. 끝으로 가장 최근에는 2020년 9월부터 구결학회 월례 강독회에서 《화엄》을 강독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음.
- 한편 이 글은 《화엄》의 어미 전체에 대한 정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연구 중 종합적인 연구들에 많은 부분 기대어 작성되었음. 특히 고대 한국어 문법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조망을 한 박진호(1998, 2016)와 《유가》에 대한 종합적 정리인 장경준 외(2015)를 비롯해 연결어미는 황선엽(2002), 이용(2003)과 김지오(2019)를, 종결어미는 장윤희(2002)와 최성규(2019)를, 선어말어미는 백두현(1999)과 최성규(2025)를 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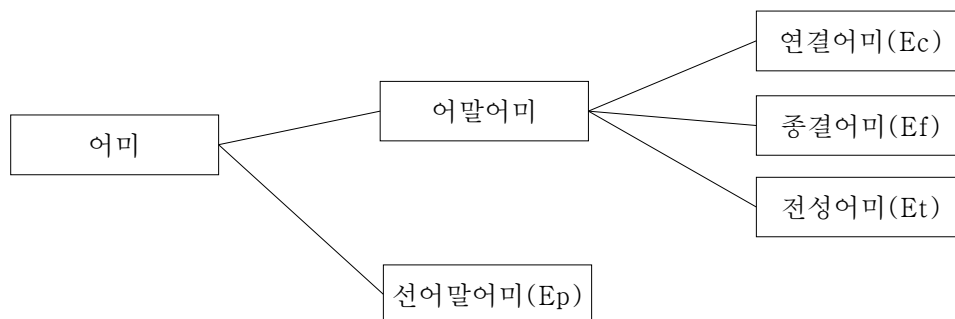
1) 서지사항에 대해서는 남권희(1996, 2002)에서 재차 정리된 바 있음.

2) 초기 《화엄》의 개별 구결자에 대한 논의로 백두현(1993, 1995)을 언급할 수 있는데, 각각 《화엄》에 등장한 ‘支. 矢’, ‘+’에 대해 논의한 바 있음.

참조하였음.

1.2. 연구 목적과 방법

- 본고의 목적은 《화엄》의 어미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려는 데 있음. 다만, 이미 《화엄》에 나타나는 표현과 언어 현상에 대해 많은 부분이 규명된 만큼 새로운 내용을 제시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이러한 까닭에 다른 문헌 대비 《화엄》의 특수성을 확인하기 위해 간단한 통계 작업을 수행하고 다른 구결 문헌과 비교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개별 어미의 등장 패턴을 정리해 보았음.³⁾ 더불어 개별 어미의 기능을 제시하고 특별한 점이 있다면 덧붙이는 방식을 취했음.
- 어미의 분류는 대체로 Sktot를 따랐으며 다음과 같음.



<그림 1> Sktot 기준 어미의 분류

- 다만, 석독구결의 어미 중에는 문법화 정도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음. ‘- 1 ㅅ ㅁ, - 1 ㅅ +, - 1 ㅅ + 1’ 등의 어미구조체가 그러한 성격을 지니는 것들임(김지오 2019: 77). ‘- 1 ㅅ, - ㅁ ㅅ’ 등도 접속이나 종결의 기능을 수행하나 그 지위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는 것들임.
- Sktot에서는 이들을 연결어미(Ec)나 종결어미(Ef)로 분류하지 않고 전성어미(Et) 및 여러 조사(J)들의 연속체로 분석하거나 미상(R)으로 처리해 두었음. (이미 형태소 분석이 되어 있는 것에 수정을 가하고 말뭉치 처리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르는 터라) 이러한 것들까지 포괄해 통계 처리 및 패턴 분석을 수행하지는 못했음. 그러나 이들의 기능은 연결이나 종결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으므로 절을 달리하여 정리해 두었음.
- 통계 처리와 패턴 정리는 간단한 코딩 작업을 통해 수행하였으며, 이는 텍스트 마이닝의 기초 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⁴⁾

[1] 구결 자료의 JSON 변환

- 구결자는 그 자체로 음절이나 음소 단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중세 한국어에 비해 구현

3) 물론 본고에서는 한 어절 내부에서 앞뒤에 결합하는 구결자 연속체에 대해서만 정리를 하는 데 그쳤음. 차후에 범위를 넓혀 통사적으로 어떤 조사들이 결합하는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논항은 무엇인지 등을 정리하고 구문 유형을 분류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해당 작업 내용 및 결과는 아래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 되어 있으며, 구글 코랩(Colab)으로 실행 가능함.(<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tA4M21G5vqNB5A9A3PQSH63eL7g2DRjd?usp=sharing>).

- 에 어려움이 덜함. 물론, 구결자들은 현재 유니코드에 공식 등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PUA(Private Use Area) 영역을 활용해 디지털화되고 있음. 호환성의 한계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일정한 코드 매핑표를 갖추고 있는 경우 기계적 변환과 통계 분석에는 큰 어려움이 없음. 특히 기존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Sktoto에 형태소 분석도 이미 완비되어 있어, 바로 통계 분석이나 텍스트 마이닝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음. 더불어, 구결자가 한문 원문에 규칙적으로 부착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계적 처리가 비교적 쉽다고 할 수 있음.⁵⁾
- 하지만 기존의 Sktoto 말뭉치는 대부분 한글 파일로 작성되고 공유되어, 복잡한 분석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텍스트 마이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더 보편적이고, 구조화된 형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형태소 분석 말뭉치 형식에 따라 JSON 포맷으로 자료를 변환해 사용하였음. 이는 텍스트 마이닝, 시각화, 통계 분석 등 다양한 후속 작업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특히, 본고에서는 문헌 간 구결 패턴 비교나 특정 품사(Ep, Ec 등)의 결합 양상 분석에 활용하였음.
 - 변환된 말뭉치는 다음과 같은 모양을 취하며, 각주 4)의 링크에서 쉽게 실행할 수 있음.

[표 2] json 형식의 형태소 분석 말뭉치 예시

```
{ "id": "화소",
  "metadata": {},
  "sentence": [
    {
      "id": "화소.01.03",
      "form": "佛子 何 等 菩 薩 摩 訶 薩 尸 聞 藏 : ノ 今 ロ { 爲 } ヲ ナ オ ヲ ハ 1",
      "word": [
        {
          "id": 1,
          "form": "佛子",
          "gugeol": " ㄴ ",
          "pos": "J"
        },
        {
          "id": 2,
          "form": "何",
          "gugeol": " ㄹ ",
          "pos": "N"
        },
        {
          "id": 3,
          "form": "{ 等 }",
          "gugeol": " ㄷ ",
          "pos": "V"
        }
      ]
    }
  ]
}
```

[2] 기초적인 통계 분석

- 5) 후기중세 한국어 말뭉치는 합자 구조의 옛한글을 기반으로 하며, 현대에 사용되지 않는 글자나 조합이 포함되어 있어 기계적 구현에 어려움이 있음. 특히, 형태소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본격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전처리 작업이 요구됨.

- 통계 처리는 주로 《화엄》에 등장하는 어미 목록을 정리하고, 이로부터 《화엄》의 언어적 특수성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음. 또한 이를 다른 구결 문헌과 비교함으로써 《화엄》의 상이한 양상을 검토하고자 하였음.
- 기본적인 통계 처리 수행: 등장 어미 목록을 작성하고 용례를 정리하였음. 이를 기반으로 개별 어미의 출현 빈도를 정리하였고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음.
- 《화엄》과 다른 구결 문헌 간의 어미 분포의 상대적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변동계수(CV)로 환산해 비교하였음.
 - 변동계수(CV, Coefficient of Variation)는 한 집단 내 데이터의 상대적인 산포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표현한 것임. 값이 클수록 데이터의 분산이 평균 대비 크다는 뜻이며, 단위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다른 규모의 분포를 비교할 때 유용함.
- 《화엄》에 나타난 개별 어미의 출현 비율이 특수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Z-검정을 실시하였음.
 - Z-검정(Z-test)은 두 집단 간 비율이나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판단하는 검정 방법으로, 《화엄》에서 특정 연결어미의 출현 비율이 다른 구결문헌에서의 기대 비율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른지를 검정하기 위해 사용하였음. 다른 구결 문헌 전체를 모집단으로 간주하고, 해당 구결자의 출현 비율을 기준 비율(p)로 설정한 뒤, 화엄 문헌에서 관측된 출현 비율과의 차이를 표준 오차로 나눈 Z값을 통해 검정하였음. 이때의 귀무가설은 “화엄 문헌의 출현 비율은 전체문헌의 비율과 같다”이며, 유의확률이 충분히 작거나($p < 0.05$) Z값이 일정 기준(± 1.96)을 초과할 경우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출현 비율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았음.⁶⁾

[3] 구결 연쇄 패턴 정리

- 개별 어미의 등장 패턴의 정리는 《화엄》에 나타난 개별 어미가 보이는 특징을 상세히 살펴보기 위해 수행하였음.
- 연결어미, 종결어미, 전성어미: 하나의 어절 내에서 해당 어미가 어떤 선행 요소 및 후행 요소와 함께 나타나는지를 중심으로 패턴을 정리하였음. 특히 《화엄》에만 나타나는 패턴은 별도로 표시하여 특수성을 부각하였음.
- 선어말어미: 배열 순서 및 출현 가능 위치(slot, position)가 더 중요하다고 보아, 선어말어미 배열 유형을 정리해 보았음.⁷⁾

6) 다만, 특정 항목의 출현 빈도가 매우 적은 경우에는 정규분포 근사에 필요한 기대값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 이 경우 실제로 두 문헌 간의 언어적 차이가 없더라도, 우연히 해당 요소가 나타나지 않아서 Z값이 과도하게 크거나 작게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함.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오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일부분에 대해서는 FDR(Benjamini-Hochberg) 보정을 수행하였으나, 여전히 출현 빈도가 매우 낮은 항목에 대해서는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차후에 추가 검정을 해 볼 예정임.

7) 이외에도 [4] 구결 문헌 간 유사도/일치도를 산출해 제시하려 했으나 분량과 시간의 문제로 수행하지는 않았음. 사실 문헌 계통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표현을 기준으로 유사도를 확인한 연구들이 있었음(문헌수 2020 등). 좀더 구체적인 수치로서 이를 확인하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됨. 이때, 대부분의 구결자는 내용어보다는 기능어를 표시하고 있다는 점, 더불어 개별 문헌의 주제가 다르다는 점에서 한문 원문을 포함한 유사도/일치도의 분석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임. 이에 현재까지 정리한 구결의 등장 패턴을 기반으로 각각의 패턴의 등장 여부를 비교하여 일치도를 계산해 보려 하였음. 이때 개별 문헌의 길이가 달라 단순 비교는 부적절하므로 어느정도 정규화를 한 뒤에 비교하는 방식을 취하였음. 현재는 자토 석독구결 문헌 사이의 일치도를 확인하는 데 그치나 이후 점토 석독구결에 대해서도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됨. 더불어 방

2. 《화엄》의 연결어미

2.1. 연결어미 분포의 통계적 개괄과 특수성 검토

- Skt2022 기준, 《화엄》에 등장한 연결어미 타입은 15종, 토큰은 759회에 해당.
- 아래는 연결어미의 목록과 빈도를 정리하고, 해당 연결어미가 전체 구결 문헌에 등장한 빈도와 전체 문헌 대비 《화엄》의 등장 비율을 제시한 것임.
- 이때 참조한 타 문헌은 《유가》, 《구인》, 《화소》, 《금광》에 해당함.
* 《자비》는 형태소 분석이 아직 되지 않아 제외.

[표 3] 《화엄》의 연결어미 출현 목록, 빈도

연번	구결	화엄	전체문헌	비율(%)	연번	구결	화엄	전체문헌	비율(%)
1	ㅅ	291	854	34.07	11	ㅁ 1	3	19	15.79
2	ㅈ	240	906	26.49	12	ㅊ	2	35	5.71
3	ㅈ ㅅ ㅈ	79	120	65.83	13	ㅈ ㅈ	2	10	20.00
4	ㅈ ㅅ	40	113	35.40	14	ㅈ	1	1	100.00
5	ㅈ	43	387	11.11	15	ㅈ	1	137	0.73
6	ㅁ	20	99	20.20	16	ㅈ ㅈ	0	24	0.00
7	ㅈ ㅈ	12	19	63.16	17	ㅈ :	0	28	0.00
8	ㅈ	10	77	12.99	18	ㅈ	0	70	0.00
9	ㅈ	8	90	8.89	19	ㅈ	0	8	0.00
10	ㅈ ㅅ	7	24	29.17	계	-	759	3021	25.12

- 《화엄》의 연결어미 빈도의 평균은 39.95, 표준편차는 80.27에 해당함. 고른 분포를 보이지 않고 특정 연결어미에 집중된 사용을 보인다고 할 수 있음. 참고로 《화엄》을 제외한 전체 구결문헌의 경우 평균은 119.05, 표준편차는 186.46에 해당함.
- 평균과 표준편차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우므로 변동계수(CV)로 변환하면 각각 200.94%와 156.62%에 해당함. 이를 통해, 《화엄》의 연결어미가 전체문헌보다 상대적으로 더 편중된 출현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음.⁸⁾ 이는 《화엄》에 특정 구문이 반복적으로 출현하고 이에 대해 동일하게 현토를 했기 때문으로 생각됨.
- 이어서 개별 연결어미의 출현 양상을 비교해 볼 수 있음. 아래는 《화엄》의 개별 연결어미 출현 비율과 다른 문헌들에서의 출현 비율을 통계적으로 비교해 본 결과임. 해당 연결어미의 출현 비율을 계산한 뒤 전체문헌에서의 출현 비율과 비교해 보는 방식을 취했음(Z-검정을 적용해 비교).

[표 4] 《화엄》의 연결어미 출현 Z-검정 결과

구결	화엄 비율(%)	타 문헌 비율(%)	Z-값
ㅅ	38.34	24.89	8.5704*
ㅈ	31.62	29.44	1.3162

법론도 좀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음.

8) 현재는 모든 값이 100%를 초과하는데, 이는 편중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함.

尸入1	10.41	1.81	17.7516*
尸ム	5.27	3.23	3.1847*
ㄱ	5.67	15.21	-7.321*
口	2.64	3.49	-1.2867
1乙	1.58	0.31	6.3071*
ㄴ	1.32	2.96	-2.6723*
人	1.05	3.63	-3.7896*
1ム	0.92	0.75	0.5446
口1	0.40	0.71	-1.0259
ㄷ	0.26	1.46	-2.7467*
ㄷイ	0.26	0.35	-0.4184
ㄷ	0.13	0.00	0
下	0.13	6.01	-6.8153*
人斗	0.00	1.06	-2.853*
尸:	0.00	1.24	-3.0843*
1	0.00	3.09	-4.9232*
尸	0.00	0.35	-1.6413

※: p<0.05

- 이 통계 결과를 보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연결어미로는 ‘-ㄴ, -尸入1, -尸ム, -1乙’과 ‘-ㄱ, -ㄴ, -人, -ㄷ, -下, -人斗, -尸: -1’가 있음. 전자는 다른 구결 문헌에서보다 《화엄》에 더 많이 출현한 것이고, 후자는 《화엄》에서 비교적 적게 출현하거나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음.⁹⁾
- 특별히 ‘-尸入1’는 다른 구결 문헌에 비해 《화엄》에 월등히 많이 등장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尸入1’는 ‘정행품’에서 유사한 구문에 반복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으로 보임. ‘-1乙’의 경우도 많이 등장했는데, ‘현수품’에서 유사한 구문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그 외 ‘-ㄴ’도 비교적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임.
- 이외에 ‘-ㄷ, -口, -1ム, -口1, -ㄷイ, -ㄷ, -尸’는 다른 문헌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음.¹⁰⁾

2.2. 《화엄》에만 등장하거나 《화엄》에만 등장하지 않는 연결어미

◎ 《화엄》에 등장하지 않는 연결어미

[1] -人斗

- ‘-人斗’는 대체로 ‘雖’를 사이에 두고 현토되는 것임. 그러나 《화엄》에는 ‘雖’ 자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연한 공백으로 볼 수 있음.
- 사실, 《화엄》의 한문 원문에는 역접의 환경 자체가 적다고 할 수 있음. 역경원의 해석

9) 개별 문헌들 사이의 출현 양상도 비교해 보면 좋겠으나, 시간과 분량의 제약으로 실행하지는 않았음.

10) 앞서 언급했듯이, 출현 수가 0건이거나 지나치게 적은 경우에는 Z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을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작업이 무의미한 것은 아님에, 문제가 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단순 출현 비율을 기준으로 비교하여 경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임. 더불어, 전체 항목에 대해 FDR(Benjamini-Hochberg) 보정을 수행한 결과, 큰 문제는 없는 것을 확인하였음. 이하 각 장에서는 해당 내용을 반복해서 언급하지는 않겠음.

을 참조했을 때, 역접의 의미가 거의 발견되지 않으며 흔히 역접으로 나타나는 ‘然, 而’ 등의 한문 연사도 대부분 ‘그러하다’, ‘而…’ 쪽으로 해석되거나 현토될 뿐임. 이러한 점에서 ‘-ㄹ’의 출현 빈도가 높지 않다는 점도 함께 설명 가능할 것으로 보임(물론 석독구결에는 ‘-ㄹ’ 자체의 출현 빈도가 높지 않음).

[2] -ㄹ :

- 석독구결에는 절과 절 사이에 나타나 절 연결을 수행하는 ‘-ㄹ :’가 존재함. 그런데, 김지오(2012: 235)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화소》와 《화엄》에는 ‘-ㄹ :’ 자체가 등장하지 않음. 다만, 해당 논의에서는 ‘-ㅅ :’가 대신 등장한다는 점을 들어 이표기일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시한 바 있음. 다른 문헌의 ‘-ㄹㅅ’의 예를 들면 (1)과 같음.

(1) 廣 Ⅱ 說 ㄹ 入 1 知 ㄴ 應 ㄷ Ⅰ 謂 1 四種 法 乙 依 止 {爲} Ⅲ 1 入 Ⅳ 故 ㄴ 能 ㄴ 五 法 乙 修 習 圓 滿 Ⅲ {令} Ⅳ ㄹ ㅅ [ㄹ Ec-, ㅅ-Ec,] [廣說應知 謂四種法爲依止故 能令五法修習圓滿] <유가29:22-23> (자세히 말하자면, 알아야 한다, 즉 네 가지 법을 의지 삼은 까닭으로 능히 다섯 법을 수습원만하게 하는 것이니,)

- 한편, 유사한 형태의 ‘- 1 :’의 경우는 등장이 확인되었는데, Sktot 형태소 분석이 [1 Et, ㅅ-R]로 되어 있어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걸리지 않았음. 이는 ‘-ㅅ :’도 동일함.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는 2.3에서 다루도록 하겠음.

[3] - 1/ㄹ

- ‘-ㄹ’은 주로 동명사어미로 사용되나 (2)와 같이 화법동사 등과 결합해 인용문이 후행하는 구문(화법/사유 구문)에도 자주 사용됨. 이런 경우는 연결어미적 쓰임이라고 할 수 있음(이승재 1995, 장윤희 2010). 다만, Sktot에서 이런 경우는 ‘Et’로 통일되어 있어 형태소 분석 말뭉치를 통한 데이터 처리 시 구분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

(2) ㄱ. 爾 Ⅲ 1 時 十 賢 首 菩 薩 1 偈 乙 以 ㄴ 答 Ⅲ Ⅲ ㄹ [ㄹ Et] 善 ㄴ ㄴ 1 {哉} Ⅲ 仁 者 Ⅲ 諦 Ⅲ 聽 ㄴ ㄴ 應 ㄷ Ⅲ Ⅰ (爾時 賢首菩薩 以偈答曰 善哉仁者應諦聽) <화엄 09:01-02> [이때 賢首菩薩은 偈로써 答하기를 훌륭하시군요! 인자여. 자세히 들어야 합니다.]

ㄴ. 憂 慮 乙 生 Ⅲ ㄴ 謂 ㄹ [ㄹ Et] 我 ㅅ 我 1 今 Ⅲ {者} 何 ㄴ 所 Ⅲ 十 在 Ⅲ ㅅ 1 Ⅲ ㄴ ㄴ {耶} 不 冬 ㄴ ㄴ Ⅲ ㄴ ㄴ ㄴ ㄴ ㄴ ㄴ ㄴ (不生憂慮 謂我我今者何所在耶) <유가08:18-19> [우려를 내어서 말하기를 ‘나의 나는 지금 어느 곳에 있는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이다” 할 것이며,]

- 한편, (2)와 같은 예들 외에 Sktot에서 ‘-ㄹ, - 1’이 ‘Ec’로 분석된 경우가 있음. 아래와 같은 용례들인데, 이것이 《화엄》에는 등장하지 않아 데이터 분석에서 ‘등장하지 않는 연결어미’에 걸린 것으로 보임. 예를 들면 (3)과 같음.

(3) ㄱ. 廣 Ⅱ 說 ㄹ 乃 Ⅲ 至 Ⅲ {於}食 Ⅲ 十 知 量 Ⅲ ㄴ ㄴ Ⅲ [廣說乃至於食知量] <유가 19:16> (자세히 말하면, 음식에 이르기까지 그 양을 안다.)

ㄴ. 是故云 說尸 名下 聖所住₃ + 住₃ _ハ 丁ノオ₁ [是故說名住聖所住] <유가 31:05> (이런 까닭으로 말하여, 일컬어 성스러운 처소[聖所住]에 머무는 것이라고 한다.)

二. 謂¹ 卽² 彼補特伽羅³ (內⁴ 五種) 生圓滿⁵ 具已⁶ [謂卽彼補特伽羅具內五種生圓滿已] <유가02:20-21> (말하자면 곧 그 보특가라가 안의 다섯 가지 생원만을 갖추기를 이미 하여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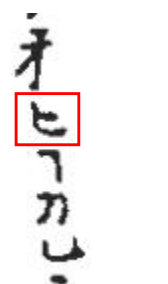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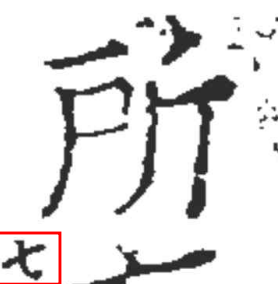
- 《유가》에서 ‘-尸’은 대체로 ‘說尸’과 같이 나타나며, ‘-1’은 ‘謂1’의 형태로 많이 나타남. 후자는 ‘명사+11’이나 ‘동사+ㅁ1/ㅅ1’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함. 이러한 유형이 《화엄》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재미있게도 한자 ‘謂’ 자체도 《화엄》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음(물론 《화소》에는 자주 등장해 우연한 공백일 가능성이 있음).

◎ 《화엄》에만 등장하는 연결어미: -ㄷ

- Sktot에는 《화엄》에만 1건 등장하는 연결어미(Ec)로 ‘-ㄷ’가 확인됨.
- 이때의 ‘-ㄷ’는 후기중세 한국어에서 흔히 발견되는 연결어미 ‘-니’와 관련된 것으로 볼 만한 것인데, 석독구결 전체에 용례가 1건밖에 되지 않으며 자형상 ‘ㄷ’에 가까운 것으로도 볼 수 있어 문제가 됨(김지오 2019: 63).

(4) 家₁ 是₁ 貪愛繫縛₇ 所₁₁니 衆生₂ 悉₃ 免離₄ 使₁₁ {欲₅} 스 [家是貪愛繫縛所 欲使衆生悉免離] <화엄18:16> (집은 貪愛가 얹힌 곳이니 衆生을 다 벗어나게 하고자)

[표 5] 《화엄》의 ‘ㅂ, ㅅ’의 자형 비교

<화엄 18:16>의 ‘ㄷ’	<화엄 14:24>의 ‘ㄷ’	<화엄 20:14>의 ‘ㄷ’
		

- 한편, 구결자 ‘ㅅ’ 자체는 《화소》와 《화엄》에만 나타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동명사 어미 ‘-ㅅ’과 계사의 복합 구성 정도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5) ㄱ. 乃_시 至_리 摩睺羅伽 {等} | ヽ₁ 리 니 노 요 비 1 인 오 現_스 其 樂_스 所_오 隨_스
悉_스 見_리 令_리 로 미 다 [乃至摩睺羅伽等 隨其所樂悉令見] <화엄14:24> (내지 摩
睺羅伽 같은 이니 하는 이를 나타내며 그 좋아하는 것을 좇아 다 보이게 하며)

ㄴ. 若能法ヲ永ホ滅ソロ¹ 不失ヒ¹入^乙 知ヒ^尸入¹ 則 得³ホ 辯才^リ 障礙^ッ
 尸 無^ヒ才^ホ [若能知法永不滅 則得辯才無障礙] <화엄11:16> (만약 能히 法이
 영원히 滅하지 않는 것을 보면 곧 능히 辯才가 막힘 없을 것이며)

2.3. 《화엄》에 등장한 개별 연결어미

[1] — 3

- ‘-ㅏ’는 《화엄》에서 총 240회 사용되었으며 이는 《화엄》의 전체 연결어미에 대해 38.34%에 해당하는 정도임. 더불어 ‘-ㅏ’는 석독구결 자료에서 총 906회 사용되었는데 이중 26.49%가 《화엄》에서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화엄》의 ‘-ㅏ’는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물론 이러한 분류는 경향성을 반영한 것일 뿐, 구간이 예외없이 갈리는 것은 아님).

- (6) ㄱ. 云何 因力ᆞ欲力 方便力 緣力 所緣力 根力 觀察力 奢摩他力 毗鉢舍那力 思惟力ᆞノ々乙 得ふ (云何 得因力 欲力 … 毗鉢舍那力 思惟力) <화엄01:15-16> (어떻게 (하여야) 인력이니 欲력이니 方便력이니 緣력이니 所緣력이니 根력이니 觀察력이니 奢摩他력이니 毗鉢舍那력이니 思惟력이니 하는 것을 얻으며,)
- ㄴ. 佛子ᆞ菩薩ᆞ在家ᆞ11+1 當ハ 願口尸入1 衆生1 家性ヲ 空ノ1入乙 知₃ホ 其 逼迫乙 免支モ立ツヌ牙分 [佛子 菩薩在家 當願衆生 知家性空 免其逼迫] <화엄02:18-19> (佛子여 菩薩은 在家할 경우에 반드시 원하기를 衆生은 家性の 空함을 알아서 그 逼迫을 免하소서 할 것이며)
- (7) ㄱ. {於}法ᆞ及セ 僧ᆞノ々ヲ+ 亦カ {是}リ 如支ツカツ₃ 至誠乙… 供養ツセ₃ 而… 發心ツナ1リカ [於法及僧亦如是 至誠供養而發心] <화엄09:17> (法이니 및 僧이니 하는 것에도 이와 같이 하여 至誠으로 供養하고자 發心하는 것이며)
- ㄴ. 若セ 常リ {於}諸1 佛乙 信奉ツ白ヒ尸入1 則支 能支 戒乙 持ツ₃ 學處乙 修₃モツモ牙分 [若常信奉於諸佛 則能持戒修學處] <화엄10:10> (만약 항상 모든 부처님을 信奉한다면 곧 能히 戒를 지니고 學處를 닦고 하는 것이며)
- ㄷ. 或カ 有ナ1 國土リ 法乙 知尸 不ツナ尸失ᆞ {於}彼リ+1 {爲}シ₃ 妙法藏乙 說口モ牙分 [或有國土不知法 於彼爲說妙法藏] <화엄14:16> (혹 있다, 國土가 法과 같지 않은 것이. 거기에는 (중생을) 위해 묘한 法藏을 이를 것이며)
- ㄹ. 其 華セ 色相1 皆セ 殊妙ツ1乙 此乙 以₃ {於}諸1 佛乙 供養ツナ分 [其華色相皆殊妙 以此供養於諸佛] <화엄16:07> (그 꽃의 色相은 다 殊妙허거늘 이로써 부처님을 供養하며)

- － (6)는 정행품 부분에 해당함. (6ㄱ)은 도입부로 지수보살이 문수보살에게 질문을 하고 문수보살이 질문을 확인하는 부분임. 대체로 ‘－ㄱ’가 동사 뒤에 바로 결합하는 모습을 보임. (6ㄴ)은 문수보살이 답하는 부분의 시작으로 해당 부분에 이어서는 “當ハ 願口尸入 1 ~ ㄷ(支)立” 구문이 반복됨. 이에 대해 김성주(2013)에서는 ‘支ㄷ立口尸入ㄱ’ 이하 ‘할 것이며’에 해당하는 ‘口尸入ㄱ’가 생략되어 반복되는 것으로 파악하였고 이에 따라 “(할 것이며)”를 추가하여 번역하였음. 물론 맨처음 ‘－ㄱ’가 나오고 다시 나오지는 않으나 반복되는 부분이 생략되었다고 본다면 하나의 유형으로 볼 수 있을 듯함.
- － (7)은 현수품의 현수보살이 계승으로 답하는 부분에 해당함. (7ㄱ)은 <09:13-10:09>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대체로 “恭敬尊重口尸入ㄱ”, “本口尸入口尸入 1 口尸入”, “受口尸入ㄱ”와 같이 계사에 결합하거나 계사를 포함한 구성 뒤에 ‘－ㄱ’가 붙는 식으로 나타남. 이어

서 (7ㄴ)은 <10:10-14:12>까지는 ‘ㄴㅈㅅㅅ’의 구성으로 등장하여 하나의 유형으로 묶어봄 직함. (7ㄷ)의 경우 <14:16-16:07>에 주로 나타나는 부분으로 ‘ㄴㅈㅅ(ㅅ)ㅅ’와 같은 형식으로 나타나는 부분임. 물론, (7ㄴ, ㄷ)은 ‘ㅅ’에 ‘ㄴ’이 결합한다는 점에서 ‘ㅅ’를 계사를 포함한 구성으로 본다면 (7ㄱ)과 함께 묶어 볼 수 있을 듯함.

- (7ㄷ)은 <16:07-20:01>까지 나타나는데 ‘ㄴㅈㅅ’가 **선행한다는 특징**이 있고, 동사 어간에 바로 결합하는 ‘ㄴ’과 특별한 차이 없이 혼재되어 나타남.
- 《화엄》에 등장하는 구결자 연쇄 패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데, 음영 처리한 부분은 《화엄》에만 나타나는 구결자 연쇄임(*한 어절 내의 등장 패턴임).

[표 6] 《화엄》에 등장하는 ‘ㄴ’의 패턴

연번	구결자 연쇄	앞 요소	뒤 요소	빈도
1	ㄴㅈㅅㅅ	ㄴㅈㅅ	어절 끝	37
2	ㄴㅅ	ㄴ	어절 끝	24
3	ㅅ	어절 시작	어절 끝	19
4	ㅈㅅㅅ	ㅈㅅ	어절 끝	19
5	ㄴㅅㅅ	ㄴㅅ	어절 끝	12
6	ㄴㅅㅅ	ㄴㅅ	어절 끝	11
7	ㅅㅅㅅㅅ	ㅅㅅㅅ	어절 끝	9
8	ㄴㅅㅅㅅ	ㄴㅅㅅ	어절 끝	5
9	ㄴㅅ	ㄴ	어절 끝	4
10	ㄴㅅㅅㅅ	ㄴㅅㅅ	어절 끝	4
11	ㄴㅈㅅㅅ	ㄴㅈㅅ	어절 끝	4
12	ㄴㅅㅅ	ㄴㅅ	어절 끝	3
13	ㄴㅅㅅㅅㅅ	ㄴㅅㅅㅅ	어절 끝	3
14	ㅅㅅㅅㅅㅅ	ㅅㅅㅅㅅ	어절 끝	3
15	ㅅㅅㅅㅅㅅㅅ	ㅅㅅㅅㅅㅅ	어절 끝	3
16	ㅅㅈㅅㅅ	ㅅㅈㅅ	어절 끝	3
17	ㄴㅅㅅㅅ	ㄴ	ㅅㅅ	3
18	ㅅㅅ	ㅅ	어절 끝	2
19	ㄴㅅㅅ	ㄴ	ㅅ	2
20	ㄴㅅㅅ	ㄴㅅ	어절 끝	2
21	ㅅㅅㅅㅅㅅㅅㅅㅅ	ㅅㅅㅅㅅㅅㅅㅅ	어절 끝	2
22	ㅅㅅㅅㅅㅅ	ㅅㅅㅅㅅ	어절 끝	2
23	ㄴㅅㅅㅅㅅ	ㄴㅅㅅㅅ	어절 끝	2
24	ㄴㅅㅅㅅㅅ	ㄴㅅㅅㅅ	어절 끝	2
25	ㅅㅅ	ㅅ	어절 끝	2
26	ㄴㅅㅅㅅ	ㄴㅅㅅ	어절 끝	2
27	ㄴㅅㅅㅅ	ㄴㅅㅅ	어절 끝	2
28	ㅅㅅㅅㅅㅅㅅ	ㅅㅅㅅㅅㅅ	어절 끝	2
29	ㄴㅅㅅㅅ	ㄴㅅㅅ	어절 끝	2
30	ㅅㅅㅅㅅㅅㅅ	ㅅㅅㅅㅅㅅ	어절 끝	2
31	ㅅㅅ	ㅅ	어절 끝	2
32	ㅅㅅㅅ	ㅅㅅ	어절 끝	2
33	ㅅㅅㅅㅅㅅㅅ	ㅅㅅㅅㅅㅅ	어절 끝	1

34	矢か	矢	어절 끝	1
35	支ッㄱ乙ッか	支ッㄱ乙ッ	어절 끝	1
36	ろか	ろ	어절 끝	1
37	ッ而矢か	ッ而矢	어절 끝	1
38	支ッかッろ	支ッ	ッろ	1
39	ッかッナㄱ入ッ	ッ	ッナㄱ入ッ	1
40	矢支リか	矢支リ	어절 끝	1
41	ッ畚ッナ牙か	ッ畚ッナ牙	어절 끝	1
42	リ入リナ牙か	リ入リナ牙	어절 끝	1
43	ナㄱリか	ナㄱリ	어절 끝	1
44	リッナ牙か	リッナ牙	어절 끝	1
45	入乙ッナㄱリか	入乙ッナㄱリ	어절 끝	1
46	畚ッ匕牙か	畚ッ匕牙	어절 끝	1
47	リ尸入乙ッかッナㄱリか	リ尸入乙ッ	ッナㄱリか	1
48	リ尸入乙ッかッナㄱリか	リ尸入乙ッかッナㄱリ	어절 끝	1
49	白匕牙か	白匕牙	어절 끝	1
50	支匕牙か	支匕牙	어절 끝	1
51	匕而牙か	匕而牙	어절 끝	1
52	支ッ匕牙か	支ッ匕牙	어절 끝	1
53	乙ッ匕牙か	乙ッ匕牙	어절 끝	1
54	シ匕牙か	シ匕牙	어절 끝	1
55	ノ牙匕牙か	ノ牙匕牙	어절 끝	1
56	セッ匕牙か	セッ匕牙	어절 끝	1
57	セリッ匕牙か	セリッ匕牙	어절 끝	1
58	口匕牙か	口匕牙	어절 끝	1
59	ッ口匕牙か	ッ口匕牙	어절 끝	1
60	ッ畚ッ口匕か	ッ畚ッ口匕	어절 끝	1
61	𠂔かッろ	𠂔	ッろ	1
62	ろ十ッ口匕か	ろ十ッ口匕	어절 끝	1
63	ノ尸か	ノ尸	어절 끝	1
64	𠂔口匕か	𠂔口匕	어절 끝	1
65	ッかッ令乙	ッ	ッ令乙	1
66	入リか	入リ	어절 끝	1
67	𠂔ナか	𠂔ナ	어절 끝	1
68	リ尸入乙ッナか	リ尸入乙ッナ	어절 끝	1
69	支ッか	支ッ	어절 끝	1
70	シ尸カッか	シ尸カッ	어절 끝	1
71	入乙ッナか	入乙ッナ	어절 끝	1
72	入リナか	入リナ	어절 끝	1
73	ッかノ尸ム	ッ	ノ尸ム	1
74	尸カッかッろ	尸カッ	ッろ	1

- ‘-か’는 석독구결에서 매우 생산적으로 사용된 연결어미로 다소 포괄적인 의미의 절 접속(무표적 절 접속)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김지오(2019)에서는 [나열]의 의미 표찰을 제시한 바 있으며, 절 접속보다 더 큰 단위를 연결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언

급한 바 있음. 한편, 황선엽(2002: 137)에서는 ‘-ㅅ’에 결합하는 선어말어미가 (15세기 한국어의 ‘-며’에 비교했을 때) 다양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오히려 15세기 ‘-니’가 가지고 있던 특성과 유사하다는 점을 제시한 바 있음.

- 《화엄》에서 ‘-ㅅ’ 앞에 나타나는 선어말어미(Ep)로는 “-ㄴ-, -ㅁ-, -ㅂ-, -ㄷ-, -ㄹ-, -ㄴ-, -ㄷ-, -ㄹ-”가 있음.¹¹⁾ 이중 절대 다수는 ‘-ㄷ-’가 결합한 경우인데 총 74회 등장하였음. 이는 전체 ‘-ㅅ’의 출현 빈도 중 선어말어미 없이 나타난 88회를 제거하면 약 49%에 이르는 것임. 이는 곧 동일한 구문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화엄》의 성격 때문으로 생각됨.
- 이어서, 후기중세 한국어의 ‘-며’와 비교를 해볼 수 있음. ‘-며’는 대체로 선어말어미가 결합하지 않고 단독 형식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임. 물론, 대부분의 연결어미에 결합 가능한 ‘-시-, -술-’는 다수 확인 가능함. 한편, 《화엄》과 같이 ‘-리며, -리어며’로 나타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어 주목을 요함.¹²⁾

- (8) ㄱ. ㅎ다가 이 城에 들면 穩히 便安호물 得ㅎ리며 ㅎ다가 能히 보릿 고대 나사가도 또 어루 가리라 <법화 3:175b>
- ㄴ. 고죽호 ㅁㅅㅁ로 더 부터를 念호야 恭敬호ㅅㅅㅅ면 다 버서나리어며 다른 나라히 와 보차거나 도즈기 굴외어나 ㅎ야도 더 如來를 念호야 恭敬호ㅅㅅㅅ면 다 버서 나리라 <釋詳9:25a>

- (8ㄱ)은 석독구결의 ‘-ㅅ’에 비견되는 구성으로 생각됨. (8ㄴ)은 ‘-리-’와 ‘-거-’의 조합으로 보이는데, 석독구결에도 ‘-ㅅ’나 ‘-ㅅㅅ’의 구성이 발견됨. 다만, 순서가 뒤바뀐 ‘-ㅅㅅ’는 찾아볼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물론 ‘-ㅅㅅㅅ’ 등에서 ‘-ㅅㅅ-’의 결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음).¹³⁾
- 중세 한국어 들어 결합하는 선어말어미의 수효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김지오(2019: 71)에서는 이에 대해 “고대국어의 ‘-며’가 이렇게 다양한 선어말어미를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은 ‘-며’로 연결된 선행절이 후행절의 지배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는 동시에 ‘-며’가 결합한 절은 자체로 완성된 문(文) 종결의 기능을 겸할 수 있었던 것으로도 해석된다.”고 한 바 있음. 이에 대해 유형론에서 사용되는 한정성(finiteness) 개념을 활용하면, 스펙트럼 상 한정형 쪽에 가깝게 놓였던 어미가 비한정형 쪽으로 변화했다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임.¹⁴⁾ 이후 점차 의미 기능도 큰 단위를 점속하는 것에서 보다 작은

11) 다른 구결 문헌에 보이는 ‘-ㅅㅅ-’이 결합한 ‘-ㅅㅅㅅ’의 용례는 나타나지 않음. ‘-ㅅㅅ-’의 경우 함께 나타나기는 하나, 직접 연결된 예는 없음.

12) 사실 (8)의 ‘-리-’는 선어말어미가 아닌 ‘관형사형어미+형식명사+계사’ 구성으로도 파악할 수 있으며 직관 상 ‘~할 것이며’가 더 자연스럽다(장요한 2010: 81)는 언급을 찾아볼 수 있음. 석독구결의 ‘-ㅅ’에 대해서도 동일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선어말어미에 대해서는 4장에서 다룸.

13) 물론 석독구결 자료에서 ‘-ㅅ-’가 ‘-ㅅ’에 결합한 경우도 찾아보기 어려움.

14) 한정형/비한정형은 한정성(finiteness)과 관련된 분류임. 한정성은 대체로 절에 대한 논의에서 언급되는 개념인데, 원형적으로 주절은 한정절이고 종속절은 비한정절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음. 비한정절은 주절이라면 표시될 만한 통사적 자질들이 표현되지 않음으로써 그 의존성을 드러내는 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임(문숙영 2019: 499). 이러한 비한정성은 언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유형론적으로 많이 논의된 바 있는데(Cristofaro 2007, Bisang 2007), 현대 한국어에서는 주로 시제, 상, 양태 범주의 출현 여부 및 그 종류에 따라 어미들을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가령, 종결어미 ‘-다’의 경우 거의 모든 선어말어미가 올 수 있는 반면, 연결어미 ‘-어서, -고서, -고자, -려고’ 등은 경어법을 제외한 다른 선어말어미를 허용하지 않음. 이외에 몇몇 연결어미들은 일부

단위를 접속하는 수준으로 변화한다는 점에서 실제 기능과 표면적인 패턴의 변화가 일치를 보인다고도 할 수 있겠음.

- 끝으로, 화염에 등장하는 패턴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어 언급해 볼 만함.

(9) 智慧 自在 ヲ 思議 不(ノ)ノルカ 說法セ 言辭 礙 ノ 無カ{有} [智慧自在不思議
說法言辭無有礙] <화엄15:05> (智慧가 自在하여思議하지 못하며 說法의 言辭는
막힘 없으며)

- (9)는 연결어미인 ‘-카’ 앞에 동명사어미 ‘尸’이 등장해 분석의 어려움을 주었던 예문임. 《금광》에도 ‘-ㅁ尸카/ㅁㅁ카’와 같은 패턴이 등장하여 함께 고려할 수 있음. 이에 대해 남풍현(1996ㄱ)에서는 ‘-ㅁ尸카’가 고형이고 ‘-ㅁㅁ카’ 쪽이 신형에 해당한다고 본 바 있음.

[2] - 3 (-四, -下)

－ ‘ㄴ’은 《화엄》에서 총 291회 사용되었으며, 계사 뒤에서 나타나는 ‘ㄴ’ (10)와 名과 같은 어간이나 선어말어미 ‘-ㄴ/ㄴ-’ 뒤에 나타나는 ‘ㄴ’ (1)을 포함하면 총 301회까지 늘어남. 이는 《화엄》의 전체 연결어미에 대해 39.66%에 해당함. 더불어 ‘ㄴ’은 석독 구결 자료에서 총 854회 사용되었는데 이중 38.34%가 《화엄》에서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그만큼 《화엄》에 ‘ㄴ’의 출현이 잦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ㅓ’는 중세 한국어의 ‘-아/어’에 대응되는 연결어미로 그 기능은 중세 한국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알려져 있음.¹⁵⁾ 《화엄》에서 ‘-ㅓ’가 결합한 선어말어미는 ‘-ㅓ-’, ‘-ㅓ-ㅓ-’가 있으며, ‘-ㅓ’ 뒤에 나타나는 보조사로는 ‘-ㅓ’와 ‘-ㅓ’가 있음.

(10) ㄱ. 皆セ 具足ッナリ 其 心樂ニ 隨^ス {爲}シ^テ 說法ッナリ [皆具足 隨其心樂爲說法] <화엄18:07> (다 갖추어 그 心樂을 좇아 (중생을) 위해 說法하며)

1. 父母乙 孝事ッホ 1 | + 1 當ハ 願入 1 衆生 1 善エ {於}佛乙 事ハ白スホ 一切
乙 護ッる 養ッるッヒ支立 [孝事父母 當願衆生 善事於佛 護養一切] <화엄
02:20> (父母를 孝事할 경우에는 반드시 원하기를 衆生은 잘 부처님을 섬겨서
一切를 보호하고 봉양하고 하소서 (할 것이며))

(11) ㄱ. 若 相 莊嚴 三十二 에 는 則 隨好 은 具 는 隨 은 嚴飾 {爲} 은 爲 은 若相
莊嚴三十二 則具隨好爲嚴飾 <화엄12:22> (만약 相으로 莊嚴하되 三十二相을
(莊嚴)하면 곧 八十種好를 갖추어서 장식 삼을 것이며)

し、以て彼に施すハ其願乙充滿スルコトヲ應セツルコトヲ分〔應以施彼 充滿

선어말어미를 추가적으로 허용하기도 함. 이렇듯 한정/비한정성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연속적인 스펙트럼 위에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며, 선어말어미 허용 정도는 한정성 파악의 중요한 척도 중 하나로 기능할 수 있음.

15) ‘-아/어’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연결어미로 고유의 의미 기능과 함축에 의한 해석을 확실하게 나누어 기술하는 것은 어려운 일임. 관련하여 남윤진(1989)에서는 15세기 ‘-아/어’의 의미는 선행절과 후행절을 긴밀히 연결시키는 것이고, ‘-고’는 선행절을 완결하여 후행절에 연결하는 것이라 한 바 있음. 구체적으로 ‘-고’의 세 가지 기능으로 [나열], [계기], [동시]를, ‘-아/어’의 세 가지 기능으로 [이유], [수단], [배경 제시]를 제시한 바 있음. 장요한(2010)에서는 ‘-아/어’는 [계기], [동시], [원인] 등으로, ‘-고’는 [계기], [동시], [나열] 등으로 그 의미 기능을 제시했음. 이에 따르면 ‘-아/어’와 ‘-고’의 공통적인 의미 기능은 두 절의 동시 발생이나 공존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구결의 ‘-ㅁ’에 대해 김지오(2019)에서는 [연접], [계기], [접속]의 표찰을 제시하였음.

其願] <화소16:12> (그것으로써 저들에게 보시하여서 그 願을 充滿하게 해야 할 것이며)

- (10)은 선어말어미가 결합한 경우로 (10ㄱ)은 ‘-ㄴ-’가 (10ㄴ)은 ‘-ㅁ-’이 결합한 것임.¹⁶⁾ 이때, ‘-ㅁ-’이 결합하는 경우는 모두 ‘-ㅁ’나 ‘-ㅂ’가 후행했으나 다른 구결 문헌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결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됨.¹⁷⁾ 이외에 선어말어미가 결합하지 않은 경우는 총 102회 나타남.¹⁸⁾
- (11)은 ‘-ㅅ’ 뒤에 보조사가 결합한 경우로 (11ㄱ)은 ‘-ㅁ’이 (11ㄴ)에는 ‘-ㅂ’이 결합한 것임. 이외에 아무것도 결합하지 않은 경우는 총 89회 나타남.
- 이외에 <화엄>에는 ‘ㅅㅅㅅㅅ’이 구성이 나타남.

(12) ㄱ. 菩薩 1 {此}리 ㄴ 住ㅅㅅㅅㅅ 普리 觀察ㅅㅅ 宜 1 ㄴ 隨 ㅅ 示現ㅅㅅ 衆生 ㅅ 度리 ㄴ 悉 ㅅ 歡心 ㅅ 法化 ㅅ ㄴ 從 ㅅ 使리 ㅅ ㅅ ㅅ [菩薩住此普觀察 隨宜示現 度衆生 悉使歡心從法化] <화엄17:20-21> (菩薩은 여기에 머무니 널리 觀察하고 마땅한 것을 좇아 보여서 衆生을 건네어 다 기쁜 마음으로 法化로부터 하게 하되)

ㄴ. 世間 1 何 ㅅ 處 ㅅ 從 ㅅ 來 ㅅ ㅅ 去 ㅅ ㅅ ㅅ 何 ㅅ 所 ㅅ ㅅ ㅅ 至 ㅅ [世間 從何處來 去至何所] <화소08:05-06> (세간은 어느 곳으로부터 오며, 가서는 어느 곳에 이르며,)

ㄷ. 謂 1 卽 ㅅ 彼 補特伽羅 ㅅ (內 ㅅ 五種) 生圓滿 ㅅ 具 ㅅ ㅅ ㅅ ㅅ [謂卽彼補特伽羅 具內五種生圓滿已] <유가02:20-21> (말하자면 곧 그 보특가라가 안의 다섯 가지 생원만을 갖추기를 이미 하여서는)

- (12ㄱ)에서는 “住ㅅㅅㅅㅅ”이 나타났는데 이는 ‘하고서는’ 정도로의 의미로 생각됨. 이는 (12ㄴ)의 <화소>의 ‘ㅅㅅㅅㅅ’이나 (12ㄷ)의 <유가>의 ‘ㅅㅅ ㅅ’과 관련된 표기라 할 수 있는데, 황선엽(2003)에서는 이에 대해 연결어미 ‘-ㅅ’에 보조사 ‘-ㅂ’과 ‘-ㅅ’이 통합하여 형성된 ‘-ㅅㅅㅅㅅ’에서 ‘ㄱ’약화를 겪어 ‘ㅎ’으로 실현된 것을 반영된 표기라 한 바 있음(구체적인 의미는 ‘계기+한정’이나 ‘계기+조건’에 해당).
- 한편, ‘-ㅅ’와 관련된 것으로 여겨지는 ‘-ㅅ’의 경우 전체 구결 문헌에 사용된 127회 중 <화엄>에 등장한 것은 1건이었음. 석독구결에서 연결어미로 분류되는 ‘-ㅅ’는 대체로 ① ‘名ㅅ’로 나타나거나, ② ‘令’과 관련해 ‘ㅅㅅㅅ’로 나타나거나, ③ ‘-ㅅ/ㅅㅅ’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됨. <화엄>에는 ①과 같은 명명 구문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데, 아래 (13)과 같이 1회 등장한 名에 ‘ㅅ’가 결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결합이 불가능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②와 같은 사동 표현에도 ‘-ㅅ’가 결합하기 보다는 주로 ‘-ㅅ’와 같은 어미가 결합한 것을

16) ‘-ㄴㅅ’에 대해서는 중세 한국어의 ‘-라’에 해당하는 명령형 어미 보는 경우가 있으나, 그 의미를 고려하면 선어말어미와 연결어미의 결합으로 볼 수 있음(장윤희 1998: 33).

17) 不退地 ㅅ ㅅ 生 ㅅ ㅅ ㅅ 師子勝人 ㅅ 而 ㅅ 得 ㅅ ㅅ 親近 ㅅ ㅅ ㅅ 相 ㅅ 遠離 ㅅ ㅅ ㅅ ㅅ [生不退地 師子勝人 而得親近 不相遠離] <금광14:06-07> (不退地에 나신 師子勝人을 능히 親近히 하여 서로 멀리 여의지 않을 것이며)

18) 황선엽(2002: 106)에서는 연결어미 ‘-ㅅ’ 앞에 선어말어미 ‘-ㄴ-’가 통합한 예가 <화엄>, <화소>, <구인>에서만 보인다는 점이 점차 ‘-ㄴ-’가 연결어미 앞에서 쓰이지 않게 되는 변화를 겪었음을 의미한다고 보았음. 이는 앞서 살핀 ‘-ㅅ’에서도 동일함.

확인할 수 있었음. ③의 ‘-ㄴ/ㄹ-’도 총 31회 정도만 나타날 뿐더러(전체 구결에는 296회 등장) ‘-ㅅ’에 결합하는 경우도 발견되지 않음. 이러한 까닭에 공백이 생긴 것으로 보임.

(13) 語₇ 境界 不思議₁₁ 知₁ 是₇ 名₁ 說法三昧₇ 力₁ 知語境界 不思議₁₁ 是名說法三昧力 <화엄20:15> (말의 境界 不思議인 줄 아는 것을 이를 일러 說法三昧의 力이라 한다.)

- ‘-ㅁ’의 경우 계사 뒤에서만 사용되어 중세 한국어 연결어미 ‘-라’와 동일한 분포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음. 대체로 앞의 절이 뒤의 절의 [원인]이나 [근거]가 됨을 나타냄.

(14) ㄱ. 或₁ 長者₁₁ 邑₇ 中₃ 主₁ 爲₁ 或₁ 賈客₁₁ 商人₁ 導₁ 爲₁ 爲長者邑中主 或爲賈客商人導 <화엄19:08> (혹은 長者이라서 邑城의 주인이 되며 혹은 賈客이라서 商人의 지도자가 되며)

ㄴ. 佛子₃ 若₇ 諸₁ 菩薩₁₁ 善₁ 其₁ 心₇ 用₁ 則₁ 一切 勝妙功德₇ 獲₁ 佛子 若諸菩薩 善用其心 卽獲一切 勝妙功德 <화엄02:12-13> (佛子여 만약 모든 菩薩이 잘 그 마음을 쓰는 경우에는 곧 一切 勝妙功德을 얻을 것 이어서)19)

- (14ㄱ)의 “賈客₁₁”과 같이 계사 뒤에 직접 통합되거나 (14ㄴ)과 같이 “獲₁”과 같이 기원적으로 계사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ㅍ’ 뒤에 통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물론, Sktot에서는 ‘ㅍ, ㅍ’를 모두 선어말어미로 처리하고 있음).20) 이외에 (14ㄱ)의 “長者₁₁”은 ‘-ㅁ’ 뒤에 ‘-ㅍ’이 결합한 유일례로 보임.

- 《화엄》에 등장하는 구결자 연쇄 패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데, 음영 처리한 부분은 《화엄》에만 나타나는 구결자 연쇄임(*한 어절 내의 등장 패턴임).

[표 7] 《화엄》에 등장하는 ‘-ㅅ’의 패턴

연번	구결자 연쇄	앞 요소	뒤 요소	빈도
1	ㅅ ㅍ	ㅅ	ㅍ	77
2	ㅅ ㅍ	어절 시작	ㅍ	62
3	ㅅ	어절 시작	어절 끝	27
4	ㅅ ㅍ	ㅅ	ㅍ	27
5	ㅅ ㅍ	ㅅ	어절 끝	17
6	ㅅ ㅍ	어절 시작	ㅍ	11
7	ㅅ ㅍ	ㅍ	ㅍ	8
8	ㅅ ㅍ	ㅅ ㅍ	어절 끝	5
9	ㅅ ㅍ	ㅅ ㅍ	어절 끝	4
10	ㅅ ㅍ	ㅅ	어절 끝	3
11	ㅅ ㅍ ㅍ	ㅅ ㅍ	ㅍ	3
12	ㅅ ㅍ	ㅅ	ㅍ	3
13	ㅅ ㅍ ㅍ	ㅅ ㅍ	어절 끝	3

19) 후행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모든 불법에 대해 마음에 막히는 것이 없으며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의 도에 머물며 ... 一切 法에 대해 自在하지 않음이 없으며 衆生의 第二 導師가 됩니다.”

20) ‘-ㅁ’가 ‘-ㅅ’보다 더 특수한 [원인]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보았을 때, 서로 다른 연결어미로 떼어 설명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임.

14	うッ尸カッか	어절 시작	ッ尸カッか	2
15	支ッうホ	支ッ	ホ	2
16	支ッうハ	支ッ	ハ	2
17	セッうホ	セッ	ホ	2
18	リッ	リ	어절 끝	2
19	リッナッ	リッナ	어절 끝	2
20	イッ	イ	어절 끝	2
21	ッッッ	ッ	ッ	2
22	ッッッッ	ッッ	ホ	2
23	ハ白ッホ	ハ白	ホ	1
24	ハ白ッハ	ハ白	ハ	1
25	支ッかッ	支ッか	어절 끝	1
26	入乙ッホ	入乙ッ	ホ	1
27	入乙ッハ	入乙ッ	ハ	1
28	尸カッかッ	尸カッか	어절 끝	1
29	ケッ	ケ	어절 끝	1
30	シッハ	シ	ハ	1
31	セッ	セ	어절 끝	1
32	セッホ	セ	ホ	1
33	セリッホ	セ리	ホ	1
34	セッ	セ	어절 끝	1
35	セッハ	セ	ハ	1
36	リッ	リ	어절 끝	1
37	リッ	리	어절 끝	1
38	イッ入乙ッ	이	어절 끝	1
39	이	이	어절 끝	1
40	이	이	호	1
41	카	카	어절 끝	1
42	ッッッ	ッ	ッ	1
43	ッ尸カッナ	ッ尸カッナ	어절 끝	1
44	ッッ	리	어절 끝	1

[3] -ㅁ

- ‘-ㅁ’는 《화엄》에서 총 20회 사용되었음. 이는 《화엄》의 전체 연결어미에 대해 2.64%에 해당함. 더불어 ‘-ㅁ’는 석독구결 자료에서 99회 사용되었는데 이중 20.2%가 《화엄》에서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ㅁ’는 중세 한국어의 ‘-ㅁ’에 대응되는 연결어미로 유사한 기능의 ‘-ㅅ’에 비해 매우 제한적인 분포와 기능을 지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특히 황선엽(2003: 119-120)에서는 석독구결에서의 ‘-ㅁ’는 [계기]나 [나열] 정도로만 사용되었다고 한 바 있음. 선어말어미는 ‘-ㅁ’가 결합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화엄》에서는 결합한 선어말어미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됨. ‘-ㅁ’ 뒤에 나타나는 보조사로는 ‘-ㅁ(1)’과 ‘-ㅁ’이 있음. 앞서 ‘-ㅅ’에 ‘ㅁ(1)’이 결합해 [계기]의 의미를 더한다고 했던 것과 평행하게 ‘-ㅁㅁ(1)’은 ‘하고 나서’의 의미로 해석된다고 할 수 있음.

- (15) 信1 垢濁 無ッホ 心市 清淨ムリナヲカ 橋慢乙 滅除ッㅁ 恭敬ノ今セ 本リ尸入乙ッナ1リカ
 [信無垢濁心清淨 滅除橋慢恭敬本] <화엄09:22> (信은 더러움 없어서 마음을 淸淨하게 할 것이며 橋慢을 없애고 공경함의 근본이 될 것이며)

- (16) ㄱ. 瓔珞^ㄷ 著^ㄴ 時^ㄴ 當^ㄴ 願^ㄴ 衆生 諸^ㄴ 僞飾^ㄷ 捨^ㄴ 眞實處^ㄴ 到^ㄴ 眞實處^ㄴ
 [著瓔珞時 當願衆生 捨諸僞飾 到眞實處] <화엄03:01> (瓔珞을 著할 때에는 반드시 원하기를 衆生은 모든 僞飾을 버리고서 眞實處에 도달하소서 (할 것이며))
- ㄴ. 若^ㄴ 世界^ㄴ 始^ㄴ 成立^ㄴ 衆生^ㄴ 資身^ㄴ 具^ㄴ 有^ㄴ 未^ㄴ 見^ㄴ 是^ㄴ 時^ㄴ 菩薩^ㄴ 爲^ㄴ 工匠^ㄴ 爲^ㄴ 示現^ㄴ 種種^ㄴ 業^ㄴ
 [若見世界始成立 衆生未有資身具 是時菩薩爲工匠 爲之示現種種業] <화엄19:12-13> (만약 世界가 비로소 成立되어 衆生이 몸의 바탕을 가지지 않은 것을 본 경우에는 이때에 菩薩은 工匠이 되며 그를 위해 갖가지 業을 보이되)
- ㄷ. 飯食^ㄴ 已^ㄴ 訖^ㄴ 當^ㄴ 願^ㄴ 衆生 所作^ㄴ 皆^ㄴ 辦^ㄴ 諸^ㄴ 佛法^ㄴ 具^ㄴ 足^ㄴ
 [飯食已訖 當願衆生 所作皆辦 具諸佛法] <화엄07:20> (飯食을 이미 끝낸 경우에는 반드시 원하기를 衆生은 할 것을 다 마쳐서 모든 佛法을 갖추소서 (할 것이며))
- ㄹ. 爾^ㄴ 時^ㄴ 文殊師利菩薩^ㄴ 無^ㄴ 濁亂清淨行^ㄴ 大功德^ㄴ 說^ㄴ 已^ㄴ 足^ㄴ
 [爾時 文殊師利菩薩 說無濁亂清淨行大功德已] <화엄08:20-21> 그때 文殊師利菩薩은 無濁亂清淨行의 大功德을 이르기를 마치고

- (15)는 일반적인 ‘-ㅁ’의 용례로 두 절을 대등하게 잇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16ㄱ)은 ‘-ㅁ’에 ‘ㅅ’가 결합한 예로 [계기]의 의미가 간취됨. 황선엽(2003: 123)에서는 ‘-ㅁ’에 ‘ㅅ’과 ‘ㅅ’이 결합한 ‘-ㅁㅅㅅ’이 [계기+한정]의 의미를 가지거나 [계기+조건]의 의미를 지닌다고 했는데, (16ㄴ)은 [계기+조건]에 해당하는 예문임.²¹⁾
- 《화엄》에는 ‘-ㅁㅅ’의 표기가 등장하지는 않으나 유사한 (16ㄷ)과 같은 표기는 등장함. 한편 ‘-ㅁㅅㅅㅅ’과 대응되는 ‘-ㅁㅅㅅㅅㅅ’은 《화엄》에는 등장하지 않고 《화소》나 《구인》 등에서만 발견됨. 유사한 맥락의 (16ㄹ)의 “已^ㄴ 足^ㄴ”은 《화소》, 《금광》에서 “已^ㄴ 足^ㄴ 已^ㄴ 足^ㄴ” 등으로 나타남.
- 《화엄》에 등장하는 구결자 연쇄 패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데, 음영 처리한 부분은 《화엄》에만 나타나는 구결자 연쇄임(*한 어절 내의 등장 패턴임).

[표 8] 《화엄》에 등장하는 ‘-ㅁ’의 패턴

연번	구결자 연쇄	앞 요소	뒤 요소	빈도
1	ㅁㅅ	어절 시작	ㅅ	1
2	ㅁㅅㅅ	어절 시작	ㅅㅅ	1
3	ㅁㅅㅅㅅ	ㅅ	ㅅ	3
4	ㅁㅅㅅㅅㅅ	ㅅ	ㅅㅅㅅ	1
5	ㅁㅅㅅㅅ	ㅅㅅ	어절 끝	2
6	ㅁㅅㅅ	ㅅ	어절 끝	4
7	ㅁㅅㅅㅅ	ㅅ	ㅅ	5

[4] -ㅁㅅ

- ‘-ㅁㅅ’은 《화엄》에서 총 3회 사용되었음. 이는 《화엄》의 전체 연결어미에 대해

21) 해당 부분의 한문 원문은 다음과 같은데, 조건문으로 해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若見世界始成立 衆生未有資身具 是時菩薩爲工匠 爲之示現種種業 [만약 세상이 처음 이루어지고, 중생들이 아직 몸을 부지할 수단조차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는 보살은 공장(工匠, 장인)으로서 나타나 그들을 위해 여러 가지 직업과 기술을 보여준다.]”

0.4%에 해당함. 더불어 ‘-ㅁ’는 석독구결 자료에서 19회 사용되었는데 이중 15.79%가 《화엄》에서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음.²²⁾

- 연결어미 ‘-ㅁ 1’의 의미 기능에 대해 황선엽(2002, 2004)에서는 [이유]나 [원인]에 해당하며 경우에 따라 [전제]의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하였음. 관련하여, 장경준(2007: 107)에서도 ‘廣說’에 ‘廣 Ⅱ 說 ㅁ 1’으로도 현토되고 ‘廣 Ⅱ 說 ㅍ ㅅ 1’으로도 현토되는 현상을 근거로 ‘ㅁ 1(곤)’이 가정의 ‘ㅍ ㅅ 1(근든)’과 동일한 의미를 지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음. 이에 김지오(2019: 76)에서는 그 의미를 [발견]과 [가정]으로 제시한 바 있음.
- 본 발표문에서는 ‘-ㅁ 1’를 연결어미의 하나로 보았으나 남풍현(1996ㄴ)의 견해와 같이, ‘-ㅁ 1’에 대해 ‘-ㅁ-’를 선어말어미로 ‘-1’은 동명사어미로 보고 이러한 구성이 연결어미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도 가능함.
- 한편, 《화엄》에는 《유가》에서 흔히 나타나는 ‘略 ㅁ 1, 說 ㅁ 1’과 같은 예는 보이지 않고, 다소 특수한 분포를 보이는 예들만 발견됨. 아래 (17)은 Sktot에서 연결어미(ㅁ Ec-, 1-Ec)로 처리한 것들이며[3건] (18)은 선어말어미와 동명사어미의 결합으로 처리한 것들(ㅁ Ep, ㅍ Ep, 1 Et)임[2건].

(17) ㄱ. 若 如來尸 體リ 常住ッ所イ ㄱ 乙 見 白ヒ尸 入 ㄱ 則 能 支 法ヲ 永 去 滅ッロ ㄱ
不 失ヒ ㄱ 乙 知 ヒ 牙 ㄱ [若見如來體常住 則能知法永_去滅] <화엄11:15> (만약
如來의 몸이 常住하시는 것을 보면 곧 能히 法이 영원히 滅하지 않는 것을 알
것이며)

ㄷ. 若能法ヲ永ホ減ヘクソロフ 不失ヒフ入乙 知ヒ尸入フ 則得フホ辯才リ障礙ッ
尸無ヒ才ホ [若能知法永不減 則得辯才無障礙] <화엄11:16> (만약 能히 法이
영원히 減하지 않는 것을 보면 곧 능히 辯才가 막힘 없을 것이며)

ㄷ. 而 1 彼 微塵 1 亦 1 增 1 不 1 於 1 普 1 難 1 刹 1 現 1
 ㅇㅁㅇㅁ [而彼微塵亦不增 於一普現難思刹] <화엄15:09> (저 微塵은 또한 더
 함 없거늘 하나에 널리 생각하기 어려운 刹土를 나타내며)

(18) ㄱ. 彼ヲ{之} 功德 1 邊際 無口ナ 1 稱量 ヲ ムコシ 可セ ヲ 1 不失カ 與セ ヲ ムホ 等 ム
 ヲ ム今 無セナ 1 [彼之功德無邊際 不可稱量無與等] <화엄09:05> 저의 功德은
 邊際 없으니 稱量할 수 없으며 함께 하여서 대적할 이 없다.

ㄴ. 信 1 道 3 七 元 矢 支 리 3 功 德 七 母 리 尸 3 爲 3 入 乙 ッ ロ ナ 1 一 切 諸 1 善 法 乙 長 養 ヽ 3 [信爲道元功德母 長養一切諸善法] <화엄09:20> (信은 道の 비릇함이 며 功德의 어미가 되니 一切 모든 善法을 長養하고)

- (17)은 표면적인 형태는 ‘ㅁ 1’이지만, 황선엽(2002: 171-172)에서는 부정의 ‘不矢’ 앞에 쓰였다는 점에서 연결어미로 해석하기 어렵고, 동명사어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본 바 있음.
- (18)은 ‘-ㅁ 1’의 형태로 나타나서 연결어미를 ‘-ㅁ 1’으로 분석할 수도 있고 ‘-ㅁ 1’의 불연속 형태소로 분석할 수도 있음. 황선엽(2004: 124)에서는 이러한 예들을 제외하고는 석독구결에서 ‘-ㅁ 1’이 연결어미로 쓰인 예가 보이지 않으며 ‘-ㅁ 1’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고려해 ‘-ㅁ... 1’에 ‘-ㅁ-’가 통합한 것으로 본 바 있음.
- 이외에 다른 석독구결 문헌에 나타나는 “ㅁㅁㅁ 1/ㅁㅁㅁ 1”와 같은 연쇄는 《화엄》에

22) 이러한 통계 내용은 Sktot 형태소 분석을 근거로 한 것임. 3건은 (17)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연결어미로 보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겠음.

나타나지 않음.²³⁾ 결과적으로 《화엄》에 ‘-ㅁ 1’은 (18)의 형식으로 2회만 출현했다고 볼 수 있겠음.

[5] — $\rho \wedge 1$

- ‘-ㅍㅅㅌ’은 《화엄》에서 총 79회 사용되었음. 이는 《화엄》의 전체 연결어미에 대해 12.38%에 해당함. 더불어 ‘-ㅅ’는 석독구결 자료에서 총 120회 사용되었는데 이중 65.83%가 《화엄》에서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즉, ‘-ㅍㅅㅌ’의 절대 다수가 《화엄》에 주로 등장한 것임을 알 수 있음.
- ‘-ㅍㅅㅌ’은 기원적으로 동명사어미 ‘-ㅍ’에 의존 명사 ‘ㅅ’와 주제 보조사 ‘-ㅌ’이 결합한 것으로 ‘-는 것은’ 정도에 해당하는 것임(이용 2003: 105). 이러한 구성이 굳어져 연결어미로도 사용되었는데, 이때의 기능은 [조건]이라 할 수 있음. 다만, 석독구결에는 이러한 명사구 보문 구성을 이루는 것과 연결어미로 해석되는 것이 공존하는 것으로 보임.
- 결합 가능한 선어말어미에는 ‘-ㄷ-, -ㅁ-, -ㅂ-, -ㅅ-’가 있음. 《화엄》에는 이러한 선어말어미들이 모두 나타나며, ‘-ㅍㅅㅌ’ 뒤에 이어붙는 요소는 발견되지 않음.²⁴⁾

(19) ㄱ. 若セ 常リ {於}諸ノ 佛ニ 信奉ッ 自ヒ尸入 則支 能支 戒ニ 持ッ 學處ニ 修
 ㄴ ッ 自ヒ牙 〔若常信奉於諸佛 則能持戒修學處〕 <화엄10:10> (만약 항상 모든
 부처님을 信奉한다면 곧 能히 戒를 지니고 學處를 닦고 하는 것이며)

ㄴ. 若一切佛其前 現_ヒ而_レ入_リ 則神通深密用_ヒ了_ス ッヒテ_レ分_ル [若一切佛現其前則了神通深密用] <화엄12:16> (만약一切佛이 그 앞에 나타나면 곧神通하고 깊은 비밀스런作用을了知할 것이며)

七、若 {於}十方七 諸¹ 佛² 所 灌頂 受 而 昇位 應³セツモテ入⁴ 則 十方七 一
 切 佛⁵ 手 甘露 以 其 頂 灌 蒙⁶モテ⁷ [若於十方諸佛所 應受灌頂而昇位 則蒙
 十方一切佛 手以甘露灌其頂] <화엄14:03> (만약 十方의 모든 부처님 처소에
 서 灌頂을 받아서 應當 位에 오르면 곧 十方의 一切 부처님이 손으로 甘露로써
 정수리에 부음을 받을 것이며)

三. 見聞ッゝ 聽受ッゝ 若セ 供養ッゝ ソモ火セハ尸入^レ 皆セ 安樂ニ 獲リ 令リ尸
不ッ尸丁ノ尸 靡セリ ソモ牙カ [見聞聽受若供養 靡不皆令獲安樂] <화엄14:10>
(見聞하고 聽受하고 만약 供養하고 한다면 다 安樂을 얻게 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며)

- (19)는 <화엄10:10>에서부터 <화엄14:12>까지 “A尸入1, Bッヒヲカ”의 구성으로 나타나는 부분으로 ‘-尸入1’의 대부분의 용례가 여기에서 확인됨. 이들의 한문 원문은 대체로 “若 ~ 則 ~”과 같은 전형적인 조건문에 대응됨(황선엽 2002: 186). (19ㄱ)에서는 ‘-ヒ-, -自-’이, (19ㄴ)에서는 ‘-ヒ-, -カ-’가 (19ㄷ)에서는 ‘-ヒ-, -ヲ-’가 발견되

23) 이외에 ‘-ㅁㅓ :’도 관련된 형태로 제시할 수 있는데, 이들은 의미 기능상 ‘-ㅓ :’에 더 가까운 것으로 생각됨.

[此]轉輪位王處久我未曾得 <화소11:18-19> (“이 轉輪位에 왕은 處하시되 이미 오래되었으나, 나는 조금도 얻지 못했습니다.”)

24) 물론 뒤에 이어붙는 요소는 자토석독구결 전체에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기원적으로 보조사 ‘-1’을 마지막에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어 결합 가능한 선어말어미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음. 석독구결에 ‘-ㄴㅏㅓ’이 선어말어미 없이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 《화엄》에서도 동일하게 그러한 경우는 발견되지 않음. 이외에 (19ㄷ)은 ‘-이라면’ 정도로 해석되는 ‘火七ハフㅏㅓ’의 용례로 자토 석독구결에서는 《화소》와 《화엄》에서만 나타남. 대체로 명사구 혹은 명사형어미 ‘ㄷ’ 뒤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보임.²⁵⁾

- 한편, 《화엄》에는 아래 Sktot에서와 같이 명사구 보문 구성으로 처리할 만한 용례도 등장함.

(20) ㄱ. 佛子ᄃ 菩薩ᄃ 在家ᄃ ᄃᄃᄃᄃ 當ᄃ 願ᄃ 尸ᄃ 入ᄃ [願ᄃ ᄃ Ep,尸 Et,入 N,ᄃ J,] 衆生ᄃ 家性ᄃ 空ᄃ ᄃᄃᄃᄃ 知ᄃ ᄃᄃ 其 逼迫ᄃ 免ᄃ 支ᄃ 立ᄃ ᄃᄃᄃᄃ 牙ᄃ [佛子 菩薩在家 當願衆生 知家性空 免其逼迫] <화엄02:18-19> (佛子여 菩薩은 在家할 경우에 반드시 원하기를 衆生은 家性의 空함을 알아서 그 逼迫을 免하소서 할 것이며)

1. 示リテ 1 所セ 苦行セハ 尸入 1 世リト 堪リ矢ッ 今 靡セリッ 今 彼乙 見リ
 尸 已シッ 皆セ 調伏 令リロモカ [所示苦行世靡堪 令彼見已皆調伏] <화엄
 20:05> (보이는 苦行뿐인 것은 世間에서 감내할 이 없어서 저를 보이고 나서
 다 調伏하게 하며)

二. 菩薩^リ 發意^ッ 求^ム 菩提^ヲ 求^ム ヌ^レ 入^ル 入^ル {是} ^リ 因 無^リ ッ^カ 緣 無^リ ッ^ヒ {有}
非^リ 矢 [菩薩發意求菩提 非是無因無有緣] <화엄09:10> (菩薩이 發意하여菩
提를 求하는 것은 因 없이 하며 緣 없이 하는 것 아니니

- (20ㄱ)은 Sktot에서 명사구 보문 구성으로 분석한 용례로, <화엄02:18-19>에서부터 <화엄08:15>까지 유사한 문장 구조로 나타남. 다만, 이 부분에서만 ‘Aㅅ Bㅅ C’로 나타나고, 이후에는 ‘-ㅅ Bㅅ C’ 및 ‘C’ 부분은 생략되어 나타남(물론, 동일한 ‘願ㅅ Bㅅ C’이 《화소》에는 많이 등장). 황선엽(2002: 188)에서는 이러한 구문에 대해 ‘원하면’보다는 ‘원하는 것은’ 정도의 해석이 자연스럽다고 보았으며, 15세기 한국어의 ‘-오되’나 ‘-ㄴ든’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았음.²⁶⁾ (20ㄴ)도 Sktot에서 명사구 보문 구성으로 분석한 용례인데, 구성 자체는 (19ㄴ)과 비슷한 것으로 보임.
- ‘ㅅ Bㅅ C’와 평행한 ‘Cㅅ Bㅅ C’ 구성도 (20ㄷ)과 같이 3회 등장함. ‘-는 것은’ 정도로 해석하면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임.
- 《화엄》에 등장하는 구결자 연쇄 패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데, 음영 처리한 부분은 《화엄》에만 나타나는 구결자 연쇄임(*한 어절 내의 등장 패턴임).

[표 9] 《화엄》에 등장하는 ‘-尸入1’의 패턴

연번	구결자 연쇄	앞 요소	뒤 요소	빈도
1	ㄷ 尸 入 ㄱ	ㄷ	어절 끝	16
2	ㄷ 而 尸 入 ㄱ	ㄷ 而	어절 끝	1
3	支 ㄷ 尸 入 ㄱ	支 ㄷ	어절 끝	1
4	支 ㅍ ㄷ 尸 入 ㄱ	支 ㅍ ㄷ	어절 끝	1
5	入 乙 ㅍ ㄷ 尸 入 ㄱ	入 乙 ㅍ ㄷ	어절 끝	3

25) 이는 주본 『화엄경』 점토석독구결에서 15(·/)로 나타나 동일한 분포를 보임(안대현 2008, 문현수 2017).

26) ‘願흔든’ 구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정재영(1996: 207-208)을 참고할 수 있음.

6	尸丁ノ令口ッ牙尸入ㄱ	尸丁ノ令口ッ牙	어절 끝	1
7	乙ッモ尸入ㄱ	乙ッモ	어절 끝	1
8	シモ尸入ㄱ	シモ	어절 끝	1
9	白モ尸入ㄱ	白モ	어절 끝	1
10	セッモ牙尸入ㄱ	セッモ牙	어절 끝	1
11	リモ尸入ㄱ	リモ	어절 끝	3
12	リッモ尸入ㄱ	リッモ	어절 끝	1
13	畚ッモ尸入ㄱ	畚ッモ	어절 끝	1
14	ノ牙モ尸入ㄱ	ノ牙モ	어절 끝	1
15	ハモ尸入ㄱ	ハモ	어절 끝	3
16	ッモ尸入ㄱ	ッモ	어절 끝	37
17	ッ所トモㄱ入乙ッモ尸入ㄱ	ッ所トモㄱ入乙ッモ	어절 끝	1
18	ッ白モ尸入ㄱ	ッ白モ	어절 끝	4
19	ッ畚ッ口モ火セハ尸入ㄱ	ッ畚ッ口モ火セハ	어절 끝	1

[6] - ㄱ

- ‘- ㄱ’은 《화엄》에서 총 43회 사용되었음. 이는 《화엄》의 전체 연결어미에 대해 5.67%에 해당함. 더불어 ‘- ㄱ’은 석독구결 자료에서 총 387회 사용되었는데 이중 11.11%가 《화엄》에서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어, 《화엄》에 비교적 적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음.
- 연결어미 ‘- ㄱ’은 비슷한 동사구나 절의 나열에 사용되어 연결어미 ‘- ㄱ’과 유사한 의미 기능을 하나, ‘- ㄱ’보다 작은 단위의 연결에 쓰인다고 알려져 있음. 결합 가능한 선어말어미로는 ‘- 白-’이 있으나, ‘- 白-’이 통합한 용례가 《화엄》에는 나타나지 않음.
- ‘- ㄱ’은 대체로 2회 이상 묶어서 나타나며, 뒤에 아우름 동사를 요구한다는 특징이 있음.

- (21) ㄱ. 正法輪乙 轉^ㄱ 寂滅ヲ入^ㄱ 乃^ㄱ 至^ㄱ 舍利乙 廣^ㄱ 分布^ㄱ ヲ^ㄱ ヲ^ㄱ ヲ^ㄱ ヲ^ㄱ [轉正法輪入寂滅 乃至舍利廣分布] <화엄14:20> (바른法輪을 굴리고 寂滅에 들고 내지 舍利가 널리 分布하고 하며)
- ㄴ. 雅思^ㄱ 淵才^ㄱ 文中^ㄱ 王^ㄱ 王^ㄱ 歌舞^ㄱ 談說^ㄱ ヲ^ㄱ ヲ^ㄱ ヲ^ㄱ ヲ^ㄱ 衆^ㄱ 欣^ㄱ ノ尸^ㄱ 所^ㄱ 尸^ㄱ 尸^ㄱ 尸^ㄱ [雅思淵才文中王 歌舞談說衆所欣] <화엄19:06> (우아한 생각이고 깊은 생각이고 하여 글 가운데 王이 되며 歌舞하고 담화하고 하되 많은 기뻐할 것이 되며)

- (21ㄱ)은 동사 뒤, (21ㄴ)은 계사 뒤에서 나타나는 예임.²⁷⁾
- 《화엄》에 등장하는 구결자 연쇄 패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데, 음영 처리한 부분은 《화엄》에만 나타나는 구결자 연쇄임(*한 어절 내의 등장 패턴임).

[표 10] 《화엄》에 등장하는 ‘- ㄱ’의 패턴

연번	구결자 연쇄	앞 요소	뒤 요소	빈도
1	ㄱ	어절 시작	어절 끝	4

27) 김지오(2019: 75-76)에서는 ‘-저(ㄱ/齊)’의 분포와 출현 환경도 이두와 구결이 큰 차이를 보임을 지적한 바 있음. 구결의 경우 아우름 동사를 동반하여 나타나지만, 이두에서는 ‘-저’가 반복되어 사용되지 않거나 아우름 동사 없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의미도 [소망]의 의미나 명령형 종결처럼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자료별 ‘-저’의 출현이 이질적이라고 함.

2	ㄱㄴㄷ	어절 시작	ㄴㄷ	1
3	ㄱㄴㄷ	어절 시작	ㄴㄷ	1
4	ㄱㄴㄷ	어절 시작	ㄴㄷ	1
5	ㄱㄴㄷ	어절 시작	ㄴㄷ	1
6	ㄴㄷ	ㄴ	어절 끝	1
7	ㄴㄷ	ㄴ	ㄴ	1
8	ㄴㄷ	ㄴㄷ	ㄴㄷ	1
9	ㄴㄷ	ㄴ	어절 끝	18
10	ㄴㄷ	ㄴ	ㄴ	2
11	ㄴㄷ	ㄴ	ㄴ	1
12	ㄴㄷ	ㄴ	ㄴ	1
13	ㄴㄷ	ㄴ	ㄴ	1
14	ㄴㄷ	ㄴ	ㄴ	1
15	ㄴㄷ	ㄴ	ㄴ	1
16	ㄴㄷ	ㄴ	ㄴ	1
17	ㄴㄷ	ㄴ	ㄴ	1
18	ㄴㄷ	ㄴ	ㄴ	1
19	ㄴㄷ	ㄴ	ㄴ	1
20	ㄴㄷ	ㄴ	ㄴ	1
21	ㄴㄷ	ㄴ	ㄴ	1
22	ㄴㄷ	ㄴ	ㄴ	1

- － 한편, 《화엄》에는 (22)와 같이 ‘ㄴㄷ’가 1건 등장하는데, 이는 [원망]을 나타내는 연결어미로 나누어 제시해 볼 수 있는 것임. 앞선 ‘ㄴ’과 달리 2회 이상 연달아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음. 15세기 ‘-고저’로 연결되는 형태로 추정해 봄 직한 예임. 물론, 장윤희(2002: 121)에서는 연결어미가 아닌 청유형 종결어미로 처리한 바 있음.

(22) 菩薩 勤 大悲行 修 願 一切 度 ㄴㄷ 果 不 ㄴㄷ 無 ㄴㄷ 〔菩薩勤修大悲行 願度一切無不果〕 <화엄14:09> (菩薩은 부지런히 大悲行을 닦아서 願하건대 一切를 건네고자 하되 果 아님이 없이 할 것이라)

[6] ㄴㄷ, ㄴㄷ

- － ‘ㄴㄷ, ㄴㄷ’는 《화엄》에서 각각 40회, 7회 사용되었음. 이는 《화엄》의 전체 연결어미에 대해 5.27%, 0.92%에 해당함. 더불어 ‘ㄴ’는 석독구결 자료에서 각각 113, 24회 사용되었는데 이중 35.4%, 29.16%가 《화엄》에서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 ‘ㄴㄷ’와 ‘ㄴㄷ’는 기능이나 의미 상의 차이를 거의 보이지 않음. 이에 대해 황선엽(2002: 196)에서는 후행절에 선행절에 대한 부가적인 상황이나 세부적인 내용 설명이 온다고 설명하였고, 김지오(2019)에서는 [인용], [상술]의 의미 표지한 바 있음.
- － ‘ㄴㄷ’와 ‘ㄴㄷ’는 기원적으로는 선어말어미 ‘ㄴ’와 동명사 어미 ‘ㄷ’ 또는 ‘ㄴ’이 결합한 어미구조체가 존재명사 ‘*ㄷ(/다)’를 수식하는 구조의 명사구에 처격조사 ‘ㄴ’의 통합한 구성으로 볼 수 있음.²⁸⁾

28) 아래는 이윤(2003: 116)에서 연결어미보다 명사구 보문 구성에 가까운 것으로 제시되었던 예임.
不可思議 刹 嚴淨 ㄴㄷ 一切 諸 如來 供養 ㄴㄷ 大光明 放 ㄴㄷ 邊 ㄴㄷ {有} 衆生 ㄴㄷ 度脫 ㄴㄷ 亦 ㄴㄷ 限 ㄴㄷ 無 ㄴㄷ 〔嚴淨不可思議刹 供養一切諸如來 放大光明無有邊 度脫衆生亦 ㄴㄷ 限 ㄴㄷ 無 ㄴㄷ〕

- 후기중세 한국어의 ‘-오디’와 ‘-으ㅁ’와 ‘-으ㅁ’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이승재(1995), 정재영(1997), 박진호(1998), 이용(2003) 등에서 제시된 바 있음.²⁹⁾ 물론, 장윤희(2010)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그 의미 기능에는 다소 차이가 발견됨. 15세기 한국어의 ‘-오디’는 대체로 [인용]과 [전제/설명의 연속]으로 사용되나 이중 [인용]의 용법이 석독구결의 ‘-으ㅁ’와 ‘-으ㅁ’에서는 보이지 않음을 지적한 바 있음.³⁰⁾
- Sktot에서는 이들 연결어미(Ec)를 ‘-ㅁ’와 ‘-ㅁ’로 두고 앞의 ‘-으-’는 선어말어미로 처리하고 있으나, 모든 경우에 ‘-으-’가 선행하므로 여기에서는 ‘-으ㅁ’와 ‘-으ㅁ’으로 제시하였음. 이외에 결합 가능한 선어말어미로는 ‘-ㅁ-’ 정도가 발견되며, 다른 석독구결 자료에서 ‘-ㅁ-’가 결합한 예가 보이지만 《화엄》에서는 보이지 않음.

(23) ㄱ. 信ㅁ 能支 惠施ノㅁ 心ㅁ 吝ノㅁ 無ㅁ스ㅁㅁㅁ [信能惠施心無吝] <화엄 09:24> (信은 能히 惠施하되 마음에 吝嗇함 없이 하게 할 것이며)

ㄴ. {於}僧ㅁ 歸ㅁㅁㅁ 自ㅁㅁㅁ 當 願 衆生 大衆ㅁ 統理ノㅁ 一切之ㅁ 礙ㅁ 無ㅁㅁㅁ [自歸於僧 當願衆生 統理大衆 一切無礙] <화엄03:16> (스님들께 귀의 함으로부터 말미암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하기를 衆生은 大衆을 統理하되 一切의 막힘 없으소서 (할 것이며))

(24) ㄱ. 十方ㅁㅁ 有ㅁ 所ㅁ 諸ㅁ 妙物ㅁ 無ㅁ上尊ㅁㅁ 奉獻ㅁㅁㅁㅁ應可ㅁㅁㅁㅁㅁ 掌ㅁ 中ㅁㅁ 悉ㅁ 雨ㅁㅁㅁ 備ㅁㅁ 不ㅁㅁㅁㅁㅁ 無ㅁㅁㅁㅁㅁ [十方所有諸妙物 應可奉獻無上尊 掌中悉雨無不備] <화엄15:22-23>(十方에 있는 모든 妙物이 無上尊께 응당 奉獻하거늘 손에서 다 비내리되 갖추지 않음이 없이 하여)

ㄴ. 菩薩ㅁ 右手ㅁㅁ 淨光ㅁ 放ノㅁ 光ㅁ 中ㅁㅁㅁ 香水ㅁ 空ㅁ 從ㅁ 雨ㅁㅁ 普ㅁ 十方ㅁ 諸 佛土ㅁㅁ 灑ㅁㅁㅁ 一切 世ㅁ 照ㅁㅁㅁ 燈ㅁ 供養ㅁㅁㅁㅁ [菩薩右手放淨光 光中香水從空雨 普灑十方諸佛土 供養一切照世燈] <화엄16:04-05> (菩薩은 오른손으로 깨끗한 빛을 내되 빛 가운데에서는 香水를 공중으로부터 비 내리며 널리 十方의 모든 佛土에 뿌려서 一切 世間을 비추시는 燈을 供養하며)

- (23)과 (24)은 각각 연결어미로 사용된 ‘-으ㅁ’, ‘-으ㅁ’의 용례임. (23ㄱ)과 (24ㄱ)의 경우 후행절이 선행절 동사의 보절로 해석되는 경우이며, (23ㄴ)과 (24ㄴ)은 그렇지 않고 다소 느슨하게 연결된 구성이라 할 수 있음.³¹⁾
- 《화엄》에 등장하는 구결자 연쇄 패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데, 음영 처리한 부분은 《화엄》에만 나타나는 구결자 연쇄임(*한 어절 내의 등장 패턴임).

亦無限] <화엄15:03-4> (불가사의의 찰을 엄히 깨끗이 하며 일체 모든 여래를 공양하며 대광명을 내놓을 때 가에 있을 바 없이 하며 중생을 도탈할 때 또한 끝 없이 하며)

29) 물론 이외에도 ‘-은디’나 ‘-은대’와의 관련성도 제시된 바 있는데, 이외에 ‘-ㅁㅁ’, ‘-焉多衣’도 함께 고려할 수 있음.

30) 이때 [인용]의 의미는 앞서 살핀 ‘-ㅁ’이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음(이승재 1995, 장윤희 2010). 해당 예문은 앞선 2.1절의 (2)에서 확인 가능.

31) 관련하여, 이현희(1994: 352)에서는 ‘-오디’에 대해 설명하며 ‘닐오디 S (ㅎ-)’ 구성에 대해 본래 ‘S (ㅎ야) 니르-’에서 ‘니르-’가 보절에 해당하는 S 앞으로 전치되고 ‘-오디’와 통합하여 형성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음. (23), (24)의 예문은 장윤희(2010)에서 이와 관련해 제시한 예문을 끌어온 것임.

[표 11] 《화엄》에 등장하는 ‘-ㅁㅍㅅㅅ’의 패턴

연번	구결자 연쇄	앞 요소	뒤 요소	빈도
1	乙ノㅁㅍㅅㅅ	乙ノ	어절 끝	1
2	ㅅㅅㅅㅅㅁㅍㅅㅅ	ㅅㅅㅅㅅ	어절 끝	1
3	ㅅㅅㅅㅅㅁㅍㅅㅅㅅㅅ	ㅅㅅㅅㅅㅁㅍㅅㅅ	어절 끝	1
4	ㅅㅅㅅㅅㅅㅅㅅㅅ	ㅅㅅㅅㅅ	어절 끝	5
5	ㅅㅅㅅㅅㅅㅅ	ㅅㅅ	어절 끝	21
6	ㅅㅅㅅㅅㅅㅅ	ㅅㅅ	어절 끝	6
7	ㅅㅅㅅㅅㅅㅅㅅㅅ	ㅅㅅㅅㅅ	어절 끝	1
8	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	ㅅㅅㅅㅅㅅㅅ	어절 끝	1
9	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	ㅅㅅㅅㅅㅅ	어절 끝	2
10	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	ㅅㅅㅅㅅㅅ	어절 끝	1

[표 12] 《화엄》에 등장하는 ‘-ㅁㅍㅅㅅㅅ’의 패턴

연번	구결자 연쇄	앞 요소	뒤 요소	빈도
1	ㅅㅅㅅㅅㅅㅅㅅㅅ	ㅅㅅㅅㅅ	어절 끝	2
2	ㅅㅅㅅㅅㅅㅅㅅ	ㅅㅅ	어절 끝	4
3	ㅅㅅㅅㅅㅅㅅㅅ	ㅅㅅ	어절 끝	1

[7] -ㅁㅍㅅㅅ

- ‘-ㅁㅍㅅㅅ’은 《화엄》에서 총 12회 사용되었음. 이는 《화엄》의 전체 연결어미에 대해 1.58%에 해당함. 더불어 ‘-ㅁㅍㅅㅅ’은 석독구결 자료에서 19회 사용되었는데 이중 63.16%가 《화엄》에서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ㅁㅍㅅㅅ’은 기원적으로 동명사어미 ‘-ㅁㅍ’에 목적격 조사 ‘-ㅅㅅ’이 결합한 것으로 그 의미 기능은 ‘-는 것을’ 정도에 해당하는 것임. 이용(2003: 66)에서 밝혔듯, 석독구결에는 동명사 구성과 연결어미로 해석되는 것이 공존하는 것으로 보임.
- 황선엽(2002: 179)에서 기본적인 의미는 [전제] 정도에 해당하고 문맥에 따라 [근거], [대조], [역접]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하였음. ‘-ㅁㅍㅅㅅ’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어말어미와 결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화엄》에도 ‘-ㅁㅍㅅㅅ’, ‘-ㅁㅍㅅㅅㅅ’, ‘-ㅁㅍㅅㅅㅅㅅ’, ‘-ㅁㅍㅅㅅㅅㅅㅅ’, ‘-ㅁㅍㅅㅅㅅㅅㅅㅅ’과 결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ㅁㅍㅅㅅ’ 뒤에 이어붙는 요소는 발견되지 않음.
- (25)를 통해 연결어미로 사용된 ‘-ㅁㅍㅅㅅ’를 살펴보도록 하겠음.

- (25) ㄱ. 衆生ヲ 形相 1 各ホ 不冬 同リカ 行業： 音聲：ノ冬 亦カ 量リ 無1ㅁㅍㅅㅅ {是}ㄴ
如支ッ1 一切乙 皆セ 能支 現ㄷㅅㅅㅅㅅㅅㅅ 海印三昧セ 威神セ 力リナ1 [衆生
形相各不同 行業音聲亦無量 如是皆能現 海印三昧威神力] <화엄15:01-02>
(衆生の 形相은 각각 같지 않으며 行業이니 音聲이니 하는 것도 한량 없거늘 이
와 같은 一切를 다 能히 나타내면 海印三昧의 威神의 힘이다.)
- ㄴ. 種種セㄴ 量リ 無ㄴ호 皆セ 殊好ッ1ㅁㅍㅅㅅ 此乙 以ㄴ호 諸1 佛土乙 莊嚴ッナカ
[種種無量皆殊好 以此莊嚴諸佛土] <화엄16:23> (갖가지가 한량 없어서 다 殊
好하거늘 이로써 모든 佛土를 莊嚴하며)
- ㄷ. 又カ 光明乙 放ッナㅅㅅㅅㅅ 華莊嚴：ノㅅㅅ 種種セ 妙華乙 集ッㄴ호 帳 {爲}ㄴ
ㅅㅅㅅㅅ1ㅁㅍㅅㅅ 普ㄴ 十方セ 諸 國土ㄴ호 散ッㄴ호 一切 大德尊乙 供養ッナカ [又放
光明華莊嚴 種種妙華集爲帳 普散十方諸國土 供養一切大德尊] <화엄

16:08-09> (또 光明을 낸다, 꽃 莊嚴이니 하는 것이. 갖가지 묘한 꽃을 모아서 휘장 삼거늘 널리 十方의 모든 國土에 흠어져서 一切 大德尊을 供養하며)

- ‘- 1 乙’이 어간에 직접 결합하는 예는 석독구결에서 잘 발견되지 않는데, 《화엄》에만 3건이 등장함. (25ㄱ)은 ‘無’에 결합한 것이고 (25ㄴ)은 ‘殊好’에 결합한 용례임. 한편, 선어말어미 ‘- ㅅ-’가 결합된 용례는 《화엄》에는 등장하지 않으며, ‘- ㅅ-’가 결합한 용례만 (25ㄷ)과 같이 발견할 수 있음(이외 《구인》에 1건 등장).
- 동명사 구성에 해당하는 용례는 총 24건 발견되었는데 (26)을 통해 살펴볼 수 있음.

(26) ㄱ. 路ニ 塵 多1乙 見3 1 1 + 1 當 願 衆生 塵空乙 遠離3 3 ハ 清淨法乙 獲ヒョ
[見路多塵 當願衆生 遠離塵空 獲清淨法] <화엄05:02> (길이 먼지가 **많은 것을** 보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하기를 衆生은 먼지를 멀리하여서 淸淨한 法을 얻으소서 (할 것이며))

ㄴ. {於}佛乙 自ノ1 歸3 1 乙 當 願 衆生 佛種乙 紹隆3 3 ハ 無上意乙 發3 乙
[自歸於佛 當願衆生 紹隆佛種 發無上意] <화엄03:14> (부처님께 귀의함으로부터 말미암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하기를 衆生은 佛種을 이어서 無上의 뜻을 내소서 (할 것이며))³²⁾

- 24건 중 11회는 (26ㄱ)과 같이 연속되는 ‘見3 1 1 + 1’ 구성의 목적어로 등장하였음. 해당 용례 및 유사 용례에 대해서는 이미 황선엽(2002), 이용(2003) 등에서 검토한 바 있음. 15세기 한국어에서도 ‘-거늘’이 감각동사의 목적어 위치에 사용되는 경우가 잦았는데 이와 관련된 구성으로 생각됨(그뻘 大會 부테 壽命劫數 長遠이 이 곧흔 들 니르거시늘 듣좁고 <월석 17:23ㄴ>).
- 이외에 (26ㄴ)과 같이 “X乙 自ノ1 歸3 1 乙” 구성의 일부로 등장한 것도 발견됨.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화엄》의 조사 부분에서 다루게 될 것으로 보임.
- 《화엄》에 등장하는 구결자 연쇄 패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데, 음영 처리한 부분은 《화엄》에만 나타나는 구결자 연쇄임.

[표 13] 《화엄》에 등장하는 ‘- 1 乙’의 패턴

연번	구결자 연쇄	앞 요소	뒤 요소	빈도
1	1 乙	어절 시작	어절 끝	1
2	ト 1 乙	ト	어절 끝	1
3	支 ッ 口 1 乙	支 ッ 口	어절 끝	1
4	矢 1 乙	矢	어절 끝	2
5	シ ㄱ ㅅ 1 乙	シ ㄱ ㅅ	어절 끝	2
6	リ ㄴ 1 乙	リ ㄴ	어절 끝	1
7	リ ㄴ ト 1 乙	リ ㄴ ト	어절 끝	1
8	ノ ㅅ 1 乙	ノ ㅅ	어절 끝	1
9	ッ 1 乙	ッ	어절 끝	2

32) 김호성선생님 언급: 자귀어승, 자귀어불에서 '自'는 '-로부터'가 아니라 '스스로'의 뜻입니다. 구결로는 그렇게 '-로부터'로 해석되었나요? '-말미암는 경우에는'는 이상하고, '스스로 귀의하고 나서 는'이라면 뜻이 통하겠습니다.

=====04/26=====

[8] -ㅅ, -ㅅㅅ

- ‘-ㅅ’, ‘-ㅅㅅ’는 《화엄》에서 각각 8회, 2회 사용되었음. 이는 《화엄》의 전체 연결어미에 대해 1.05%, 0.26%에 해당함. 더불어 ‘-ㅅ’, ‘-ㅅㅅ’는 석독구결 자료에서 90, 10회 사용되었는데 이중 8.89%, 20%가 《화엄》에서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음.³³⁾
- 15세기 한국어에는 [의도], [소망], [목적] 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고저’와 ‘-과더’가 있는데, 소망주와 행위주가 일치하면 ‘-고저’, 일치하지 않으면 ‘-과더’가 사용됨(이현희 1994: 427-428). 황선엽(2002: 155)에 의하면 ‘-ㅅ’에서는 그러한 구분이 관찰되지 않는다고 함. 선어말어미의 경우 ‘-ㅅ’과 동일하게 ‘-ㅅㅅ’ 정도와만 결합하는 것으로 보이며, 《화엄》에서도 그러한 경우가 관찰 됨.

- (27) ㄱ. 若^セ 一切 佛^ニ 供養^ソ 白^ク {欲^ス} 入^ル 三昧^ニ 起^ル 神變^ニ
 起^ル 神變^ニ [若欲供養一切佛 入于三昧起神變] <화엄15:16> (만약 一切의 부처님을 供養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三昧에 들어가서 神變을 일으키되)
- ㄴ. 汝^ニ 今^ニ 饒益^ス 所 多^ク 安隱^ニ 所 多^ク 入^ル 世間^ニ 哀愍^ス
 天人^ニ 利樂^ス {爲^ス} 欲^ス 是 如^シ 義^ニ 問^フ 汝^ニ 今^ニ 爲^ス 欲^ス 多^ク 所 饒益^ス 多^ク 所 安隱^ニ 哀愍^ス 世間^ニ 利樂^ス 天人^ニ 問^フ 是 如^シ 義^ニ <화엄02:11-12> (당신[지수보살]은 지금 饒益하는 것이 많으며 安隱한 것이 많은 까닭으로 世間을 哀愍하고 天人을 利樂하고자 이와 같은 것을 물으시군요.)

- ‘-ㅅ’는 (27ㄱ)과 같이 뒤에 ‘-ㅅ’가 결합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27ㄴ)과 같이 ‘-ㅅ’ 뒤에 아무것도 결합하지 않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음. (27ㄱ)에서는 앞서 언급한 선어말어미 ‘-ㅅㅅ’의 결합도 확인 가능함.
- 더하여, (27ㄱ)은 소망주와 행위주가 일치할 보이는 예문으로 보임. 소망주와 행위주의 불일치를 선명하게 보이는 예문을 확인하기 어려웠음. 다만, (27ㄴ)은 맥락상 소망주는 지수보살인데, 행위주는 문수보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음.³⁴⁾
- 한편, (28)에서는 ‘-ㅅ’가 ‘欲’ 외에 ‘爲’ 뒤에도 현토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28) 但^ハ 永^ニ 衆生^ヲ 苦^ニ 滅^ス 世間^ニ 利益^ス {爲^ス} 而^テ 發心^ス
 [但爲永滅衆生苦 利益世間而發心] <화엄09:13> (오직 영원히 衆生の 苦를 滅하며 世間을 利益하게 하고자 發心하는 것이며)

- ‘-ㅅㅅ’의 경우 많이 발견되지는 않으나, [의도], [목적], [소망] 등의 의미를 지니는 연결어미로 알려져 있음.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음.

33) ‘-ㅅㅅ’의 경우, 장윤희(2002: 117-121)에서 감탄형 종결어미로 다루었으나, 이용(2007: 190-192)에서는 석독구결의 ‘-ㅅㅅ’가 욕망이나 청원을 뜻하므로 감탄을 뜻하는 위의 것들과 함께 볼 수 없다고 보았음. 여기에서는 Sktot를 따라 연결어미 부분에서 다루도록 함.

34) 天人을 이익되게 하는 사람은 설법을 요청 받은 문수보살이며, 이를 요청한 것은 지수보살에 해당함.

- (29) ㄱ. 若^セ 有^ナ 菩^サ薩^リ 初^{ハツ} 發^{ハツ}心^{シン} ヲ 誓^{チカ}リ^カ 求^{モト} ヲ^ホ 當^{トコ}ハ 佛^{ブツ}菩^サ提^{テイ} ヲ 證^シ ヲ^セ イ ヲ
ナ^ヲ ヲ^シ [若有菩薩初發心 誓求當證佛菩提] <화엄09:04> (만약 있다,菩薩이 비로
소 發心하여 맹세하며 구하여서 반드시 부처님의菩提를 證得하고자 하는 것이.)
ㄴ. {於}法^{ハフ} 及^カ 僧^{ソウ} 亦^{モト} 如^ニ 是^ニ ヲ 如^ニ 至^ニ 誠^ニ 供^{キョウ} 養^{ヨウ} ヲ^シ 而^ニ 發^{ハツ}心^{シン} ヲ^シ ナ 리^カ [於法及僧亦如是 至誠供養而發心] <화엄09:17> (法이니
및 僧이니 하는 것에도 이와 같이 하여 至誠으로 供養하고자 發心하는 것이며).

- (29)는 《화엄》에서 확인되는 ‘-セ-’의 용례 전부에 해당함. ‘欲’이나 ‘爲’에 현토되지는 않았으나 다른 구결 문헌에서 ‘-セ-’도 ‘欲’에 현토된 경우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이중, (29ㄴ)의 경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X而發心”의 구성의 일부에 해당함. 이러한 구성에 대해서 (28)와 같이 ‘-ス’로 현토가 되어 있으나 이 부분에만 ‘-セ-’로 되어 있음.³⁵⁾

[9] -ㄸ

- ‘-ㄸ’는 《화엄》에서 총 2회 사용되었음. 이는 《화엄》의 전체 연결어미에 대해 0.26%에 해당함. 더불어 ‘-ㄸ’는 석독구결 자료에서 35회 사용되었는데 이중 5.71%가 《화엄》에서 사용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음.
- ‘-ㄸ’는 흔히 [대조]나 [양보]로 기술되는 중세 한국어의 ‘-나’에 대응되는 연결어미임. 다만, 중세 한국어에서는 ‘-나’가 [대조]나 [양보]의 의미를 보이고 ‘-거나’가 [이접]의 의미를 보이는 데 반해, 석독구결에서는 ‘-ㄸ’도 [양보]로 사용될 수 있으며 ‘-ㄸ’만으로도 [이접]을 표현할 수 있음. 더불어 ‘-ㄸ’가 전형적인 [대조]로 사용된 예도 보이지 않고 대체로 [조건적 양보]로 사용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음(이흥구 2022).³⁶⁾
- 선어말어미로는 ‘-ㄸ-’와 ‘-ㄴ-’가 결합할 수 있으며 《화엄》에는 ‘-ㄴ-’가 결합한 예가 보임.
- 석독구결 전체에 ‘-ㄸ’의 사용 빈도가 적은 것도 사실이나, 《화엄》의 경우 한문 원문 자체에 역접으로 해석되는 환경이 매우 적은 것으로 보임. 역경원의 해석에서도 역접의 의미가 거의 발견되지 않으며, ‘然, 而’ 등의 한문 연사도 대체로 ‘그러하다’, ‘而…’ 등으로 해석되거나 현토될 뿐임. 앞서 언급했듯 양보의 ‘雖’도 전혀 나타나지 않음. 이러한 점에서 ‘-ㄸ’의 경우 출현 빈도가 높지 않다는 점을 설명해 봄 직함.
- 《화엄》에 등장하는 ‘-ㄸ’의 용례 2건은 다음과 같은데, 모두 “假^カ X ヲ 盡^ス ヲ 부정”의 형식을 보임. Skt0t에는 (30ㄱ)은 연결어미로 (30ㄴ)은 동명사어미에 가깝게 해석되어 있음.

- (30) ㄱ. 十方^{ジュウハフ}セ 一切^{イツケツ} 諸^{シュ} 如^ニ來^ニ 悉^ス 共^ニ 假^カ 揚^{ヨウ} ヲ 盡^ス ヲ 不^レ(ノ)能^レ 失^ス ヲ^ロ 乙

35) 이 예문을 통해 ‘-ス’와 큰 차이 없이 사용된다고도 할 수 있겠음.

36) 양보(concessive)는 어떤 지식이나 사태가 다른 지식이나 사태에 관여한다는 기대를 부정(denial of expectation)하여 두 지식이나 사태가 비관여적임(irrelevance)을 표현하는 것임. 이때, 양보에는 사실적 양보와 조건적 양보가 있음. 기본적으로 사실적 양보는 사태가 사실인 것이며 조건적 양보는 사실인지에 대해 중립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임. 사실적 양보는 현대 한국어에서 흔히 ‘-지만, -나’에 의해 실현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어제 비가 {왔지만/왔는데도/왔음에도} 소풍을 갔다.”와 같음. 조건적 양보는 현대 한국어에서 흔히 ‘-어도’에 의해 실현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내일 비가 {와도/오더라도/올지라도} 소풍을 갈 것이다.”와 같음.

ㄷ ㄷ ㄷ ㄷ [十方一切諸如來 悉共稱揚不能盡] <화엄09:07> (十方의 一切 모든 如來가 다 함께 稱揚하시더라도 다할 수 없습니다)

ㄴ. 佛功德乙 讚ㄴ 白 ㄷ ㄷ ㄷ ㄷ 當 願 衆生 衆 ㄷ 德乙 悉 具 ㄷ ㄷ ㄷ ㄷ 稱歎ㄴ 盡 尸 無 ㄷ 立 [讚佛功德 當願衆生 衆德悉具 稱歎無盡] <화엄08:11> (부처님의 功德을 기리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하기를 衆生은 많은 德을 다 갖추어서 稱歎 할지라도 다함 없으소서 (할 것이며))

-> 현대어역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이 문제 소지가 있음.

- (30)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건적 양보’로 생각할 수 있는 예문들임. (30ㄱ)의 경우 현수보살이 부처의 공덕이 매우 커서 헤아릴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말하는 부분임. 이때, 실제로 옆에서 모든 여래가 함께 칭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적 양보이겠으나 그러한 상황을 가정해 말하고 있으므로 조건적 양보로 보는 편이 나을 듯함.³⁷⁾ 그렇다면 ‘-어도’ 정도로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움. (30ㄴ)의 경우도 동일하게 ‘-ㄷ ㄷ ㄷ ㄷ 1’에 의해 가정임을 확인할 수 있어 동일한 해석이 가능함.³⁸⁾

2.4. Ec로 처리되지 않은 어미구조체

[1] -ㄷ ㄷ, -ㅂ ㄷ

- 《화엄》에 등장하는 ‘-ㄷ ㄷ, -ㅂ ㄷ’ 등의 형태에는 ‘ㄷ’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때의 ‘ㄷ’의 지위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음. Sktot에서는 ‘-ㄷ ㄷ, -ㅂ ㄷ’의 ‘ㄷ’는 판단 유보[R]로 처리해 왔으며, -ㅂ ㄷ는 연결어미로 처리했음(언급했듯 ‘-ㅂ ㄷ’는 《화엄》에 미등장).
- ‘ㄷ’는 주로 조사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으로 보임. 김지오(2012: 218)에서는 ‘명사 뒤, 동명사 뒤, 의존명사 뒤, 조사 뒤’에만 나타난다는 점을 들어 지위를 조사로 판단한 바 있으며 보조사에 대한 역사적 연구인 박진호(2015)에서도 조사로 본 바 있음. 남풍현(2018)에서는 서술격 조사, 전기량(2018)에서는 서술 보조사로 파악하였음.
=> 다만, 남풍현 선생님의 견해는 기원적 구성에 대한 것으로 다른 견해와 층위가 다를 수 있음(‘-ㄷ ㄷ’ 전체를 공식적으로 조사로 볼 수 있다는 견해 등과는 다른 것).
- ‘ㄷ’가 대체로 명사 뒤에 출현하는 것은 맞으나, 종결이나 연결의 기능을 겸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됨. 관련하여, 김지오(2019: 74)에서는 “연결과 종결인지를 적극적으로 표시하지는 않고 단지 어말 위치라는 정보만 표시하는 형태의 존재도 절 연결에서 특수한 형태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음.³⁹⁾

37) 더불어, ‘-ㄷ ㄷ’를 양태로서 [당위]나 [능력] 혹은 [확실성]의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면 서실보다는 서상의 환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해당 명제 자체를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움.

38) 사실 한문 원문을 보면 ‘칭송하는 것’이 주어이고 ‘끊임이 없다’가 술어에 해당하는 문장으로 생각됨. 그러나, 구결문에서는 마치 양보문처럼 ‘만약 칭송하고 찬탄하더라도 다할 수 없다’와 같이 해석하고 있는 듯함.

39) 본 발표문은 어미에 집중해야 하므로 조사로서의 ‘ㄷ/ㅂ’에 대해서는 더이상 다루지 않도록 함.

- 한편 《화엄》에서 ‘- 1 : ’가 나타내는 기능은 세 가지 정도로 대별할 수 있을 듯함.

- (31) ㄱ. 又 光明 放 幢莊嚴 其 幢 1 絢煥 ヲ 호 衆 1 色 乙 備 1 나 1 : [1 Et, - R] (又 放光明幢莊嚴 其幢絢煥備衆色) <화엄 16:22> [또 光明을 낸다, 幢 莊嚴이니 하는 것이. 그 幢은 빛나서 많은 色을 갖추었구나!]
- ㄴ. 若 七 世界 1 始 乙 成立 ヲ 1 나 1 : 衆生 1 資身 七 具 乙 {有} 나 尸 未 1 리 노 1 나 乙 見 1 나 1 (若見世界始成立 衆生未有資身具) <화엄19:12> (만약 世界가 비로소 成立되니 衆生이 몸의 바탕을 가지지 않은 것을 보고서는)
- ㄷ. 若 七 有 1 나 1 [衆生 1 壽 乙 量 無 1 : (연결어미 상당 구성으로 이해 가능) 煩惱 微細 ヲ 호 樂 具 足 ヲ 호 나 1 나 1] : (若 有 衆生 [壽無量/煩惱微細樂具足]) <화엄18:20> [만약 있다, [衆生이] [목숨 한량 없는데 // 煩惱는 微細하고 즐거움은 갖추어지고 하는 것]이.] 내핵관계절

- (31ㄱ)은 (감탄의 語氣를 담은) 중결의 기능에 가까우며, (31ㄴ)은 연결어미에 해당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 (31ㄷ)은 도치 구문의 주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⁴⁰⁾ 한편, ‘- 1 : ’는 명명구문에도 흔히 나타나는데, 《화엄》에는 명명구문 자체가 거의 등장하지 않는 까닭에 관련된 예문은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 ‘- 1 나 1 : ’는 《화엄》에 총 세 번 나타나는데 다음과 같음.

- (32) ㄱ. 一 1 微塵 七 中 1 나 三昧 1 나 入 1 나 尸 一切 微塵 七 定 乙 成就 1 나 1 나 1 : 而 1 彼 微塵 1 亦 1 나 增 1 나 1 不 1 나 1 乙 {於} 一 1 나 1 나 普 1 리 難思 七 刹 乙 現 1 나 1 나 1 [一微塵中入三昧 成就一切微塵定 而彼微塵亦不增 於一普現難思刹] <화엄 15:08-09> (한 微塵 中에서 三昧에 들어가되 一切 微塵의 三昧를 成就하지만 저 微塵은 또한 더함 없거늘 하나에 널리 생각하기 어려운 刹土를 나타내며)
- ㄴ. 若 七 一切 佛 乙 供養 1 나 1 나 {欲} 나 1 나 1 나 1 {于} 三昧 1 나 1 나 入 1 나 1 나 神變 乙 起 1 나 尸 能 乙 一 1 나 手 乙 以 1 나 三 千 1 나 1 나 {徧} 나 1 나 1 나 普 1 리 一切 諸 1 如來 乙 供 1 나 1 나 1 : [若欲供養一切佛 入于三昧起神變 能以一手徧三千 普供一切諸如來] <화엄15:15-17> (만약 一切의 부처님을 供養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三昧에 들어가서 神變을 일으키되 能히 한 손으로써 三千의 손마다 있어 널리 一切 모 든 如來를 供養하는(/徧)구나!)⁴¹⁾
- ㄷ. 菩薩 1 리 三昧 七 中 1 나 住 1 나 1 나 1 種種 七 自在 乙 衆生 乙 攝 1 나 1 나 1 : [菩薩住 在三昧中 種種自在攝衆生] <화엄17:04> (菩薩이 三昧에서 머무르니 갖가지

40) 이때, ‘無 1’에 조사로서의 ‘:’가 결합한 것으로 보이는데, 뒤에 또다시 ‘- 1 : ’가 출현한다는 문제가 있음. 한문에서 ‘有’의 논항을 [[衆生壽無量] [煩惱微細樂具足]] 전체로 가정한다면 앞의 ‘:’와 후행하는 ‘- 1 나 1’에 결합한 ‘:’는 대등한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음. 물론 단순히 나열의 ‘- 1 :’일 가능성도 있으나, 이후 등장하는 다음 예문을 보면 전자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음.

或 1 나 有 1 나 1 [貪欲 : 瞋恚 : 癡 : 나 尸 煩惱 七 猛火 1 리 常 1 리 熾然 1 나 1 나 1] : [或有貪欲瞋恚癡 煩惱猛火常熾然] <화엄18:22>

41) 이때의 ‘마다’가 다소 어색한데, ‘각각의 손마다’의 의미가 아니라 한 손이 삼천의 세계에 두루 있다는 뜻으로 보임.

自在로 衆生을 攝受하는(/젼)구나!)

- (32ㄱ)은 후행하는 ‘而 1’을 통해 연결어미임을 추론할 수 있음. (32ㄴ), (32ㄷ)은 번역을 참조하면 감탄의 어기를 담은 종결적인 요소로 파악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대의 ‘-구나’를 사용해 번역하면 다소 어색한 점은 있음.
- 이 부분은 현수보살(賢首菩薩)이 삼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부분임. 현수보살에게 그러한 설명은 이미 내면화된 지식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 그런데, 현대 한국어의 ‘-구나’는 대체로 어떤 사실을 새로 알게 되었을 때 사용하는 종결어미(의외성 표지)라서 어색하게 느껴지는 듯함. 더불어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닌 조건문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기존에 알던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하기도 어려움. 이에 무표적인 종결로 현대어역하는 것이 좀더 자연스러울 듯하며, 물론 연결어미적으로도 해석해볼 수 있을 듯함.⁴²⁾
- 이외에 관련된 어형인 ‘-ㄴ ㅈ/ㅍ ㅈ’는 종결어미 부분에서 다루겠음.

$$[2] \quad -1 \mid +, -1 \mid +1$$

- ‘-11+’는 동명사어미 ‘-1’과 의존명사 ‘1’, 처격조사 ‘-3+’가 결합해 만들어진 것으로 후기중세 한국어의 ‘-ㄴ대’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됨. 이어서 ‘-11+1’은 동일 구성에 보조사 ‘-1’이 추가로 결합한 것으로 후기중세 한국어의 ‘-ㄴ덴’과 관련된 것으로 보임. 이들은 모두 남풍현(1996년, 2000)에서 [조격]의 의미를 표시한다고 본 것들임.⁴³⁾

의존명사 “ㄷ(ㄷ) + 아귀(3+)” // “다(1) + 귀(+)” 두 가지 견해가 있음.

‘다’는 ~할 때, ~한 경우(시간성 의존명사)로 해석되나, ‘드’는 그것보다 더 추상적임.

이런경우는 '다'를 쓰는 것이 더 어울림. => 나다마다 (중세 한국어) 홀자기(음독구결)

- ‘- 1 | +’는 축자적으로 ‘-한 데에/때에’ 정도의 의미로 해석됨. 석독구결 전체에 많은 용례가 보이지는 않는데, 《화엄》에는 (33ㄱ)과 같이 1건 발견됨.⁴⁴⁾
- ‘- 1 | + 1’는 축자적으로 ‘-한 데/때에는’ 정도의 의미를 가지며, 문맥상 [조건] 정도로 해석하면 자연스러움. 《화엄》에만 67건이 발견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예가 <2:18>부터 <8:15>까지 ‘X 1 | + 1 當ハ 願ハルニ 1 ~’ 구성의 일부로 반복적으로 출현함. (33ㄴ)은 해당 부분의 맨 처음 부분임.⁴⁵⁾

(33) ㄱ. 佛子 云何 用心 能 支 一切 勝妙功德 乙 獲尸丁ノ令口ッ牙尸
 ㄴ 1 [佛子 云何用心 能獲一切 勝妙功德] <화엄02:17-18> (佛子여 어떠한

42) 물론 이 부분이 ‘偈로서 답’하는 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감탄의 어세를 어느정도 이해해볼 수 있음. 더불어 현대 한국어의 ‘-구나’도 “철수는 듣던 대로 피아노를 잘 치는구나!”와 같이 기존에 알고 있던 사실을 재인식할 때도 사용할 수는 있기는 함. 더불어, 본 발표문에서 ‘-ㅂㅅ’ 자체에 감탄의 의미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님. 현대의 ‘-구나’는 감탄은 물론 [의외성] 표지라고도 할 수 있는 표현이나, 여기의 ‘-X:’는 감탄의 어세는 있어도 [의외성]의 의미는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임.

43) 장윤희(2010: 78 13번 각주)에서는 “-1 +”는 기본적으로 후행문이 실현되는 시간적 상황을 제시하는 처격어로서 그 가운데 일부가 [조건]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언급하였음.

44) ‘-ㅏㅓㅕ-’에 대해 장윤희(2010: 79)에서는 선행문의 실현성에 대한 화자의 확신이 표시된 경우와 그러한 확신이 유보된 경우에 모두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들을 다시 폭넓은 [전제]를 제시하는 요소라고 한 바 있음.

45) 한편 김지오(2019: 79)에서는 ‘- 1 | +’는 [시간한정], ‘- 1 | + 1’은 [가정]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한 바 있음.

것을 마음 쓰는 데에서 能히 一切 勝妙功德을 얻는다고 하는가 하면,)

- ㄴ. 佛子 菩薩 在家 ヽ 1 1 + 1 當ハ 願ロ 尸入 1 衆生 1 家性ヲ 空ノ 1 入乙 知
 3 亦 其 逼迫乙 免支モ 立ッヌ 牙カ [佛子 菩薩在家 當願衆生 知家性空 免其逼
 迫] <화엄02:18-19> (佛子여 菩薩은 在家할 경우에 반드시 원하기를 衆生은
 家性の 空함을 알아서 그 逼迫을 免하소서 할 것이며)

[3] - 1 入 ㄴ, - 尸 入 ㄴ

- 흔히 도구격 조사(조격조사) ‘-로’는 [원인]이나 [이유]로 해석될 수 있음. 석독구결에서 ‘-ㄴ’은 동명사어미와 의존명사에 결합해 ‘- 1 入 ㄴ/尸 入 ㄴ’ 구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⁴⁶⁾ ‘- 1’ 앞에 나타난 절은 뒤에 나타나는 절의 [원인]이나 [이유] 정도로 해석됨 (남풍현 1996: 22). 이에 절 연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임. 이러한 구성의 문법화 정도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 1 入 ㄴ’, ‘- 尸 入 ㄴ’는 석독구결 전체에 각각 202회, 47회나 출현하는데, <화엄>에는 각각 3회밖에 나타나지 않음.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음.

(34) ㄱ. 菩薩 1 {於}中 3 + 自在乙 得 尸 1 入 ㄴ 老病死セ 衆 1 患乙 受ト 3 1 入乙 示リ
 ナカ [菩薩於中得自在 示受老病死衆患] <화엄18:21>菩薩은 이 중에서 自在
 를 얻은 까닭으로 老病死의 많은 고통을 받는 것을 보이며

ㄴ. 菩提心セ 功德乙 顯示 ヽ {欲} 尸 ヽ 尸 入 ㄴ 故支 偈乙 以 3 賢首菩薩 尸 + 問 3
 曰ニ 尸 [欲顯示菩提心功德故 以偈問賢首菩薩曰] <화엄08:21-22> (菩提心の
 功德을 顯示하고 하는 까닭으로 偈로써 賢首菩薩께 물으시기를)

ㄷ. 汝 1 今 ヽ 1 饒益ノ 尸 所 多カ 安隱ノ 尸 所 3 多 尸 1 入 乙 ㄴ 世間乙 哀愍 ヽ 3
 天人乙 利樂 ヽ 3 ヽ {爲欲} 尸 是 如支 ヽ 3 義乙 問 3 ナ 1 丁 [汝今爲欲 多所饒
 益 多所安隱(안온 오기로 보임) 哀愍世間 利樂天人 問如是義] <화엄
 02:11-12> (당신은 지금 이익되는 바가 많으며 편안하게 숨긴 것이 많은 까
 님에 세간을 애처로워 하며 천인을 이익되고 즐겁게 하고 하고자 이와 같은 의
 를 물었군요!)

- 이러한 편중에 대해서는 ‘- 1 入 ㄴ’, ‘- 尸 入 ㄴ’는 ‘故’에 흔히 현토되는데, <화엄>에는 ‘故’ 자체가 5건 정도밖에 출현하지 않는다는 점과 관련지어 이해할 만한 지점이 됨.
- 이외에도 (34ㄷ)과 같이 “多 尸 1 入 乙 ㄴ” <화엄 2:11-12>와 같이 중간에 ‘乙’이 더 들어간 구성도 보임(동일 구성이 <자비>에서도 발견됨).

※ ㄷ 덧붙임 현상 (이현희 2010, 2019)

- 중세나 근대 한국어에서 1음절짜리 대명사 ‘나, 너, 저, 누, 이, 그, 더’ 등에 조사가 통합할 때 ‘날대로, 널라와, 절로, 놀만, 일록, 글란, 덜와’ 등에서처럼 ‘ㄷ’이 더 나타나기도 함.
- 이러한 ‘ㄷ’을 독립된 존재로 분석해낸다 하더라도 그 통사 범주를 무엇이라고 해야

46) {是}リ 故 ㄴ 依行乙 次第乙 說 3 ナ 1 + 信樂リ 3 最勝 ヽ 3 亦 甚リ 難リ 3 得 3 ナ 1 矢 [是故依行
 說次第 信樂最勝甚難得] <화엄10:08>

할지도 불투명함. 통합의 과정에서는 아무튼 뭔지 모를 ‘ㄹ’이 덧붙는다고 표현해 볼 수 있지만, 분석의 과정에서는 ‘ㄹ’을 어휘 형태소의 일부라고 해야 할지, 문법 형태소의 일부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제3의 무엇이라고 해야 할지 난감한 것.

- 이현희 선생님의 경우는 ‘나’에 대격조사 ‘-ㄹ’이 결합한 ‘날’이 어휘화하여 어간으로 굳어지고 여기에 다시 대격조사가 결합한 ‘날을’과 같은 형식이 출현한 것으로 본 바 있음.

- 1) 후행 문법 형태소의 일부라고 한다면 ‘ㄹ’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어려움. ‘-ㄹ을’의 경우 증가형의 과잉분절이라 할 수도 있겠으나, ‘ㄹ와, ㄹ은, ㄹ의서, ㄹ으란’ 등은 처리가 곤란함. 이들 조사가 모두 ‘ㄹ’을 두음으로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어려움.
- 2) ‘나’의 대격형 ‘날, 나를, 나를’ 가운데 가장 고형은 ‘날’이라 할 수 있음. 이때, ‘를’은 증가형으로서 본래의 대격조사 ‘ㄹ’에 ‘ㄹ’이 덧붙여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음. 그렇다면 ‘날’에 ‘을’이 결합한 ‘날을’의 경우 ‘날’ 자체는 이미 대격형이라고 볼 여지가 생김.
- 3) 성조의 경우 ‘날(R)’, ‘날을(RH)’, ‘나를(RH)’의 제1음절은 모두 상성에 해당함. 이는 ‘날을’의 ‘날’이 ‘나’의 대격형일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임.

3. 《화엄》의 종결어미

3.1. 종결어미 분포의 통계적 개괄과 특수성 검토

- Skt2022 기준, 《화엄》에 등장한 종결어미 타입은 6종, 토큰은 206회에 해당.
 - * Skt2022에서는 의문형 종결의 ‘-ㅁ, -ㄴ, -ㅂ, -ㅅ’의 경우 조사[J]로 다루고 있어 제외되었음.⁴⁷⁾ 본고에서도 이러한 점을 따라 이들 형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음.
- 아래는 종결어미의 목록과 빈도를 정리하고, 해당 표현이 전체 구결 문헌에 등장한 빈도와 전체 문헌 대비 《화엄》의 등장 비율을 제시한 것임.
- 이때 참조한 타 문헌은 《유가》, 《구인》, 《화소》, 《금광》에 해당함.
 - * 《자비》는 형태소 분석이 되어 있지 않아 제외.

[표 15] 《화엄》의 종결어미 출현 목록, 빈도

연번	구결자	화엄	전체문헌	비율(%)
1	호	141	148	95.27
2	ㅣ	49	562	8.71
3	ㅍ ㅈ	11	51	21.56
4	ㅌ ㅍ	3	4	75
5	ㅌ ㅈ	1	89	1.12

47) 아래 [표 13]의 ‘-ㅂ’는 Skt2022에서 명령형 종결로 본 예 2건에 해당.

6	ㅁ	1	13	7.69
7	ㅂ	0	2	0
	총계	206	869	23.71

- 《화엄》의 종결어미 빈도의 평균은 29.43, 표준편차는 48.33회에 해당함. 고른 분포를 보이지 않고 특정 종결어미에 집중된 사용을 보인다고 할 수 있음. 참고로 《화엄》을 제외한 다른 구결 문헌의 경우 평균은 94.71, 표준편차는 173.17에 해당함. 이들의 변동계수(CV)는 각각 164.23%와 182.83%로 《화엄》이 전체문헌보다는 고른 수준의 분포를 보인다고 할 수 있음.
- 아래는 연결어미에서와 동일하게 Z-검정을 진행한 결과임.

[표 16] 《화엄》의 종결어미 출현 Z-검정 결과

구결자	화엄 비율(%)	타 문헌 비율(%)	Z-score
호	68.45	1.06	94.6339*
ㅣ	23.79	77.38	-18.3831*
ㅍ ㅅ	5.34	6.03	-0.418
ㅌ ㅍ	1.46	0.15	4.8282*
ㅌ ㅅ	0.49	13.27	-5.4095*
ㅁ	0.49	1.81	-1.426
ㅂ	0	0.03	-0.7895

*: p<0.05

- 이 통계 결과를 보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종결어미로는 ‘-호, -ㅌ ㅍ’와 ‘-ㅣ, -ㅌ ㅅ’가 있음. 전자는 다른 구결 문헌에서보다 《화엄》에 더 많이 출현한 것이고, 후자는 《화엄》에서 비교적 적게 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특히, ‘-호’는 전체문헌 기준 1.06%의 비율로 나타나는 데 비해, 《화엄》에서는 68.45%로 매우 높아 집중적인 사용 경향을 보임. ‘-호’가 많이 사용된 것은 ‘정행품’에서 유사한 구문에 반복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됨[-ㅍ(支)호]. 반대로 ‘-ㅣ’는 전체문헌에서는 77.3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화엄》에서는 23.79%로 현저히 낮은 출현률을 보여 다른 점을 확인할 수 있음. 《화엄》에는 비슷한 구문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때 마지막 문장에서만 ‘-ㅣ’를 사용해 마무리하는 식으로 현토되어 있음. 이러한 문체와 관련된 것으로 보임.
- 이외에 ‘-ㅍ ㅅ, -ㅁ, -ㅂ’는 다른 문헌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음.

3.2. 《화엄》에만 등장하거나 《화엄》에만 등장하지 않는 종결어미

◎ 《화엄》에 등장하지 않는 종결어미: -(ㅌ)ㅂ

- 석독구결에서 ‘-ㅂ’는 흔히 연결어미로 사용되며 일부 의문 조사로도 사용될 수 있음. 다만, 아래와 같이 맥락상 명령형 종결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음. 이에 대해 박진호(2008: 323)에서는 고려 향가의 ‘-去良’과 연결지어 명령형 어미로 본 바 있음. 이는 《구인》에만 2건 나타나는 것으로 다른 문헌에서는 발견되지 않음.

- (1) ㄱ. 諦リ 聽ホ 諦リ 聽カ 善カ 之ニ 思ッテ 念ッテッカ 法ニ {如}ニ 修行ッカッナリ
ソロハニ一 [諦聽諦聽 善思念之 如法修行] <구인03:19-20> (자세히 듣고 자세
 히 들으며 잘 이것을 생각하고 생각하며 法대로 수행하며 하거라.” 하셨는데)
 ㄴ. 諦 聽 諦 聽カ 善カ 之ニ 思ッテ 念ッテッカ 法ニ {如}ニ 修行ッナリ [諦聽諦
 聽 善思念之 如法修行] <구인14:22-23>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으며, 이것을
 잘 생각하고 念하고 하며, 法과 같이 修行하라.)

◎ 《화엄》에만 등장하는 종결어미: 없음.

3.3. 《화엄》에 등장한 개별 종결어미

[1] -호

- ‘-호’는 《화엄》에서 총 141회 사용되었으며, 이는 《화엄》의 전체 종결어미에 대해 68.45%에 해당함. 더불어 ‘-호’는 석독구결 자료에서 총 148회 사용되었는데 이중 95.27%가 《화엄》에서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그만큼 《화엄》에 ‘-호’의 출현이 잦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석독구결에서 ‘-호’는 명령형 종결어미로 사용됨. 다만, 어간에 ‘-호’가 직접 결합한 용례는 찾아볼 수는 없음. 《화엄》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호’와 결합해 ‘-호호’로 나타나며, 이외에 ‘-호호호’도 확인됨.

- (2) ㄱ. 仁カ 亦ッ一 當ハ {於}{此}ニ 會セ 中ヲナッハ 修行ッホニ一ホセ 勝功德ニ
演暢ッロハホ호 [仁亦當於此會中 演暢修行勝功德] <화엄08:24> (그대도 또한
 반드시 이 모임 중에서 修行하신 수승한 功德을 演暢하소서)
 ㄴ. 十方叱 仏體 闕遣只賜立 <참회업장가 8>

- (2ㄱ)은 ‘-호호호’의 예로 대체로 《화소》에 나타나나 《화엄》에도 1건 등장함. 관련된 형태로 <願往生歌>에 나타나는 ‘白遣賜立’를 제시할 수 있으며, (2ㄴ)과 같은 균여 향가의 ‘遣只賜立’도 함께 제시할 수 있음. 이는 대체로 하위자가 상위자에게 말할 때 사용된다고 할 수 있음(선어말어미 ‘-호’는 아래 4장에서 다룸). 형태상 ‘與로호호’ <화소35:11>, ‘說로호호’ <구인11:11>과 같은 형태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호’를 분석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임(장윤희 2002: 35).
- ‘-호호’는 주로 <02:18>부터 <08:15>까지 이어지는 “(若セ) A 1 1 + 1 當ハ 願ロフ 1 衆生 1 B 호호 호호”[(若)A 當願衆生 B] 구성에 집중적으로 현토되어 있음(140회 출현). 이때의 사용 맥락을 살펴보면 모두 서원문으로써, 원망(願望)과도 관련된 것으로 보임. 구체적으로는 주절 주어가 내포절의 주어인 중생이 어떠한 것을 얻거나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내용이라 할 수 있음. 박진호(1998: 128)에서는 ‘-호호호’ 보다는 높임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본 바 있음.⁴⁸⁾
- 이때, ‘-호호’가 어간에 직접 결합한 경우는 총 114회 확인됨.

- (3) ㄱ. 若セ 宮ニ 室ニノホヲナ 在ッホ 1 1 + 1 當 願 衆生 {於}聖地ヲナ 入ッホ 永

48) 이러한 점에서 문현수(2017: 389)에서는 ‘X하소서’가 아닌 ‘X하라’로 현대어역을 제시하고 있음.

ㄱ. 穢欲^ㄷ 除^ㄷ ㄷ [若在宮室 當願衆生 入於聖地 永除穢欲] <화엄02:24> (만약 궁이니 室이니 하는 곳에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원하기를 衆生은 聖地에 들어가서 영원히 穢欲을 제거하소서 (할 것이며))

ㄴ. 手^ㄴ 執^ㄴ 楊枝^ㄴ 執^ㄴ ㄷ ㄷ 當 願 衆生 皆^ㄴ 妙法^ㄴ 得^ㄴ ㄷ 究竟 清淨^ㄴ ㄷ ㄷ [手執楊枝 當願衆生 皆得妙法 究竟清淨] <화엄04:10> (수에 버드나무 가지를 잡을 경우에는 반드시 원하기를 衆生은 다 妙法을 얻어서 길이 清淨하소서 (할 것이며))

ㄷ. 若 沙門^ㄷ 見 當 願 衆生 調柔^ㄷ 寂靜^ㄷ ㄷ ㄷ 畢竟 第一^ㄷ ㄷ ㄷ [若見沙門 當願衆生 調柔寂靜 畢竟第一] <화엄06:12> (만약 沙門을 보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하기를 衆生은 부드럽고 寂靜하여서 畢竟 第一이소서 (할 것이며))

- (3ㄱ)은 동사, (3ㄴ)은 형용사, (3ㄷ)은 계사 뒤에 결합한 예라고 할 수 있음. 물론, 명령형 어미가 형용사나 계사에 결합한다는 점은 문제가 될 수 있음. 이에 대해 정재영(1996: 203-204)에서는 이 경우 형용사나 계사가 자동사에 가까운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으며, 장윤희(2002: 94-97)에서도 자동사로의 전용으로 설명한 바 있음.
- 한편, (4)와 같이 ‘ㄷ’가 추가로 현토된 경우도 발견됨.

(4) ㄱ. 若^ㄱ 五欲^ㄱ 得^ㄱ ㄷ ㄷ 當 願 衆生 欲箭^ㄱ 拔除^ㄱ ㄷ ㄷ 究竟 安隱^ㄱ ㄷ ㄷ [若得五欲 當願衆生 拔除欲箭 究竟安隱] <화엄02:22> (만약 五欲을 얻을 경우에는 반드시 원하기를 衆生은 欲箭을 拔除하여서 길이 安隱하소서 (할 것이며))

ㄴ. 妻子 集會^ㄴ ㄷ ㄷ 當 願 衆生 怨親 平等^ㄴ ㄷ ㄷ 永^ㄴ 貪著 離^ㄴ ㄷ ㄷ ㄷ [妻子集會 當願衆生 怨親平等 永離貪著] <화엄02:21> (妻子가 集會할 경우에는 반드시 원하기를 衆生은 怨親이 平等하여서 길이 貪著을 여회하소서 (할 것이며))

- (4)와 같이 ‘ㄷ’의 사이에 ‘ㄷ’가 들어간 경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기 어려움. 관련하여, 이승재(1993: 357-360)에서는 이에 대해 지정문자(앞에 오는 자를 훈독하라고 지정해 주는 기능)로 파악한 바 있음.⁴⁹⁾ 즉, ‘ㄷ’의 훈독을 지시한다는 것인데, ‘ㄷ’는 어떤 경우에도 음독되는 경우가 없어 굳이 훈독을 지시할 필요가 없다는 문제가 있음(이용 2013: 134). ‘ㄷ’에 대해 Sktot와 황선엽 외(2009)에서는 미상으로 처리한 바 있음.⁵⁰⁾
- 《화엄》에 등장하는 구결자 연쇄 패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데, 음영 처리한 부분은 《화엄》에만 나타나는 구결자 연쇄임(*한 어절 내의 등장 패턴임).

<표 17> 《화엄》에 등장하는 ‘-ㄷ’의 패턴

연번	구결자 연쇄	앞 요소	뒤 요소	빈도
1	ㄷ ㄷ ㄷ	ㄷ ㄷ	어절 끝	67
2	ㄷ ㄷ	ㄷ	어절 끝	42
3	ㄷ ㄷ ㄷ	ㄷ ㄷ	어절 끝	5

49) 이외에 ‘離^ㄷ ㄷ ㄷ’<화엄05:04>나 ‘如^ㄷ ㄷ ㄷ ㄷ’<화엄03:15>과 같이 ‘ㄷ’의 앞에 나타나는 ‘ㄷ’는 어간과 관련된 표기로 볼 만한 것들임.

50) ‘ㄷ’는 물론 독법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지난 3월 발표문에서 다룬 바 있으며, 논의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생각되어 다루지 않도록 함.

4	ㄱ ㅈ ㅊ	ㄱ ㅈ	어절 끝	5
5	ㅈ ㅊ ㅌ	ㅈ ㅊ	어절 끝	3
6	ㅈ ㅊ ㅌ ㅈ	ㅈ ㅊ ㅌ	어절 끝	2
7	ㅈ ㅊ ㅌ	ㅈ ㅊ	어절 끝	2
8	ㅈ ㅊ ㅌ ㅌ ㅌ ㅌ	ㅈ ㅊ	ㅌ ㅌ ㅌ ㅌ	1
9	ㅌ ㅌ ㅌ ㅌ ㅌ ㅌ	ㅌ ㅌ ㅌ ㅌ ㅌ	어절 끝	1
10	ㅌ ㅌ ㅌ ㅌ	ㅌ ㅌ ㅌ	어절 끝	1
11	ㅌ ㅌ ㅌ ㅌ	ㅌ ㅌ ㅌ	어절 끝	1
12	ㅌ ㅌ ㅌ ㅌ	ㅌ ㅌ ㅌ	어절 끝	1
13	ㅌ ㅌ ㅌ	ㅌ ㅌ	어절 끝	1
14	ㅌ ㅌ ㅌ ㅌ	ㅌ ㅌ ㅌ	어절 끝	1
15	ㅌ ㅌ ㅌ ㅌ ㅌ	ㅌ ㅌ ㅌ ㅌ	어절 끝	1
16	ㅌ ㅌ ㅌ ㅌ	ㅌ ㅌ ㅌ	어절 끝	1
17	ㅌ ㅌ ㅌ	ㅌ ㅌ	어절 끝	1
18	ㅌ ㅌ ㅌ	ㅌ ㅌ	어절 끝	1
19	ㅌ ㅌ ㅌ	ㅌ ㅌ	어절 끝	1
20	ㅌ ㅌ ㅌ ㅌ	ㅌ ㅌ ㅌ	어절 끝	1
21	ㅌ ㅌ ㅌ ㅌ ㅌ ㅌ	ㅌ ㅌ	ㅌ ㅌ ㅌ ㅌ	1
22	ㅌ ㅌ ㅌ ㅌ ㅌ	ㅌ ㅌ ㅌ ㅌ	어절 끝	1

[2] - 1

- ‘-ㅌ’는 《화엄》에서 총 49회 사용되었으며, 이는 《화엄》의 전체 종결어미에 대해 23.79%에 해당함. 더불어 ‘-ㅌ’는 석독구결 자료에서 총 562회 사용되었는데 이중 8.71%가 《화엄》에서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석독구결에서의 ‘-ㅌ’는 평서형 종결어미로 중세 한국어의 ‘-다’에 대응되는 것임. 다만, 중세 한국어에서는 계사 뒤에서 ‘ㄷ → ㄹ’의 교체를 보이는데, 이러한 모습이 석독구결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음.⁵¹⁾
- ‘-ㅌ’는 정형(finite) 어미로서 거의 대부분의 선어말어미와 결합 가능한 것으로 보임. 《화엄》에서는 “-ㄴ-ㅌ, -ㅌ-ㅌ, -ㅌ-ㅌ, -ㅌ-ㅌ, -ㅌ-ㅌ, -ㅌ(ㅌ)-ㅌ, -ㅌ-ㅌ, -ㅌ-ㅌ”와 결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뒤에 이어붙는 요소는 발견되지 않음.

- (5) ㄱ. 若 有 菩 薩 初 發 心 誓 求 當 證 佛 菩 提 證 得 佛 菩 提
 ㄴ. {於}佛法僧 淨 信 生 是 以 而 廣 大 心 生 生 大 心
 [於佛法僧生淨信 以是而生廣大心] <화엄09:11> (佛法僧에 대해 깨끗한 믿을 내어 이로써 廣大한 마음을 내는 것이다.)

- (5ㄱ)과 같이 많은 경우 도치 구문의 일부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대체로 ‘或 有 菩 薩’의 형태로 나타나며, ‘-ㅌ-ㅌ’ <16:06>로 나타나기도 함. 한편, 선어말어미 없이 어간에 직접 결합하는 경우는 (5ㄴ)와 같이 계사를 포함한 ‘-ㅌ-ㅌ’로 나타난 경우를 제

51) 물론 장윤희(2002: 54-55)에서는 ‘다→라’ 교체가 수의적으로 일어난다고 본 바 있으며, 다소 해석이 애매한 ‘-ㅌ’가 있는 것은 사실임. 여기에서는 Sktot의 분석을 좇아 ‘-ㅌ’만을 평서형 종결어미로 다루었음.

외하면 찾아보기 어려움. 《유가》 등에 직접 결합하는 경우가 발견된다는 점에서 우연한 공백으로 생각해봄 직함.

- 《화엄》에 등장하는 구결자 연쇄 패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데, 음영 처리한 부분은 《화엄》에만 나타나는 구결자 연쇄임(*한 어절 내의 등장 패턴임).

<표 18> 《화엄》에 등장하는 ‘- ㅁ’의 패턴

연번	구결자 연쇄	앞 요소	뒤 요소	빈도
1	ㅁ	ㅁ	어절 끝	19
2	ㅁㅁㅁㅁ	ㅁㅁㅁㅁ	어절 끝	5
3	ㅁㅁㅁㅁ	ㅁㅁㅁㅁ	어절 끝	3
4	ㅁㅁ	ㅁㅁ	어절 끝	3
5	ㅁㅁㅁ	ㅁㅁㅁ	어절 끝	2
6	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	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	어절 끝	2
7	ㅁㅁ	ㅁㅁ	어절 끝	2
8	ㅁㅁㅁㅁ	ㅁㅁㅁㅁ	어절 끝	2
9	ㅁㅁㅁㅁㅁㅁㅁㅁ	ㅁㅁㅁㅁㅁㅁㅁㅁ	어절 끝	1
10	ㅁㅁㅁㅁㅁㅁㅁㅁ	ㅁㅁㅁㅁㅁㅁㅁㅁ	어절 끝	1
11	ㅁㅁㅁㅁㅁㅁ	ㅁㅁㅁㅁㅁㅁ	어절 끝	1
12	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	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	어절 끝	1
13	ㅁㅁㅁㅁㅁ	ㅁㅁㅁㅁㅁ	어절 끝	1
14	ㅁㅁㅁㅁㅁ	ㅁㅁㅁㅁㅁ	어절 끝	1
15	ㅁㅁㅁㅁㅁ	ㅁㅁㅁㅁㅁ	어절 끝	1
16	ㅁㅁㅁㅁ	ㅁㅁㅁㅁ	어절 끝	1
17	ㅁㅁㅁ	ㅁㅁㅁ	어절 끝	1
18	ㅁㅁ	ㅁㅁ	어절 끝	1
19	ㅁㅁㅁㅁㅁ	ㅁㅁㅁㅁㅁ	어절 끝	1

[3] -ㅁㅁ, -ㅁㅁ, -ㅁㅁ

- ‘-ㅁㅁ’, ‘-ㅁㅁ’, ‘-ㅁㅁ’는 《화엄》에서 각각 11회, 1회, 3회 사용되었으며, 이는 《화엄》의 전체 종결어미에 대해 5.43%, 0.49%, 1.46%에 해당함. 더불어 ‘-ㅁㅁ’, ‘-ㅁㅁ’, ‘-ㅁㅁ’는 석독구결 자료에서 각각 51회, 89회, 4회 사용되었는데 이중 21.56%, 1.12%, 75%가 《화엄》에서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한국어에서 감탄문을 설정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으나 본 발표문에서 논의할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임. 이에 기존의 논의를 좇아 ‘-ㅁㅁ, -ㅁㅁ, -ㅁㅁ’를 감탄형 종결어미로 다루도록 하겠음(이들 어미는 정재영(1995)에서는 의문형으로 기술되었던 것이나, 장윤희(2002) 등과 같이 감탄형으로 보는 것이 우세한 것으로 보임).
- 석독구결 자료에서 감탄은 동명사어미와 조사 ‘-ㅁ’가 결합한 구성으로도 표현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앞선 장에서 살펴보았음. 그러한 구성에 형식명사 ‘ㅁ’가 추가로 결합한 구성이 바로 ‘-ㅁㅁ’, ‘-ㅁㅁ’라 할 수 있음(박진호 1998: 129).
- ‘-ㅁㅁ’의 경우 ‘-ㅁㅁ, -ㅁㅁ’ 등의 선어말어미가 결합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화엄》에서는 선어말어미가 결합한 경우는 발견되지 않음. 아래는 ‘-ㅁㅁ’의 예.

=> 문장의 경우 ‘-ㅁㅁ/ㅁㅁ’를 붙이는 것으로 보여 ‘-ㅁㅁ : ㅁㅁ’와 차이가 있음.

논의에 있어, 형태소 분석과 의미문법적 기능의 기술은 구분해서 해야 함. 현재 많은 논의들이 이것을 구분하지 않아 문제가 있음.

- (6) ㄱ. {於}一切 法 不 自在 尸 不ッ尸丁ノ尸 無 而 衆生 第二導師 尸 {爲} 尸
乙ッホナシセ | [於一切法 無不自在 而爲衆生 第二導師] <화엄02:16-17>
(一切 法에 대해 自在하지 않음이 없으며 衆生의 第二 導師가 됩니다.)
=> 이유를 알 수 없이 특수하게 사용된 인용 구문임.
- ㄴ. 佛子 云何 用心 能 獲 一切 勝妙功德 乙 獲尸丁ノ今口ッヲ尸
ㄴ 1 [佛子 云何用心 能獲一切 勝妙功德] <화엄02:17-18> (佛子여 어떠한
것을 마음 쓰는 데에서 能히 一切 勝妙功德을 얻는다고 하는가 하면)
=> 전형적인 인용 구문임.

- 《화엄》의 ‘-ㅍㅓ’ 중 10건은 (6ㄱ)과 같이 ‘Xㅍ 不ㅍㅓㅓㅓㅓ + 부정’으로 사용되는 데, 장윤희(2002: 79)에서는 이를 ‘이중 부정 표현’이라고 한 바 있음. 직역하면 “X하지 않다(/않구나) 하는 것이 없다”로 해석할 수 있음. 이외에 (6ㄴ)과 같이 부정의 맥락이 아닌 예문도 1건 발견됨.⁵²⁾
 - => 인용으로 표현할 이유가 현대적으로는 전혀 없는데, 일본 한문 훈독에서도 불필요한 요소를 사용함. 이는 석독구결과 한문 훈독의 특이한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ㅍㅓ’의 사용 맥락은 모두 피인용문에 해당하는 것이며, 굳이 감탄으로 해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해 장윤희(2002: 72)에서는 15세기 감탄형 ‘-ㄴ더’와의 의미·기능상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감탄형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⁵³⁾
- (7)은 ‘-ㅓㅓ’가 《화엄》에 나타난 유일례로 선어말어미 ‘-ㅓ-, -ㅓ-’가 결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7) 汝今多所饒益安隱所多入此世間哀愍天人
 乙 利樂天人{爲欲}人 是 如支摩提 義乙 問五十一丁 [汝今爲欲 多所饒益 多所
 安隱 哀愍世間 利樂天人 問如是義] <화엄02:11-12> (당신은 지금 饒益하는 것이
 많으며 安隱한 것이 많은 까닭으로 世間을 哀愍하고 天人을 利樂하고자 이와 같은
 것을 묻는군요.)

52) 《화엄》에 나타나는 **얌**으나 《화소》에는 ‘-ㄴㅍㅓ’가 인용 동사에 주로 결합해 뒤에 피인용문을 요구하기도 함(박진호 2003: 238)

菩薩ヲ 自ラニ 念フナリ 我ニ 無始ニハ 已來ニ 飢餓ニ 以テ[三]ニ入リ 故ニ 身ニ 喪フニ 數ニ 無セリト云フニ[菩薩自念 我無始已來 以飢餓故 喪身無數] <화소10:08-9> (보살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아득한 옛날부터 이제까지 굶주림을 말미암은 까닭으로 몸을 망치되 수없이 하였으니’)

53) 한편, 앞서 살펴보았듯이 유사한 구성·기능을 하는 ‘-ㅓ:’나 ‘-ㅓ:’는 감탄의 어세가 강한 것과 그렇게 보기 어려운 경우가 모두 있음. 예를 들어, 박진호(2015: 431)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래 이 유절에 붙는 ‘-ㅓ:’는 감탄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음. ‘-ㅓㅓ’를 평행하게 생각하면, 단순한 평서형에 가까운 것에서부터 감탄에 가까운 의미를 표현하는 것들이 모두 있다고 생각해볼 만함.

相續 假法 1 一 非 矢 異 非 矢 異 ッ ナ | 一 리 | ッ ロ 尸 入 1 亦 ッ 1 續 ッ 今 不 矢 異 리 | ッ 로 尸 入 1 亦 ッ 1 續 ッ 今 **不 矢 1 入 3** <구인14:07-08> (相續 假法은 한 가지[一]도 아니고 다른 것[異]도 아니고 하다. ‘한 가지[一]이다’ 한다면 또한 이어질 것이 아니며 ‘다른 것[異]이다’ 한다면 또한 이어질 것이 아닌 까닭에서이다.)

- (8)은 ‘-ㅏㅑ’의 예로 선어말어미 ‘-ㅓ-, -ㅕ-, -ㅗ-, -ㅛ-’가 결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6), (7)과 달리, 실제 대화 상황에 해당한다는 점, ‘哉’에 현토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ㅓㅑ’보다 ‘-ㅏㅑ’가 더 전형적인 감탄의 의미가 간취된다고 할 수 있음(전기량(2018)에서도 동일하게 ‘-ㅏㅑ’이 등장한 예문들을 감탄 구문으로 분류하고 있음).⁵⁴⁾

(8) ㄱ. 何₇ 況₇ 量₇ 無₇ 邊₇ 劫₇ 具₇ 地₇ 度₇ 乙 修₇ 諸₇ 功德₇ 口₇ 乙₇
 1 [何況無量無邊劫 具修地度諸功德] <화엄09:06> (어찌 하물며 헤아림 없으며 가 없는劫에 갖추어 십지와 십바라밀을 닦은 모든 功德이라!)

ㄴ. 善ナ1{哉}イ 佛子: [善哉 佛子] <화엄02:10-11> (좋습니다, 불자여.)

ㄷ. 善哉 1 {哉} 1 仁者: 諦 聽 而 亦 應 セ ヲ ナ | [善哉仁者應諦聽] <화엄
 09:02> (홍류하시군요! 인자여, 자세히 들어야 합니다)

己. 時ト波斯匿王ト言ニル 善ニリ 大事セ因縁ニ故ノソニト¹リ¹了¹ッ

[時 波斯匿王言善 大事因縁故] <구인03:20> (때에 波斯匿王은 이르시되 “홀
류하구나. 큰 일의 인연으로 하신 것이구나.” 하고)

- － (8ㄱ)은 況과 관련된 중세 한국어의 “A{거늘/거니와/건마른 .. }, 훗물며 B이썩녀” 형식의 비교 구문(이현희 1982: 55)을 떠올리게 하는 예문임. (8ㄴ, ㄷ)은 각각 주어가 도치되어 ‘:’와 함께 나타나고 있음. (8ㄷ)은 《화엄》 외에 등장하는 유일례에 해당함(이때의 ‘-ㄱ-’는 ‘-ㄴ-’의 ㄱ약화형일 가능성이 있는데, 바로 뒤에 ‘-ㄴ-’이 등장한다는 문제가 있음).⁵⁵⁾
- － 한편, 《화엄》에만 유사 구성인 ‘-ㄱ-’가 15건 등장하는데, 다음과 같음.

(9) 彼一塵乙…ハ内ニセ衆一多リ一刹一 或刀有ナ一 佛失 有ナハ佛一失ニ 或
 ナ一 佛失 無佛一失ニ [彼一塵内衆多刹 或有有佛或無佛] <화엄15:10> (저 하나
 는 티끌로부터 안의 많은刹土는 혹 있다, 부처님이 계신 것이. 혹 있다, 부처님이
 없으신 것이.)

- 이는 모두 “或力有ナ”의 도치 구문으로 나타남. 즉, 후치된 주어에 조사 ‘- :’가 결합한 것으로 볼 만한 것임(Sktot에서도 “1 Et, ㄱN+R, :R,”로 분석). 이에 대해 장윤희(2002: 81-82)에서는 ‘- 1 ㅈ’의 기원적인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는 형태라고 한 바 있음.

54) 특히 ‘* ρ ㅑ’는 확인되지 않는데, 중세 한국어에 ‘* ρ ㄷ ρ 더’는 없고 ‘ ρ ㄷ ρ ’만 감탄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 ρ ㅑㅑ’보다는 ‘ ρ ㅑ’가 중세의 ‘ ρ ㄷ ρ ’로 직접적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음. 더불어, ‘ㅑ’가 사용된 다른 표현 ‘ ρ ㅑㅑ’의 경우 ‘ㅑ’로 교체되어 사용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 ρ ㅑㅑ’와 ‘ ρ ㅑ’ 자체도 서로 다른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음. 주본 《화엄경》 점토석 독구결에서도 ‘ㅑ’는 33위치에 현토되는 반면, ‘ ρ ㅑㅑ’, ‘ ρ ㅑㅑ’과 같이 ‘ㅑ’를 포함하는 구성은 모두 21위치에 나타나 구분됨(박진호 2003, 문현수 2017). 이외에 중세 한국어에 나타나는 감탄문 ‘ ρ ㅑㅑ’에 대해서는 최성규(2020)의 입장과 같이 ‘ ρ ㅑ’에 ‘ㅑ’가 결합한 구성으로 생각해볼 수 있을 듯하나, 《화엄》에 ‘ ρ ㅑ / ρ ㅑ’의 등장 용례가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더이상 다루지 않겠음.

55) 《화엄》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구인》에는 ‘-ㅁ 1 :’도 등장하는데, 이는 16세기 한글 문헌에 나오는 ‘-고녀>-고나’의 선대형이라 할 만한 것임. 이는 <南明集>이나 <川老金剛經>에 등장하는 음독구결 ‘-ㅁ 1 ㅅ’에서도 보임. 석여말어미 ‘-ㅁ-’와 ‘-1 :’로 분석해 볼 여지가 있음.

[5] — □

- ‘-ㅁ’는 《화엄》에서 총 1회 사용되었으며, 이는 《화엄》의 전체 종결어미에 대해 0.49%에 해당함. 더불어 ‘-ㅁ’는 석독구결 자료에서 총 13회 사용되었는데 이중 7.69%가 《화엄》에서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체언 상당어 뒤에 결합해 의문문을 만드는 요소는 조사[ㄴ]로 처리할 수 있음. 그런데, 일부 ‘-ㅁ’는 어간에 직접 결합하는 것처럼 보여 종결어미로 처리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 있음. 그러한 ‘-ㅁ’는 대부분 ‘-ㅁ ㅅ ㅅ’이 선행하며 그 앞에는 ‘ㅁ ㅁ’ 혹은 ‘ㅁ’가 결합하는 것으로 보임.
- 《화엄》에 나타난 유일례는 (9)와 같으며 ‘-ㅁ ㅅ ㅅ’의 형태로 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9) 云何 {於}一切 衆生 中 有 第一 耶 {爲} 大 爲 勝 爲 最勝 爲 妙 爲 極妙 爲 上 爲 無上 爲 無等 爲 無等等 {爲}入乙ッナヲミセロ56) [云何 於一切衆生中 爲第一 爲大 爲勝 爲最勝 爲妙 爲極妙 爲上 爲無上 爲無等 爲無等等] <화엄 02:07-09> (어떻게 (하여야) 一切 衆生 가운데 第一이 되며 大가 되며 勝이 되며 最勝이 되며 妙가 되며 極妙가 되며 上이 되며 無上이 되며 無등이 되며 無等等이 되겠습니까?)

56) {爲}[$\wedge$ N, $\exists$ J, $\supset$ V, $\neq$ Ep, $\neq$ Ep, $\supset$ Ep-, $\supset$ -Ep, $\supset$ Ef,]

=====0524=====

4. 《화엄》의 선어말어미

4.1. 선어말어미 분포의 통계적 개괄과 특수성 검토

- Skt0222 기준, 《화엄》에 등장한 선어말어미 구결자의 타입은 17종 토큰은 1038회에 해당함.
- 아래는 선어말어미의 목록과 빈도를 정리하고, 해당 표현이 전체 구결 문헌에 등장한 빈도와 전체 문헌 대비 《화엄》의 등장 비율을 제시한 것임.⁵⁷⁾
- 이때 참조한 타 문헌은 《유가》, 《구인》, 《화소》, 《금광》에 해당함.
* 《자비》는 형태소 분석이 아직 되지 않아 제외.

[표 19] 《화엄》의 연결어미 출현 목록, 빈도

연번	구결자	화엄	전체 문헌	비율(%)
1	ㄷ	313	353	88.67
2	ㄴ [V+Ep]	170	984	17.28
3	ㄴ	134	488	27.46
4	ㄴ	116	333	34.83
5	ㄴ	73	148	49.32
6	ㄴ	66	165	40.00
7	ㄴ	30	64	46.87
8	ㄴ	33	77	42.86
9	ㄴ	28	93	30.11
10	ㄴ	25	121	20.66
11	ㄴ	18	86	20.93
12	ㄴ	15	106	14.15
13	ㄴ	7	68	10.29
14	ㄴ	4	201	1.99
15	ㄴ	4	10	40.00
16	ㄴ [Ep]	1	101	0.99
17	ㄴ	1	49	2.04
18	ㄴ	0	4	0.00
19	ㄴ	0	38	0.00

57) 이외에 ‘ㄴ’이 5회, ‘ㄴ’이 2회 나타났으나 연결어미 ‘-아/어’에 ‘잇-’이 결합한 구성으로 보아 제외하였음. 더불어 ‘ㄴ’이 1회 나타났는데 아래와 같음. 이는 선어말어미 ‘-오-’를 포함하는 구성으로 보이는데, 일단 제외하였음.

我 1 {於}長夜 3 ㄴ 其 身 ㄴ 愛著 ㄴ ㄴ 充飽 ㄴ {欲} ㄴ 而 ㄴ 飲食 ㄴ 受 ㄴ ㄴ ㄴ 今 ㄴ 1 {此} ㄴ 食 ㄴ 以 ㄴ 衆生 ㄴ ㄴ 惠施 ㄴ ㄴ ㄴ [我於長夜 愛著其身 欲令充飽 而受飲食 今以此食 惠施衆生] <화소09:17-19> (‘나는 오랜 세월애 있어 내 몸을 愛着하여서 充飽하게 하려고 飲食을 받은 것이라서 이제는 이 음식으로써 衆生에게 惠施하고서)

총계	-	1038	3489	29.75
----	---	------	------	-------

- 《화엄》의 선어말어미 빈도의 평균은 56, 표준편차는 79.81에 해당함. 고른 분포를 보이지 않고 특정 선어말어미에 집중된 사용을 보인다고 할 수 있음. 참고로 《화엄》을 제외한 전체 구결문헌의 경우 평균은 134.28, 표준편차는 184.40에 해당함.
- 평균과 표준편차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우므로 변동계수(CV)로 변환하면 각각 142.51%와 137.33%에 해당함. 근소한 차이가 확인되기 때문에, 《화엄》은 다른 구결문헌과 비슷한 수준의 분포를 보인다고 할 수 있음.
- 이어서 개별 선어말어미의 출현 양상을 비교해 볼 수 있음. 아래는 《화엄》의 선어말어미 출현 비율과 다른 문헌들에서의 출현 분포를 통계적으로 비교해 본 결과임. 해당 선어말어미의 출현 비율을 계산한 뒤 전체문헌에서의 출현 비율과 비교해 보는 방식을 취했음(Z-검정을 적용해 비교).

[표 20] 《화엄》의 선어말어미 출현 Z-검정 결과

구결	화엄 비율(%)	타 문헌 비율(%)	Z-값
ㄷ	30.15%	1.63%	25.54041*
ㄴ [V+Ep]	16.38%	33.21%	-10.1016*
ㄴ	12.91%	14.44%	-1.19399
ㄹ	11.18%	8.85%	2.133814*
ㄷ	7.03%	3.06%	5.322874*
ㄷ	6.36%	4.04%	2.950456*
ㄷ	2.89%	1.39%	3.02451*
ㄷ	3.18%	1.80%	2.54395*
ㅁ	2.70%	2.65%	0.076307
ㅇ	2.41%	3.92%	-2.22601*
ㅂ	1.73%	2.77%	-1.81171
ㄷ ㄷ	1.45%	3.71%	-3.56779*
ㄷ 應可 ㄷ	0.67%	2.49%	-3.54425*
ㄷ	0.39%	8.04%	-8.86833*
ㄷ	0.39%	0.24%	0.709987
ㄴ [Ep]	0.10%	4.08%	-6.41604*
ㄷ ㄷ	0.10%	1.96%	-4.27301*
ㄷ	0.00%	0.16%	-1.30229
ㅣ	0.00%	1.55%	-4.03364*

*: p<0.05

- 이 통계 결과를 보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연결어미로는 ‘-ㄷ-, -ㄹ-, -ㄷ-, -ㄷ-, -ㄷ-, -ㄷ-’와 ‘-ㄴ [V+Ep]-, -ㅇ-, -ㄷ ㄷ-, -ㄷ 應可 ㄷ-, -ㄷ-, -ㄴ [Ep]-, -ㄷ ㄷ-, -ㅣ-’가 있음. 전자는 다른 구결 문헌에서보다 《화엄》에 더 많이 출현한 것이고, 후자는 《화엄》에서 비교적 적게 출현하거나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음.
- 특별히 ‘-ㄷ-’는 다른 구결 문헌에 비해 《화엄》에 월등히 많이 등장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ㄷ ㄷ-’의 반복적인 출현 탓으로 보임.
- 선어말어미 ‘-오-’의 이표기의 경우 문헌에 따라 주로 사용되는 구결자가 다르다는 점

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임. 이에 따라, ‘-ノ[Ep]-’는 비교적 적게 출현하고 ‘-ㄱ-’는 출현하지 않으며 ‘-ㅁ-’는 다른 문헌에서보다 더 많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음. 한편 내부에 선어말어미 ‘-오-’를 포함하는 ‘-ノ[V+Ep]-’도 다른 문헌에 비해 사용 빈도가 적다는 점도 주목됨.

- ‘-시-’에 대한 두 이표기의 경우 《화엄》 계통은 주로 ‘ㄷ’가 사용되며 ‘ㅅ’도 일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문현수 2020: 133). 실제로 두 가지의 사용 비율을 보면, ‘-ㄷ-’는 다른 문헌보다 더 많은 출현을 보이거나 이표기인 ‘-ㅅ-’는 더 적은 출현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이외에 ‘-ㄴ-, -ㅁ-, -ㅂ-, -ㅅ-, -ㄱ-’는 다른 문헌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화엄》에 나타난 선어말어미 연결 패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이때 [*] 표시는 다른 석독구결 문헌에 등장하지 않고 《화엄》에만 등장하는 패턴에 해당한다는 의미임.⁵⁸⁾

[표 21] 《화엄》의 선어말어미 연결 패턴 정리

연번	선어말어미 연결 패턴	빈도
1	stem → ㄷ → ending	209회
2	stem → ノ → ending	158회
3	stem → ㄴ → ending	96회
4	stem → ㄷ → ㅁ → ending	77회
5	stem → ㅁ → ending	63회
6	stem → ㅁ → ending	26회
7	stem → ㅁ → ending	24회
8	stem → ㅁ → ㅁ → ending	17회
9	stem → ㄴ → ㅁ → ending	16회
10	stem → ㅁ → ending	10회
11	stem → ㅂ → ㅁ → ending	10회
12	stem → ㅁ → ㄷ → ending	10회
13	stem → ㄴ → ㅁ ㄷ → ending	9회
14	stem → ㅁ → ending	8회
15	stem → ㅁ → ㄷ → ending	8회[*]
16	stem → ノ → ㅁ → ending	6회
17	stem → ㅁ → ㅁ → ending	6회[*]
18	stem → ㅁ → ending	5회
19	stem → ㅂ → ending	5회
20	stem → ㅁ → ㅁ → ending	4회[*]
21	stem → ㅁ → ㄴ → ㅁ ㄷ → ending	3회[*]
22	stem → ノ → ㅁ → ㄴ → ending	3회
23	stem → ㅁ → ending	3회
24	stem → ㅁ → ending	3회
25	stem → ㅁ → ㄷ → ㅁ → ending	3회[*]
26	stem → ㅁ {應可} ㄷ → ending	2회
27	stem → ㅁ → ㅁ → ㅁ {應可} ㄷ → ending	2회
28	stem → ㅁ → ㅁ ㄷ → ending	2회[*]

58) 선어말어미의 계열·통합 관계에 대해 자세히 다룬 연구로 백두현(1997)이 있음. 해당 논문에서 이미 다루어지거나 밝혀진 것들이 많은데, 본 발표문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세세히 제시하지는 못하였음을 밝혀 둠.

29	stem → 口 → ㄴ → ending	2회
30	stem → 口 → ㅍ → ㄴ → ending	2회[*]
31	stem → ㄴ → ㄴ → ㄴ → ㄴ → ending	1회[*]
32	stem → ㅍ → ㄴ → ending	1회
33	stem → ㄴ → ending	1회
34	stem → ㅍ → ㄴ → ending	1회
35	stem → ㄴ → ㄴ {應可} ㄴ → ending	1회
36	stem → ㅍ → ㄴ → ending	1회
37	stem → ㄴ → 口 → ending	1회
38	stem → ㅍ → 口 → ending	1회[*]
39	stem → ㅍ → ㅍ → ㄴ {應可} ㄴ → ending	1회[*]
40	stem → ㅍ → 口 → ending	1회
41	stem → ㄴ ㄴ → ending	1회
42	stem → ㅍ → ㄴ → ending	1회
43	stem → ㅍ → ㅍ → ㄴ → ending	1회[*]
44	stem → ㅍ → ㅍ → ending	1회[*]
45	stem → ㅍ → ㅍ → ㅍ → ending	1회[*]
46	stem → ㄴ → ㄴ → ㅍ → ㄴ → ending	1회[*]
47	stem → ㄴ → ㄴ → ㅍ → ending	1회
48	stem → ㄴ → ㄴ → ㄴ → ending	1회[*]
49	stem → ㄴ → ㅍ → ending	1회
50	stem → ㅍ → ㅍ → ㄴ {應可} ㄴ → ending	1회[*]
51	stem → ㅍ → ㅍ → ending	1회[*]
52	stem → ㄴ → ㅍ → ending	1회
총계	—	814

- － 《화엄》에 나타난 선어말어미 패턴은 총 52가지, 빈도는 총 814회에 해당함. 이중 하나의 선어말어미만 나타난 경우는 15가지인데, 이들은 614회 나타나 전체의 75.42%에 해당했음. 두 개의 선어말어미가 나타난 경우는 25가지로, 179회 나타나 전체의 21.99%를 차지했음. 이외에 3개 이상의 선어말어미가 나타난 경우는 12가지로, 총 20회 나타나 전체의 2.45%에 해당했음.⁵⁹⁾
- － 다만, 이 통계는 형태소 분석 미상[R]을 무시한 결과물인데, 어미 연속체와 관련된 R에는 ‘ㅅ, ㅈ, ㅊ’ 세 가지가 있으며 이들은 총 9건에 해당함. 각각을 제시하면 (1)과 같음.⁶⁰⁾

- (1) ㅅ: -ㅅEp, ㅅR, ㅅEf 3건
 ㅈ: -ㅈEp, ㅈR, ㅈEf 1건
 : -ㅈEp, ㅈR, ㅈEc 1건
 ㅊ: -ㅊEp, ㅊEp, ㅊR, ㅊEf 1건
 : -ㅈEp, ㅈR, ㅈEp, ㅈEp-, ㅈ-Ep, ㅈEf 1건
 : -ㅈEp, ㅈEp, ㅈR, ㅈEp-, ㅈ-Ep, ㅈEf 1건
 : -ㅈEp, ㅈR, ㅈEp, ㅈEp-, ㅈ-Ep, ㅈEf 1건

- － 다른 문헌과의 출현 비율의 비교는 수행하지 않았으나, 전체 석독구결 문헌에서 나타나

59) 물론 ‘-ㅅ-’의 중복 출현 등을 문제로 볼 수 있는데, 아래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음.

60) 한편 ‘-ㅈㅅ(ㅈ)-’의 ‘ㅅ’도 R로 처리되나, 《화엄》에 등장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았음.

는 선어말어미 패턴은 부록으로 추가해 두었음.

4.2. 《화엄》에만 등장하거나 《화엄》에만 등장하지 않는 선어말어미

◎ 《화엄》에 등장하지 않는 선어말어미: -ㅣ-

- 《화엄》에 등장하지 않는 선어말어미로는 ‘-ㅣ-’가 있음(‘-ㄱ-’는 이표기인 ‘-ㅇ-’가 발견된다는 점에서 등장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
- 중세 한국어의 과거 비완망상에 사용되는 ‘-더-’에 대응되는 표기로 《유가》계열 문헌에서만 4번 나타남. (2)와 같이 대체로 뒤에 동명사 어미가 결합하는 것으로 보임(물론 평서형의 종결어미 ‘-다’로 분석할 가능성도 있음).

(2) 請問乙 依ッ1入ム 故ノ 昔尸 聞白尸 未リッヲセ1ノ1 甚深 法義乙 聞カ [依請問 故 聞昔未聞甚深法義] <유가07:03-04> (청하여 물음을 의지한 까닭으로, 예전에 듣지 못하였던 깊고 깊은 법의 의미를 들으며)

◎ 《화엄》에만 등장하는 선어말어미: 없음.

4.3. 《화엄》에 등장한 개별 선어말어미

[1] 경어법

- ‘-ㄴ-’, ‘-ㅁ-’, ‘-ㅂ-’은 《화엄》에서 각각 33회, 4회, 28회 사용되었으며, 이는 《화엄》의 전체 선어말어미에 대해 3.18%, 0.39%, 2.70%에 해당함. 더불어 ‘-ㄴ-’, ‘-ㅁ-’, ‘-ㅂ-’는 석독구결 자료에서 각각 77회, 201회, 93회 사용되었는데 이중 42.86%, 1.99%, 30.11%가 《화엄》에서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화엄》에서 주체 높임법 선어말어미 ‘-ㅁ-’는 주로 ‘ㄴ’로 실현되나 ‘ㅁ’로도 나타남. ‘ㅁ’ 4건은 <08:21>부터 <09:07>에서만 발견되는데, 그 사이의 <08:23>에는 ‘ㄴ’가 나타나 혼재된 양상이 보임. 특히 ‘ㄴㅁ’과 ‘ㄴㄴ’이 가까이에 공존하고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음.
- 《화엄》에서 ‘-ㄴ-’의 앞에 등장한 선어말어미로는 ‘-ㄷ-, -ㅌ(ハ)-’, 뒤에 등장한 선어말어미로는 ‘-ㅌ-, -ㅍ-, -ㅍ-, -ㅍ-, -ㅍ{應可}ㅍ-’가 있음. ‘-ㅁ-’는 뒤에 ‘-ㅌㅌㅍㅍ’가 결합한 경우만 1건 발견됨.

(2) ㄱ. 經乙 諷誦ッホ1 時十1 當 願 衆生 佛矢 說ホ1 所十 順セッハ 摠持ッ
ホ 忘尸 不ッヒ立 [諷誦經時 當願衆生 順佛所說 摠持不忘] <화엄08:03>
(經을 諷誦하는 때에는 반드시 원하기를 衆生은 부처님이 이르신 바에 좇아 摠
持하여서 잊지 말라 (할 것이며))

ㄴ. 十方セ 一切 諸1 如來リ 悉3 共セ 稱揚ッニヲ 盡3尸 不(ノ)能リ失ッニロ乙
ホセ1 [十方一切諸如來 悉共稱揚不能盡] <화엄09:07> (十方의 一切 모든 如
來가 다 함께 稱揚하셔도 다할 수 없습니다.)

- (2ㄱ)에서는 ‘佛’을 (2ㄴ)에서는 ‘如來’를 높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ㅁ-’은 중세 한국어에서 주로 객체 높임법을 나타내는 ‘-습-’에 대응되는 것으로 석독구결에서는 특수한 환경에서 주체 높임의 기능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백두현 1997). 다만, 그러한 주체 높임의 기능은 《화엄》 계통 문헌에서는 관찰할 수 없는 것임(문현수 2020: 140).
- 석독구결 문헌 전체에서 ‘-ㅁ-’의 앞에 올 수 있는 선어말어미는 없음. 한편 《화엄》에서 ‘-ㅁ-’의 뒤에 올 수 있는 선어말어미로는 ‘-ㅁ-, -ㅁ-, -ㅁ-, -ㅁ-, -ㅁ-, -ㅁ- {應可}ㅁ-’가 있음.

(3) 常^リ 諸^ノ 衆生^ニ 利樂^ヲ 國土^ニ 莊嚴^ヲ 佛^ニ 供養^ス 佛^ニ 供養^ス [常欲利樂諸衆生 莊嚴國土供養佛] <화엄09:14> (항상 모든 衆生을 利樂(하게 하)며 國土를 莊嚴하며 부처님을 供養하며)

- (3)에서는 객체인 ‘佛’을 높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이외에 상대 높임법의 경우 선어말어미 ‘-ㅁ-, -ㅁ-’이 관련된 것으로 제시된 바 있음(박진호 1998: 152). 이에 대해서는 장경준 외(2015: 59)의 처리 방식을 좇아 기타 항목에서 추가로 다루도록 함.

[2] 선어말어미 ‘-ㅁ-’

- ‘-ㅁ-, -ㅁ-[V+Ep]-, -ㅁ-[Ep]-’는 《화엄》에서 각각 66회, 170회, 1회 사용되었으며, 이는 《화엄》의 전체 선어말어미에 대해 6.36%, 16.38%, 0.1%에 해당함. 더불어 ‘-ㅁ-, -ㅁ-[V+Ep]-, -ㅁ-[Ep]-’는 석독구결 자료에서 각각 165회, 984회, 101회 사용되었는데 이중 40%, 17.28%, 0.99%가 《화엄》에서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선어말어미 ‘-ㅁ-’는 종결형에서는 1인칭 주어와의 일치율을 나타내고 관계절에서는 피수식 명사가 대상임을 나타내고 동격 관형절에서는 수의적으로 사용되는 것임(박진호 1998: 174). 이러한 선어말어미 ‘-ㅁ-’를 표기하는 데 사용되는 구결자로는 ‘ㅁ, ㅁ, ㅁ’가 있는데 ‘ㅁ’는 《화엄》 계통의 문헌에만 사용되고 ‘ㅁ’는 《유가》 계통의 문헌에 주로 사용됨(《화엄》에 1건 등장). 이외에 ‘ㅁ’는 《구인》에서만 사용되는 것임(문현수 2020).⁶¹⁾
- 《화엄》에서 ‘-ㅁ-’의 앞에 등장한 선어말어미로는 ‘-ㅁ-, -ㅁ-, -ㅁ-, -ㅁ-’, 뒤에 등장한 선어말어미로는 ‘-ㅁ-, -ㅁ-ㅁ-, -ㅁ- {應可}ㅁ-’가 있음. ‘-ㅁ-’ 뒤에 등장한 선어말어미로는 ‘-ㅁ-, -ㅁ-, -ㅁ-, -ㅁ- {應可}ㅁ-’가 있음.

(4) ㄱ. 我^ニ 今^ニ 已^ニ 諸^ノ 菩薩^ノ {爲^ス} 佛^ニ 往^ス 修^ス 清淨行^ニ 說^ス ㅁ ㅁ ㅁ ㅁ ㅁ [我今已爲諸菩薩 說佛往修清淨行] <화엄08:23> (나는 지금

61) 한편, 동일한 구결자를 사용한 표기라도 일부 ‘ㄱ 약화’형이 있을 수 있음. 예를 들면, ‘시웁다(=ㅁㅁㅁㅁ)’와 같은 경우가 있는데, 주체 높임의 ‘-ㅁ-’와 화자 주어와의 일치율을 보이는 ‘-ㅁ-’가 일치율을 보일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함(박진호 1998: 176). Sktot에서는 형태소 분석 결과만을 태깅할 뿐, 두 가지가 구분되지는 않기 때문에 위 통계 자료에서의 ‘-ㅁ-’ 중에서도 아래와 같은 경우가 섞여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임.

善^ニ 哉^ニ 仁者^ニ 諦^ニ 聽^ス 應^ス 聽^ス [善哉仁者應諦聽] <화엄09:02> (훌륭하시군요! 인자여. 자세히 들어야 합니다)

이미 모든菩薩을 위해 부처님이 과거에 닦으신 淸淨行을 說한 것이라)

ㄴ. 經乙 諷誦ッホ 1 時+ 1 當 願 衆生 佛矢 說ホイ 1 所+ 順セッホハ 摠持ッ
ホ 忘尸 不ッヒ立 [諷誦經時 當願衆生 順佛所說 摠持不忘] <화엄08:03>
(經을 諷誦할 때에는 반드시 원하기를 衆生은 부처님이 이르신 것을 좇아 摠持
하여서 잊지 말라 (할 것이며))

ㄷ. 若ヒ 能ヒ 大供養乙 興集ッヒ尸入 1 彼 人 1 佛矢 不思議リホイ 1 入乙 信ッヒ
ホカ [若能興集大供養 彼人信佛不思議] <화엄10:15> (만약 능히 큰 供養을
일으켜 모으면 저 사람은 부처님이 不思議한 것을 믿을 것이며)

(5) ㄱ. 路乙 涉ッホ 而 去ホ 1 1 當 願 衆生 淨法界乙 履ノ尸ム 心+ 障礙尸
無ヒ立 [涉路而去 當願衆生 履淨法界 心無障礙] <화엄04:21> (길을 걸어서
갈 경우에 반드시 원하기를 衆生은 깨끗한 法界를 밟되 마음에 막힘이 없으라
(할 것이며))

ㄴ. 若ヒ 有ナ 1 出離ヒ 法乙 識ッ尸 不(ノ)ッホ 解脫ッホ 誼憤乙 離支ノ尸ム 乙
求尸 不(ノ)ッホナホ [若有不識出離法 不求解脫離誼憤] <화엄18:14> (만약
있다, 出離의 法을 알지 못하며 解脫해서 소란을 여의는 것을 구하지 못함이.)

ㄷ. 則 能 衆ヲ {爲}シ 說法ッホ 時+ 音聲リ 類乙 隨ッホ尸ム 難シ 思議ノホ
ヒホカ [則能爲衆說法時 音聲隨類難思議] <화엄13:14> (곧 능히 衆生을 위해
說法하는 때에 音聲이 類를 좇되 어렵게야 思議할 것이며)

- (4)는 ‘-요-’의 예임. (4ㄱ)은 1인칭 주어와의 일치를 보이고 (4ㄴ)은 피수식 명사가 대상임을 나타내며, (4ㄷ)은 동격 관형절에서의 ‘-요-’의 사용을 살펴볼 수 있음.
- (5)는 ‘-노-’의 예임. (5ㄱ)은 후기중세 한국어에 흔히 나타나는 ‘-오디’에 대응되는 형태 ‘-오-’에 대응됨을 확인할 수 있음. 더불어, 한자 뒤에 바로 현토되어 용언 파생 접미사 ‘ッ’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물론 ‘ッ’가 생략된 것이고, ‘ノ’ 자체로 선어말어미 ‘-오-’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음). (5ㄴ)은 《화엄》에서 한자 바로 뒤에 ‘ノ’가 현토되지 않은 유일한 예임. 어간 ‘離支-’에 ‘ッ’가 결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단독으로 선어말어미 ‘-오-’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야 함. (5ㄷ)은 ‘ノホヒホ’로 나타나는데, Skt0t에서는 네 가지 구결자가 모두 Ep로 처리되었음. ‘ホ’가 2회 나오는 만큼, 하나는 동명사어미와 계사 어간을 표기한 것으로 볼 필요가 있음.

[3] 시제, 상, 양태

◎ -ヒ-, -ト-, -ム-

- ‘-ヒ-, -ト-, -ム-’는 《화엄》에서 각각 313회, 18회, 4회 사용되었으며, 이는 《화엄》의 전체 선어말어미에 대해 30.15%, 1.73%, 0.39%에 해당함. 더불어 ‘-ヒ-, -ト-, -ム-’는 석독구결 자료에서 각각 353회, 86회, 10회 사용되었는데 이중 88.67%, 20.93%, 40%가 《화엄》에서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선어말어미 ‘-ヒ-’의 경우 독음이 ‘히’로 추정되어 중세 한국어의 ‘-히-’와 유사하나, 형용사와 계사에도 결합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임. 더불어, 그 의미도 다르다고 할 수 있음. 문현수·허인영(2018)을 참조하면, 지금까지 선어말어미 ‘-거-’의 이형태로 본 견해(이승재 1993), 중세 한국어의 ‘-히-’에 대응하여 현재 시제로 파악한 견해(정재영

1996, 백두현 1997), 미완료 동작상 선어말어미로 파악한 견해(김영옥 1999), [항상성]의 서법으로 파악한 견해(박진호 1998, 2010) 등이 있었음(본고는 [항상성]의 서법의 관점에서 작성되었음).

- 한편, 선어말어미 ‘-ㅏ-’의 경우 비록 독음은 ‘누’로 추정되나, 분포상 형용사와 계사에 대해 결합 제약을 보이며, 동명사형 어미와 결합하지 않아 중세 한국어 ‘-ㄴ-’와 유사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 의미 기능도 현재시제에 가까운 것으로 보여 많은 연구에서 이를 현재시제 선어말어미로 파악하고 있음.
- 《화엄》에서 ‘-ㅓ-’의 앞에 등장한 선어말어미로는 ‘-ㄴ-, -ㅓ-, -ㅕ-, (-ㅗ-)’가 있으며, 뒤에 등장한 선어말어미로는 ‘-ㅓ-, -ㅗ-’가 있음. ‘-ㅗ-’는 앞뒤에서 모두 관찰되는데, 이는 ‘-ㅗ-’가 기원적으로 동명사어미 ‘-ㄴㅓ’과 계사 어간을 포함한 구성에서 문법화를 겪는 과정에 있었다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임(아래 해당 부분에서 다시 다룸). ‘-ㅏ-’ 앞에 등장한 선어말어미는 ‘-ㅓ-, -ㅗ-’가 있으며 뒤에 등장한 선어말어미로는 ‘-ㅓ-’가 있음.

(6) ㄱ. 佛子 若 諸菩薩 善 用 其心 則 一切 勝妙功德 獲_ㄷ
牙四 [佛子 若諸菩薩 善用其心 卽獲一切 勝妙功德] <화엄02:12-13> (佛子여 만
 약 모든菩薩이 잘 그 마음을 쓰는 경우에는 곧 一切 勝妙功德을 얻을 것이라)

ㄴ. 嬰珞乙 著ッホ 1 時ミナ 1 當願衆生 諸 1 偽飾乙 捨ッロハ 眞實處ミナ 到ミユ
 [著嬰珞時 當願衆生 捨諸偽飾 到眞實處] <화엄03:01> (嬰珞을 著할 때에는 반드시 워하기를 衆生은 모든 偽飾을 버리고서 眞實處에 도달하라 (할 것이며))

- (61)은 [항상성]으로 해석할 수 있을 만한 보편성·필연성을 띠는 조건문의 예임. (61)은 《화엄》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명령문에서 ‘-ㄷ-’가 나타난 예문임. 이에 대해 “모두 화자인菩薩이 청자인衆生에게 자신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명령하는 맥락”(문현수·허인영 2018: 16)이므로 보편성·필연성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만한 것임. 참고로 후자와 같이 어간과 어미에 ‘-ㄷ-’가 직접 통합한 경우가 209회, 전자와 같이 ‘-ㅌ-’가 후행하는 경우가 77회 나타나 대부분의 용례를 구성하였음.
- ‘-ㄴ-’는 많은 경우 ‘-(ㄷ)ㅏㅓㅕ, -(ㄷ)ㅓ, -ㅓㅕ’과 같은 형식과 공기하여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7)과 같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음.⁶²⁾

(7) ㄱ. 若汲井ツト 見 當 願 衆生 辯才 具足 ヲハ 一切 法 演 ヲヒ 立 [若見
汲井 當願衆生 具足辯才 演一切法] <화엄05:17> (만약 우물물 길는 것을 보
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하기를 衆生은 辯才를 갖추어서 一切의 法을 연설해라
(할 것이며))

ㄷ. 菩薩 1 {於}中 3 + 自在 乙 得 1 入 ㄴ 老病死 七 衆 1 患 乙 受 1 入 乙 示 ㄴ
 나카 [菩薩於中得自在 示受老病死衆患] <화엄18:21> (菩薩은 이 중에서 自在

62) 한편, 중세 한국어의 ‘-느-’와 달리, ‘-ト-’가 ‘알다, 모르다’ 등의 상태 동사에 결합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움. 물론, 이는 우연적 공백일 수 있음. 오히려 ‘知’는 ‘-메-’와 공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는 하나, 대체로 ‘알게 되다’의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임(若 如來尸體 常住 則 能知 法 永 不 滅) [若見如來體常住 則能知法永 不滅] <화엄11:15> 만약 如來의 몸이 常住하시는 것을 보면 곧 能히 法이 영원히 滅하지 않는 것을 알 것이며).

를 얻은 까닭으로 老病死의 많은 고통을 받는 것을 보이며)

- 한편, ‘-ㅅ-’도 관련된 선어말어미로 제시할 수 있는데, 박진호(1998)에서는 ‘-ㅌ-’와 ‘-ㅍ-’로, 정재영(2000)에서는 ‘-ㅌ-’와 ‘-ㅍ-’로 분석한 바 있음. 《화엄》에 나타난 예는 (8)의 세 가지뿐임.

- (8) ㄱ. 佛子 3 菩薩 1 在家 ㅅ 1 1 + 1 當 ㅅ 願 ㅌ ㅌ ㅌ 1 衆生 1 家性 ㅅ 空 ㅌ ㅌ ㅌ ㅌ 知 ㅌ ㅌ 其 逼迫 ㅌ 免 ㅌ ㅌ ㅌ ㅌ ㅌ ㅌ ㅌ [佛子 菩薩在家 當願衆生 知家性空 免其逼迫] <화엄02:18-19> (佛子여菩薩은 在家할 경우에 반드시 원하기를 衆生은 家性の 空함을 알아서 그 逼迫을 免해라 할 것이며)
- ㄴ. 菩薩 ㅌ 發意 ㅅ 3 菩提 ㅌ 求 ㅌ ㅌ ㅌ ㅌ ㅌ ㅌ {是} ㅌ 因 無 ㅌ ㅌ ㅌ ㅌ 緣 無 ㅌ ㅌ ㅌ {有} 非 ㅌ ㅌ [菩薩發意求菩提 非是無因無有緣] <화엄09:10> (菩薩이 發意하여 菩提를 求하는 것은 이 因 없이 하며 緣 없이 하는 것 아니니)
- ㄷ. 或 ㅌ 有 ㅌ ㅌ 諸 1 天廟 ㅌ 謁 ㅌ ㅌ ㅌ ㅌ ㅌ ㅌ 示 ㅌ ㅌ ㅌ ㅌ ㅌ ㅌ 或 ㅌ ㅌ 復 ㅌ ㅌ 恒河水 ㅌ ㅌ ㅌ ㅌ ㅌ ㅌ 示 ㅌ ㅌ ㅌ ㅌ ㅌ ㅌ [或有示謁諸天廟 或復示入恒河水] <화엄 19:24> (或 있다, 모든 天廟를 謁見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 혹 있다, 또한 恒河水에 들어가는 것을 보이는 것이.)

- (8ㄱ)의 ‘ㅌㅌㅌㅌ’의 경우 ‘-ㅌ-’로 보기는 어려운데, ‘-ㅌ-’가 동명사어미 ‘-ㅌ’과 결합한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임(문현수·허인영 2018: 22). (8ㄴ)의 경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상황을 가정하는 것으로 보여 [항상성]의 의미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고, (8ㄷ)은 계사 뒤에 결합하였으므로 ‘-ㅌ-’에 가까운 것으로 보임. 즉, 《화엄》의 ‘-ㅌ-’는 모두 ‘-ㅌ-’와 ‘-ㅍ-’로 분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ㅌ-, -ㅍ-, -ㅍ-

- ‘-ㅌ-, -ㅍ-, -ㅍ-’는 《화엄》에서 각각 134회, 73회, 30회 사용되었으며, 이는 《화엄》의 전체 선어말어미에 대해 12.91%, 7.03%, 2.89%에 해당함. 더불어 ‘-ㅌ-, -ㅍ-, -ㅍ-’는 석독구결 자료에서 각각 488회, 148회, 64회 사용되었는데 이중 27.46%, 49.32%, 46.87%가 《화엄》에서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ㅌ-’와 ‘-ㅍ-’는 많은 경우 함께 논의되어 왔으며, 그 의미 기능에 다양한 의견이 있었음. 먼저 ‘-ㅍ-’에 대해서는 [확인법]으로 파악한 견해(이승재 1992, 김영옥 1996 등)나 [완료상]이나 [근접 과거]로 파악한 견해를 제시할 수 있음. ‘-ㅌ-’의 경우 보다 다양한 의미가 제안되어 왔는데, 높임법(이승재 1996), [완료](김영옥 1999 등), 양태나 서법 범주(박진호 1998) 등이 있었음.
- 한편, 박진호(1998: 167-169)에서는 ‘-ㅍ-’와 ‘-ㅌ-’의 의미 기능에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박진호(2016: 149)에서는 이들이 이두에서 모두 ‘-在’로 적힌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음. 그러나, 석독구결 문헌에서는 이들의 배열 순서가 다르며, ‘-ㅍㅌ-’로 직접 결합하는 용례도 나타난다는 점을 제시해 볼 수 있음(‘-ㅌ-’는 ‘-ㅌ-’와 상보적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ㅍ-’와 ‘-ㅍ-’는 15세기 확인법의 ‘-거/어-’를 좇아 이형태 관계로 파악하는 견해가 있으나 실제 용례에서는 비타동사/타동사의 분포를 따르지는 않아 확실히 알기는 어려움

(이상금 2020).

- 《화엄》에서 ‘-ㄴ-’의 앞에 등장한 선어말어미로는 ‘-ㄴ-, -ㄷ-, -ㄹ-, -ㅁ-, -ㅂ-’, 뒤에 등장한 선어말어미로는 ‘-ㅅ-, -ㅈ-, -ㅊ-, -ㅋ-, -ㆁ-’가 있음. ‘-ㄷ-’의 앞에 등장한 선어말어미로는 ‘-ㅁ-, -ㅂ-’, 뒤에 등장한 선어말어미로는 ‘-ㄴ-, -ㅅ-’가 있음. ‘-ㄹ-’의 앞에 등장한 선어말어미로는 ‘-ㅁ-, -ㅂ-’, 뒤에 등장한 선어말어미로는 ‘-ㄴ-, -ㅅ-, -ㅈ-, -ㅊ-, -ㅋ-’가 있음.

◎ -ㅅ-

- ‘-ㅅ-’는 《화엄》에서 116회 사용되었으며, 이는 《화엄》의 전체 선어말어미에 대해 11.51%에 해당함. 더불어 ‘-ㅅ-’는 석독구결 자료에서 각각 333회 사용되었는데 이중 34.83%가 《화엄》에서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석독구결의 ‘-ㅅ-’는 중세 한국어의 ‘-리-’에 대응되는 선어말어미로, 기원적으로는 동명사어미 ‘-ㄴㅇ’과 계사 어간을 포함한 구성으로 알려져 있음. 다만, 문법화 과정의 중간에는 옛 특성과 새 특성이 함께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데(최성규 2025: 93), 예를 들면, ‘ㄴㅅㅅㅅㅅ’와 같이 ‘-ㅅ-’가 앞뒤에 중복 출현하는 경우가 발견된다고 할 수 있음.
- 《화엄》에서 ‘-ㅅ-’의 앞에 등장한 선어말어미로는 ‘-ㄴ-, -ㄷ-, -ㄹ-, -ㄴ-, -ㅁ-, -ㅂ-, -ㅅ-, -ㅈ-, -ㅊ-, -ㅋ-, -ㆁ-’, 뒤에 등장한 선어말어미로는 ‘-ㄴ-, -ㅅ-, -ㅈ-, -ㅊ-, -ㅋ-’가 있음. 이때, 문제는 ‘-ㅅ-’의 앞뒤에 모두 등장하는 선어말어미들이 존재한다는 점인데, 사실 15세기 한국어에서도 ‘-리-’의 위치가 고정되지 않고 일부 유동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음(최성규 2025: 95).⁶³⁾ 다만, 전체 석독구결 문헌에서 양쪽에 모두 붙을 수 있는 선어말어미로 ‘-ㅅ-/ㅆ-, -ㅅ-, -ㅈ-, -ㅊ-’가 제시된 데 반해, 《화엄》에서는 이중 ‘-ㅈ-, -ㅊ-’ 정도만 발견된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문현수(2018)에서는 석독구결의 일반적인 선어말어미 결합 순서에 비추어 선어말어미로 볼 수 있는 것과 그렇게 보기 어려운 것을 나누어 제시한 바 있음.

(9) ㄱ. 若ㄷ 常ㄴ {於}諸ㄴ 佛ㄴ 信奉ㄴ 白ㄴ ㅅㅅㅅㅅ 則ㄴ 能ㄴ 戒ㄴ 持ㄴ 學處ㄴ 修
ㅅㅅㅅㅅㅅㅅ [若常信奉於諸佛 則能持戒修學處] <화엄10:10> (만약 항상 모든 부처님을信奉한다면 곧 能히 戒를 지니고 學處를 닦고 하는 것이며)

ㄴ. 云何 {於}一切 衆生ㄴ 中ㄴ 第一ㄴ {爲} 大 爲 勝 爲 最勝 爲 妙 爲 極妙 爲 上 爲 無上 爲 無等 爲 無等等 {爲} ㅅㅅㅅㅅㅅㅅㅅㅅ [云何 於一切衆生中 爲第一 爲大 爲勝 爲最勝 爲妙 爲極妙 爲上 爲無上 爲無等 爲無等等] <화엄 02:07-09> (어떻게 一切 衆生の 가운데 第一이 되며 大가 되며 勝이 되며 最勝이 되며 妙가 되며 極妙가 되며 上이 되며 無上이 되며 無 등이 되며 無等等이 되겠습니까?)

(10) ㄱ. 若 其 願力 自在 得 普 諸 趣 隨 而 身ㄴ 現ㄴ ㅅㅅㅅㅅ 則 能 衆ㄴ {爲} 說 法ㄴ ㅅㅅㅅ 時ㄴ 音聲ㄴ 類ㄴ 隨ㄴ ㅅㅅㅅ 難ㄴ 思議ㄴ ㅅㅅㅅㅅㅅㅅ [若其願力得自在 普隨諸趣而現身 則能爲衆說法時 音聲隨類難思議] <화엄14 13:13-14> (만약 그 願力에 대해 自在를 얻어서 널리 모든 갈래를 좇아 몸을 나타내면, 곧 能히 衆生을 위해 說法하는 때에 音聲이 部類를 좇아 나타나되 어렵게야思議

63) 물론 앞뒤 모두에 나타날 수 있다면 하나는 기원적인 구성인 동명사어미 + 계사어간 등으로 분석할 수도 있겠음.

할 것일 것이며)

ㄴ. 一切 佛 所 有 十 力 皆 是 {是} 如 支 ッ 尸 入 乙 大 士 三 昧 神 通 七 力 ヲ ノ 力 ナ
 ㄴ [一切佛所皆如是 大士三昧神通力] <화엄17:03> (一切 부처가 처소에서
 다 이 같이 하는 것을 보살의 三昧神通의 힘이다 할 것이다.)

- (9)는 ‘-ㄴ-’, ‘-ㄷ-’에 후행하는 선어말어미 ‘ㄹ’의 예임. 이는 《화엄》에서 절대 다수로 나타나는 배열 순서임(문현수(2018)에서 제시한 고대 한국어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선어말어미 배열 순서에도 해당함). 한편, (10ㄴ)은 (9)와는 반대의 순서로 나타난 것임. (10ㄴ)은 ‘ㄹ’이 중복 출현한 것으로, ‘ㄹ’ 중 하나는 ‘-ㄴ-’과 계사 ‘-이-’의 융합형으로 보아야 함. 이때 문현수(2018: 3)에서는 ‘-ㄹ-’이 고대 한국어의 선어말어미 결합 순서상 ‘-ㄴ-’의 뒤에 나타난다는 것을 들어, 두 ‘ㄹ’ 중 앞의 것은 융합형으로 분석하였음.⁶⁴⁾ 그러한 결합 순서의 관점에서는, 《화엄》에서 선어말어미(Ep)로 분류된 ‘ㄹ’들 중에는 다음의 패턴을 보이는 것은 선어말어미보다는 융합형에 가깝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임.

- (11) ㄴ. stem → ㄴ → ㄹ → ㄴ → ending [3회]
 ㄴ. stem → ㄴ → ㄹ → ㄷ → ㄹ → ending [1회] - 《화엄》에서만 발견.
 ㄴ. stem → ㄴ → ㄹ → ㄷ → ending [1회]

- 이때, (11ㄴ)은 모두 ‘-ㄴ-’의 앞에 나타난 것들임. 후기중세 한국어의 경우 ‘-다’ 앞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리+어]의 순서로 나타나는데(업스려다 <석상 11:11ㄴ>), 그러한 패턴과 (11ㄴ)은 동일한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는 것임.

◎ -ㄴ ㄷ-, -ㄴ 應/可 ㄷ-65)

- ‘-ㄴ ㄷ-, -ㄴ 應/可 ㄷ-’는 《화엄》에서 각각 15회, 7회 사용되었으며, 이는 《화엄》의 전체 선어말어미에 대해 1.49%, 0.69%에 해당함. 더불어 ‘-ㄴ ㄷ-, -ㄴ 應/可 ㄷ-’는 석독구결 자료에서 각각 106회, 68회 사용되었는데 이중 14.15%, 10.29%가 《화엄》에서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음.⁶⁶⁾
- ‘-ㄴ ㄷ-’는 [당위]나 [가능]의 의미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로 알려져 있음. 그러나 고대 한국어에 대한 직관 없이 양태 의미를 판별하는 것은 어려운 일임. 이에 반드시 [당위]나 [가능]으로 해석되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다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음. 더불어 ‘-ㄴ-’ 등 다른 선어말어미 없이 홀로 나타나는 ‘-ㄴ ㄷ-’의 용례도 적어, 그것이 ‘-

64) 앞서 언급했듯, ‘-리-’의 유동적인 성격은 중세 한국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박부자(2006: 33)에서는 ‘-리-’와 ‘-더-’의 경우 [리+더]의 순으로 나타나며, ‘-더-’와 ‘-오-’는 [더+오]의 순서로 나타나고, ‘-리-’와 ‘-오-’는 [오+리]로 나타나기 때문에 ‘리 - 더 - 오 - 리’와 같이 ‘-리-’의 통합 위치가 하나 이상으로 나타난다고 한 바 있음. 더불어 박부자(2006: 275)를 따르면 ‘-거-’의 경우도 [거+리]와 [리+거]의 순서가 공존한다는 문제가 있음. 그런데 이들의 분포는 어미에 따라 일종의 상보적 분포를 보이는데, 특히 ‘-며’ 앞에서는 [리+거]의 순서만 나타난다고 보았음. 이는 석독구결과 다른 분포임.

65) 물론, ‘-ㄴ 應/可 ㄷ-’ 구성은 뒤에 어간 ‘-ㄷ-’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선어말어미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음. 그러나, ‘-ㄴ ㄷ-’과 비교하여 설명하기 위해 Sktot의 처리(‘-ㄴ 應/可 ㄷ-’도 선어말어미로 처리하였음)에 따라 이 부분에서 다루었음.

66) 이외에 ‘{以} ㄴ ㄷ-’ <화엄15:07>와 같이 ‘ㄴ’만 나타난 경우가 1건 있는데, ‘-ㄴ ㄷ-’로 포괄할 수 있는 예로 생각됨.

‘-ㅅㅅ-’가 표현하는 의미인지도 확인이 어려운 듯함. 그럼에도 대화 배경을 토대로 양태 의미를 추론해 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됨.⁶⁷⁾

- 관련된 형태로 ‘-ㅅㅅ 應/可ㅅㅅ-’가 제시된 바 있는데(남풍현 1993), ‘應’을 부독자로 보면 동일 구성처럼 보이고 의미 기능도 [당위], [가능]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함. 그러나, ‘應ㅅㅅ-’가 단독으로 용언 어간으로 사용된 경우가 있다는 점, ‘ㅅㅅ-’가 후행하는 구성이라는 점을 보았을 때 동일 문법 형태로 보기는 어려움(장윤희 2001).⁶⁸⁾
- 《화엄》에서 ‘-ㅅㅅㅅㅅ-’의 앞에 등장한 선어말어미로는 ‘-ㅅㅅ(乙)-, -ㅅㅅ-, -ㅅㅅ- -ㅅㅅ-’가 있으며 뒤에 등장한 선어말어미는 없음. 많은 경우 ‘-ㅅㅅ-’가 선행하는 것으로 보임. ‘-ㅅㅅ 應/可ㅅㅅ-’의 앞에 등장한 선어말어미로는 ‘-ㅅㅅ-, -ㅅㅅ-, -ㅅㅅ-, -ㅅㅅ-’가 있으며 뒤에 등장한 선어말어미는 없음.
- 한편, 양태 표현은 많은 경우 다의성을 지니는데, 예를 들어 현대 한국어의 ‘-을 수 있-’과 같은 우언적 구성은 일반적인 양태 부류인 인식 양태(epistemic modality)와 당위 양태(deontic modality), 동적 양태(dynamic modality)를 모두 표현할 수 있음.⁶⁹⁾ 박진호(2016: 150)에서도 향가와 석독구결의 ‘-ㅅㅅㅅㅅ-’가 주어가 1인칭이면 [의지], 2·3인칭이면 [당위/의무]나 [가능/능력]의 의미를 보인다고 향가의 예를 들어 설명한 바 있음. 아래에서는 《화엄》의 ‘-ㅅㅅㅅㅅ-’가 나타낼 수 있는 양태 의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음.

(12) ㄱ. 佛子여 만약 모든 菩薩이 그 마음을 훌륭하게 쓰면 [佛子 若諸菩薩 善用其心]

→ 곧 一切 勝妙功德을 얻을 것이어서 [卽獲一切 勝妙功德]⁷⁰⁾

→ 곧 모든 뛰어나고 묘한 공덕을 얻게 되며 [卽獲一切 勝妙功德]

→ 곧 모든 뛰어나고 묘한 공덕을 얻게 되며 [卽獲一切 勝妙功德]

(...)

→ 一切 法에 대해 自在하지 않음이 없으며 [於一切法 無不自在]

ㄴ. 而 衆生 第二導師 爲 衆生 第二導師 [而爲衆生 第二導師]

(衆生の 第二 導師가 됩니다(/될 수 있습니다))

<화엄02:12-17>

- (12)는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문장의 주어(보살)가 어떤 능력을 얻거나 어떤 상태에 다다른다는 의미로 해석해볼 수 있음. 이는 곧 동적 양태의 하나인 [기회(opportunity)]

67) 불경이라는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면 사실상 모든 부분을 양태적 의미를 적용해 해석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그러나, 모든 종결부에 동일한 표현이 온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의미 차이가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ㅅㅅㅅㅅ-’가 보이는 의미 기능을 추측해 볼 수는 있음.

68) 한편 ‘-ㅅㅅㅅㅅ-’는 중세 한국어에 ‘되얌다’ <삼강행실도 충:6ㄴ>로 그 흔적이 발견되며 ‘-ㅅㅅ 應/可ㅅㅅ-’는 ‘-ㅅㅅㅅㅅ 직하-’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음.

69) 아래는 전영철(2023: 111-112)의 예로 괄호 안의 배경은 이해를 돕기 위해 발제자가 추가한 것임. 물론 동적 양태는 동작주 중심의 양태로 양태 논의에서 배제하는 견해도 있음(박재연 2009). 더불어, Kratzer(1981), Portner(2009)에서는 이러한 양태 종류에 양상적 힘(modal force)을 도입해, [가능]과 [필연]으로 나눈 바 있는데, 술어의 문제로 오해를 살 수 있을 듯함. 이는 해당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의 정도로 거칠게 설명해 봄 직함(㉠ may - must의 차이).

ㄱ. 인식 양태: (주변 증거들로 내가 추론하기에) 철수가 집에 있을 수 있다.

ㄴ. 당위 양태: (특정 규칙에 의하면) 너는 지금 떠날 수 있다.

ㄷ. 동적 양태: (철수의 능력을 고려하면) 철수는 이길 수 있다.

70) 佛子 若 諸 菩薩 善 用 其 心 卽 獲 一切 勝妙功德 乙 獲 乙 牙 四

로 분류해 볼 만한 예문임.⁷¹⁾ 더불어 맥락상 단순한 가능성(possibility)보다는 어느정도 필연(necessity)에 가까운 강한 양상적 힘(modal force)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음.

- (13) ㄱ. 彼 諸 1 功 德 1 量 3 不 可 量 1 不 失 1 乙 我 1 今 1 力 乙 隨 3 少 分 今 乙
說 3 今 猶 入 1 大 海 3 乙 一 1 滴 3 乙 水 如 3 乙 1 乙 ソ ロ 乙 不 可 量 1 [彼諸功
德不可量 我今隨力說少分 猶如大海一滴水] <화엄09:02-03>

저 모든 功德은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거늘, 나는 지금 힘을 쫓아 일부분을 이끄기를 비유하면 大海의 한 방울의 물 같은 것을 말합니다(말하겠습니다/말할 수 있습니다).

- ㄷ. 信 1 能 支 最勝智 乙 増益ッナヲカ 信 1 能 支 一切 佛 乙 示現ッナヲセ | [信能増
益最勝智 信能示現一切佛] <화엄10:07>

信은 能히 最勝의 智慧를 增益할 것이며 信은 能히 一切 부처님을 보인다(/보일 수 있다).

- (13ㄱ)은 동작주가 1인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말하는 행위’에 대해 동적 양태의 하나인 [의지(Volition)]로도 파악할 수 있고, 동작주의 내적인 능력과 관련한 내용이므로 동적 양태의 하나인 [능력(Ability)]으로도 파악할 수도 있음.⁷²⁾ 한편 (13ㄴ)은 후자의 의미가 강하게 간취되는 예임.⁷³⁾

- (14) ㄱ. 菩薩은 (중생을) 위해

→ 나라니 재산이니 하는 것을 버리고 항상 出家하는 것을 좋아하여서 마음에
寂靜한 것을 나타내며 [現捨國財 常樂出家心寂靜]

→ 집은 貪愛가 얹힌 곳이니 衆生을 다 벗어나게 하고자 出家하여서 解脫을 얻어 모든 欲樂에 대해 받을 것 없는 것을 보이며 [家是貪愛繫縛所 欲使衆生悉免離 故示出家得解脫 於諸欲樂無所受]

$$\left(\begin{array}{c} \vdots \end{array} \right)$$

- 上. 諸¹ 仙^セ 行^{等} | ヲ¹ 乙³ 刀^悉 餘^ソ 無^リ ヲ^ナ 市^セ | [諸仙行等悉無餘]

71) 이때의 기회는 외적 상황에 따라 동작주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로 사용됨. 흔히 조건문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Kratzer(1981)에 따르면 “You can talk to her now.”은 동작주 자체의 내적인 능력과 관련해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 문맥에 따라 다른 해석도 가능함. 가령 우연히 한가한 시간에 마주쳤다든지 하는 외적인 상황이 뒷받침 되었을 때, 그러한 기회가 생겼다고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임. 한국어에서 “(이 위치에 서면) 바다를 볼 수 있어!”와 “나는 마라톤을 세 시간 안에 완주할 수 있어”의 의미가 약간 다르다는 것과 관련지어 이해해볼 직함. 따라서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양태 기술에서 중요한 일이 됨. 한편, 특정 목표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당위 양태 중 하나인 [목적(teleological)]로도 볼 수 있겠으나, 일반적인 양태 부류에서는 다루어지지 않는 것이므로 제외하였음).

72) [의지]가 보다 확연히 드러나는 구문으로는 다음의 것을 제시할 수 있음.

吾₁ 今₁ 先₃ 諸₁ 菩薩 {爲} ₃ 佛果_乙 護_ノ 今_セ 因緣_ニ 十地_セ 行_乙 護_ノ 今_セ 因緣_ニ _乙
 說_白 _リ _ウ _セ | [吾今先爲 諸菩薩說 護佛果因緣 護十地行因緣] <구인03:18-19> (나는 지금 우선
 모든菩薩을 위하여 佛果를 지킬 因緣이니 十地의 행을 지킬 인연이니 하는 것을 말하겠다.)

73) 한편 동일하게 ‘口乙(口)キセ’로 나타난 다음의 예에서는 후자의 의미가 보다 강하게 간취됨(물론 ‘不能’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十方七一切諸ヲ如來ニ悉ク共ニ稱揚スニテ盡ク不(ノ)能ク失(ス)ソニロクヤセシ[十方一切諸如來悉共稱揚不能盡] <화엄09:07> (十方의 一切 모든 如來가 다 함께 稱揚하시더라도 다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칭양하십니다(칭양할 수 있습니다)).

모든 聖人의 行 같은 것도 다 남음 없이 한다(/해야 한다).

<화엄18:15-18:19>

- (14)는 보살이 중생을 위해 할 일의 목록을 제시한 것으로, 현수품이 보살이 수행해야 할 여러 실천 항목들을 조목조목 열거하며, 그 실천이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깨달음으로 이끄는 길임을 밝히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이해되는 것임. 당위 양태의 [의무(Deontic)]로 해석해 볼 수 있겠음. 이처럼 《화엄》의 ‘-ㄷ-’는 주로 동적 양태와 당위 양태와 의미로 해석된다고 할 수 있겠음.⁷⁴⁾
- ‘-ㄷ 應/可-’는 ‘-ㄷ 應可-’, ‘-ㄷ 應-’, ‘-ㄷ 可-’로 나타날 수 있음.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음. 이들은 구성 요소인 한자 ‘應/可’의 의미와 관련해 양태적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함.

(15) ㄱ. 十方₃ 有₁ 所₇ 諸₁ 妙物₂ 無上尊₃ 奉獻₃ 應可₃ 應可₃ 乙 [十方所有諸妙物 應可奉獻無上尊] <화엄15:22> (十方에 있는 것의 모든 妙物이 無上尊께 奉獻해야 하거늘)

ㄴ. 善₃ 哉₁ 仁者₃ 應₃ 諦聽₃ 乙 [善哉仁者應諦聽] <화엄 09:02> (훌륭하시군요! 인자여. 자세히 들어야 합니다)

ㄷ. 彼₃ 功德₁ 邊際₁ 無₃ 稱量₃ 可₃ 稱量₃ 乙 [彼之功德無邊際 不可稱量無與等] <화엄09:05> (저의 功德은 邊際 없으니 稱量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함께 하여서 대적할 이 없다.)

[4] 기타: -ㄷ-, -ㄷ-

- ‘-ㄷ-, -ㄷ-’는 《화엄》에서 각각 25회, 1회 사용되었으며, 이는 《화엄》의 전체 선어말어미에 대해 2.48%, 0.1%에 해당함. 더불어 ‘-ㄷ-, -ㄷ-’은 석독구결 자료에서 각각 121회, 49회 사용되었는데 이중 20.66%, 2.04%가 《화엄》에서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박진호(1998: 152)에서는 ‘-ㄷ-’와 ‘-ㄷ-’이 대체로 하위자가 상위자에게 말할 때 나타난다는 점을 들어 상대높임법과 관련된 선어말어미라고 한 바 있음. 특히 ‘-ㄷ-’는 ‘-ㄷ 乙’로 나타나는데, 이때 ‘乙’의 개재가 없다면 ‘-ㄷ-’의 순서로 통합된다는 점을 제시한 바 있음.
- 한편, 선어말어미 위치에 나타나는 ‘-ㄷ-’ 중에는 연결어미나 동명사형에 결합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상대 높임보다는 양태나 서법 요소([조건], [원망], [능력])로 따로 떼어 본 바 있음(‘-ㄷ-’은 《화엄》에 나타나지 않아 제외).
- 《화엄》에서 ‘-ㄷ-’의 앞에 등장한 선어말어미로는 ‘-ㄷ-, -ㄷ-/乙’, 뒤에 등장한 선어말어미로는 ‘-ㄷ-, -ㄷ-, -ㄷ-’가 있음(‘-ㄷ-’은 1회만 등장하여 따로 제시하지 않음).

(16) ㄱ. 仁₃ 亦₃ 當₃ 於₁ 此₁ 會₃ 中₃ 修行₃ 勝₃ 功德₃ 乙 演暢₃ 乙 [仁亦當於此會中 演暢修行勝功德] <화엄08:24> (인자도 또한 반드시 이 모임의 중에서 하여서 修行하신 수승한 功德을 演暢하소서)

74) 《유가》를 함께 검토해본 결과 인식 양태로 해석되는 경우를 찾기 어려웠음. 앞으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듯함.

ㄴ. 善^니口^구1{哉^가} 仁者^{인자} 諦^디 聽^청 應^응 善哉^{선재} 仁者^{인자} 應^응 諦聽^{디청} <화엄
09:02> (훌륭하시군요! 인자여, 자세히 들어야 합니다)

(17) ㄱ. 佛子 菩薩 在家 當 願 衆生 知 家性空 免 其 逼迫
 ㄴ. 佛子 菩薩 在家 當 願 衆生 知 家性空 免 其 逼迫
 ㄷ. 佛子 菩薩 在家 當 願 衆生 知 家性空 免 其 逼迫
 ㄹ. 佛子 菩薩 在家 當 願 衆生 知 家性空 免 其 逼迫
 ㅁ. 佛子 菩薩 在家 當 願 衆生 知 家性空 免 其 逼迫
 ㅂ. 佛子 菩薩 在家 當 願 衆生 知 家性空 免 其 逼迫
 ㅅ. 佛子 菩薩 在家 當 願 衆生 知 家性空 免 其 逼迫
 ㅇ. 佛子 菩薩 在家 當 願 衆生 知 家性空 免 其 逼迫
 ㅈ. 佛子 菩薩 在家 當 願 衆生 知 家性空 免 其 逼迫
 ㅊ. 佛子 菩薩 在家 當 願 衆生 知 家性空 免 其 逼迫
 ㅋ. 佛子 菩薩 在家 當 願 衆生 知 家性空 免 其 逼迫
 ㆁ. 佛子 菩薩 在家 當 願 衆生 知 家性空 免 其 逼迫
 <화엄02:18-19> (佛子여 菩薩은 在家할 경우에 반드시 원하기를 衆生은 家性의 空한 것을 알아서 그 逼迫을 免하라 할 것이며)

ㄷ. 或^レ有^テナ^リ國土^リ法^乙知^ル不^ッナ^ル失^シ：{於}彼^リナ^リト{爲}シ^シ妙法藏^乙
說口ヒナ〔或有國土不知法 於彼爲說妙法藏〕 <화엄14:16> (혹 있다, 國土가
 法을 알지 못하는 것이. 거기에는 (중생을) 위해 묘한 法藏을 이룰 것이며)

- 정행품과 현수품의 첫 부분에는 보살 간의 대화가 나타남. 그중에서도 (16ㄱ)은 문수보살이 묻고 (16ㄴ)은 현수보살이 대답하는 부분에 해당함. 상호 간에 ‘-ㅁ-’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한편 (17)는 대화가 아닌 부분으로 상대 경어법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것들임. 연결어미 앞에 ‘-ㅁ-’가 결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18) 云何 {於}一切 衆生^セ 中^ノ 第一^ノ 爲 大 爲 勝 爲 最勝 爲 妙 爲 極妙 爲 上 爲 無上 爲 無等 爲 無等等 {爲} 入^ニ 乙^ニ ソ^ノ ナ^ヲ セ^ル コ [云何 於一切衆生中 爲第一 爲大 爲勝 爲最勝 爲妙 爲極妙 爲上 爲無上 爲無等 爲無等等] <화엄02:07-09> (어떻게 一切 衆生の 중에 第一이 되며 大가 되며 勝이 되며 最勝이 되며 妙가 되며 極妙가 되며 上이 되며 無上이 되며 無等이 되며 無等等이 되겠습니까?)

- (18)은 《화엄》에서 유일하게 ‘- ㄴ ㅅ ㅅ ㅅ-’이 사용된 부분임. ‘- ㄴ ㅅ ㅅ ㅅ-’은 대체로 화법 구문에서 사용된다는 특징을 지니는데, (18)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음. 한편, 장윤희(2002)에서는 후기중세 한국어의 의문형 ‘-니잇고’와 견주어 ‘- ㄴ ㅅ ㅅ ㅅ-’의 기능을 설명한 바 있는데, ‘- ㄴ ㅅ ㅅ ㅅ-’과 ‘-잇-’에 해당하는 형태소를 표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한 바 있음.⁷⁵⁾

5. 《화엄》의 전성어미⁷⁶⁾

5.1. 전성어미 분포의 통계적 개괄과 특수성 검토

- Skt2022 기준, 《화엄》에 등장한 전성어미 타입은 7종, 토큰은 717회에 해당.

75) 신라 향가에서도 ‘-古’가 의문 조사로서 설명 의문에 결합한 바 있는데, ‘去內尼叱古’ <제망매가>의 경우 ‘가느닛고’ 정도로 해독되는 것임. 관련하여, ‘二髑隱吾下於叱古’ <처용가>의 ‘於叱古’는 비록 연결어미로 처리하는 것이 중론이나 형태상 ‘-ㄴ ㅅ ㅅ ㅅ’과 관련지을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물론, 참조할 만한 이본인 『악학궤범』 「처용가」에 “아으 둘흔 내해어니와 둘흔 다향어니오”로 되어 있어 가능성은 적은 듯함.

76) 부사어의 구성 요소로서 Sktot에서는 M으로 다루나 Ec로도 볼 수 있는 형태로 ‘*5/5/ノ, 11*’가 있음. 이에 대해서는 《화언》의 어휘 부분에서 다른 것으로 보여 생각하였음.

- 아래는 전성어미의 목록과 빈도를 정리하고, 해당 표현이 전체 구결 문헌에 등장한 빈도와 전체 문헌 대비 《화엄》의 등장 비율을 제시한 것임.
- 이때 참조한 타 문헌은 《유가》, 《구인》, 《화소》, 《금광》에 해당함.
* 《자비》는 형태소 분석이 되어 있지 않아 제외.

[표 22] 《화엄》의 전성어미 출현 목록, 빈도

연번	구결자	화엄	전체문헌	비율(%)
1	ㄱ [Et]	403	1731	23.28
2	ㄴ [Et]	191	846	22.58
3	ㄷ [Et]	27	465	5.81
4	ㄴ [Et+N]	87	375	23.2
5	ㄴ [Et+N]	7	55	12.73
6	ㄷ [Et+V]	2	4	50
7	ㄴ [Et+V]	0	2	0
	총계	717	3478	20.62

- 《화엄》의 전성어미 중 동명사어미(혹은 동명사어미를 포함한 구성)으로 서로 비견되는 ‘- ㄱ, - ㄴ, - ㄷ, - ㄴ’만을 대상으로 할 때, 평균은 177, 표준편차는 143.07회에 해당함. 고른 분포를 보이지 않고 특정 전성어미에 집중된 사용을 보인다고 할 수 있음. 참고로 《화엄》을 제외한 다른 구결 문헌의 경우 평균은 677.25, 표준편차는 397.72에 해당함. 이들의 변동계수(CV)는 각각 80.83%와 58.73%로 《화엄》 문헌 내의 전성어미가 상대적으로 더 불균형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아래는 동일하게 Z-검정을 진행한 결과임.

[표 23] 《화엄》의 종결어미 출현 Z-검정 결과

구결자	화엄 비율(%)	타 문헌 비율(%)	Z-score
ㄱ [Et]	56.21	49.77	3.447*
ㄴ [Et]	26.64	24.32	1.4445
ㄷ [Et]	3.77	13.37	-7.5565*
ㄴ [Et+N]	12.13	10.78	1.1671
ㄴ [Et+N]	0.98	1.58	-1.2987
ㄷ [Et+V]	0.28	0.12	1.2951
ㄴ [Et+V]	0.00	0.06	0.6423

*: p<0.05

- 이 통계 결과를 보면 다른 문헌 대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선어말어미는 ‘- ㄱ’와 ‘- ㄷ’뿐임. 전자는 다른 구결 문헌에서보다 《화엄》에 더 많이 출현한 것이고, 후자는 《화엄》에서 비교적 적게 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음. 이외에 ‘- ㄴ, - ㄴ, - ㄴ, - ㄷ’는 다른 문헌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음.

5.2. <화엄>에 등장한 개별 전성어미

- 석독구결의 전성어미 중 ‘- ㄱ, ㄴ’과 ‘- ㄷ(ㄷ), - ㅅ(ㅅ)’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가 있었음. 일찍이 남풍현(1996ㄱ, ㄴ)에서 그 형태론적 구성에 대해 논의하고 결합하는 조사의 목록을 정리한 바 있으며, 황국정(2000)에서는 피수식명사가 의존명사인 경우에는 ‘- ㄱ, - ㄴ’만 올 수 있다는 분포적 차이를 밝혀낸 바 있음.
- 이 중 ‘- ㄱ, - ㄴ’의 경우 동명사어미로 볼 수 있는 것이며, ‘- ㅅ’의 경우 동명사어미 ‘- ㅅ’에 의존명사 ‘ㄴ’이 결합한 구성으로 볼 만한 것임.⁷⁷⁾ 문제는 ‘- ㄷ’인데, 이 구결자의 독음이 [ㄷ]로 추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존명사 ‘ㅇ’를 상정하기란 어렵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음. 남풍현(1996ㄴ)에서는 대체로 속격조사 ‘ㄷ’의 앞에 나타난다는 점에서 ‘- ㄱ’의 보충법적 이형태로 파악한 바 있음(물론 그 이전의 이승재(1993)에서도 동명사어미로 파악한 바 있음). 반면, 박진호(1998)에서는 ‘- ㄱ ㄷ’이 발견된다는 점에서 관형형 ‘- ㄱ’의 수식을 받는 의존명사 ‘ㄷ’로 파악한 바 있음. 사실 이러한 두 견해는 층위가 달라 양립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됨. 관련하여, 이병기(2019), 김태우(2020)에서는 전자, 허인영(2019), 장윤희(2021)에서는 후자의 의견이 돋보임.
- Skt022에서는 전자를 따라 ‘- ㄱ, - ㄴ, - ㄷ’는 전성어미(Et)로 처리하였으며, ‘- ㅅ’는 전성어미와 의존명사의 결합(Et+N)으로 처리하였음. 이외에 ‘ㅅ’의 경우도 선어말어미 외에 전성어미와 의존명사의 결합으로 처리된 것들이 있었음. 각각의 등장 패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1] - ㅅ

- 《화엄》에서 동명사어미 ‘- ㅅ’의 앞에 오는 선어말어미로는 ‘- ㄴ, - ㄷ, - ㅅ/ㅅ, - ㅅ, - ㅅ, - ㅅ, - ㅅ, - ㅅ, - ㅅ’가 있으며, 뒤에 결합하는 것으로는 의존명사(ㅅ, ㅅ)나 조사(ㄷ, ㅅ)를 포함하는 구성이 있다고 정리해 볼 수 있음.⁷⁸⁾ 물론, ‘- ㄴ ㅅ’와 같은 구성이 발견되는데, 앞선 2장에서 남풍현(1996ㄱ)의 견해를 좇아 ‘- ㅅ ㅅ’ 관련된 형태로 추측해 본 바 있었음.

[표 24] 《화엄》에 등장하는 ‘- ㅅ’의 패턴

연번	구결자 연쇄	앞 요소	뒤 요소	빈도
1	ㅅ	어절 시작	어절 끝	42
2	ㅅ ㅅ	ㅅ	어절 끝	26
3	ㅅ ㅅ	ㅅ	어절 끝	25
4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어절 끝	10
5	ㅅ ㅅ ㅅ ㅅ	ㅅ	ㅅ ㅅ	10
6	ㅅ ㅅ	ㅅ	어절 끝	9
7	ㅅ ㅅ ㅅ ㅅ	ㅅ	ㅅ ㅅ	7
8	ㅅ ㅅ	ㅅ	어절 끝	6
9	ㅅ ㅅ ㅅ	ㅅ ㅅ	어절 끝	5
10	ㅅ ㅅ ㅅ ㅅ	ㅅ ㅅ ㅅ	어절 끝	5

77) 물론 ‘ㅅ’에 주격조사 ‘ㅅ’이 결합한 적이 없어서 ‘ㅅ’이 주어 자리에 사용될 때 주격조사를 포함하는지 여부를 확실히 알기는 어려움. 이는 석독구결에서 ‘ㅅ ㅅ’ 구성이 나타나 않는다는 점과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것임.

78) 본고에서는 공백을 두고 입력된 요소들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음.

11	而尸	而	어절 끝	3
12	ノ彳尸	ノ彳	어절 끝	2
13	ㄱノ尸	ㄱノ	어절 끝	2
14	人ッ尸入 ㄴ	人ッ	入 ㄴ	2
15	リ尸入乙ッナㄱリカ	リ	入乙ッナㄱリカ	2
16	リ尸入乙ッカ	リ	入乙ッ카	2
17	ㄴッ尸カッカ	ㄴッ	カッ카	2
18	尸カッ카	어절 시작	カッ카	2
19	ッ彳ノ尸	ッ彳ノ	어절 끝	1
20	口尸入ㄱ	口	入ㄱ	1
21	ノ尸矢十	ノ	矢十	1
22	造尸	造	어절 끝	1
23	リ矢ノ尸	リ矢ノ	어절 끝	1
24	人ッニ尸入 ㄴ	人ッニ	入 ㄴ	1
25	ニ尸	ニ	어절 끝	1
26	ㄴ尸	ㄴ	어절 끝	1
27	リ尸入乙ッ카ッナㄱリカ	リ	入乙ッ카ッナㄱ리카	1
28	ッ彳尸入乙	ッ彳	入乙	1
29	ㄱ尸入乙	ㄱ	入乙	1
30	ㄴノ尸乙	ㄴノ	乙	1
31	直尸	直	어절 끝	1
32	ッナ尸矢ㄴ	ッナ	矢ㄴ	1
33	セッ尸	セッ	어절 끝	1
34	ノ尸カ	ノ	카	1
35	乙ッ尸	乙ッ	어절 끝	1
36	支ッ尸入乙	支ッ	入乙	1
37	ッ尸カッナㄴ	ッ	카ッ나ㄴ	1
38	支ノ尸入乙	支ノ	入乙	1
39	リ尸入乙ッナ카	リ	入乙ッ나카	1
40	ㄴノ彳尸	ㄴノ彳	어절 끝	1
41	斗尸	斗	어절 끝	1
42	ㄴ尸カッ카	ㄴ	카ッ카	1
43	火セハ尸入ㄱ	火セハ	入ㄱ	1
44	ッㄴㄱ尸	ッㄴㄱ	어절 끝	1
45	尸カッ카ッㄴ	어절 시작	카ッ카ㄴ	1
46	ナ尸入乙	ナ	入乙	1

[2] - 1

- 《화엄》에서 동명사어미 ‘-ㄱ’의 앞에 오는 선어말어미로는 ‘-노-, -ㄱ-, -ㄴ-, -而-, -自-, -ト-, -ㄱ-, -ㄴ-, -ナ-, -口(乙)-, -彳-’가 있으며, 뒤에 결합하는 것으로는 의존명사(ㄴ, 人, 矢 彳), 조사(乙, 乙 ㄴ, 乙 ㄴ 카, ㄴ+, ㄴ), ‘-ㄴ:’(‘-ㄱ:’ 구성의 일부)를 포함하는 구성이 있다고 정리해 볼 수 있음.

- ‘- 尸’에 비해 확연히 많은 패턴을 확인할 수 있음.

[표 25] 《화엄》에 등장하는 ‘- 尸’의 패턴

연번	구결자 연쇄	앞 요소	뒤 요소	빈도
1	尸	어절 시작	어절 끝	118
2	ッ 尸	ッ	어절 끝	48
3	ッ ㄱ 尸 + 尸	ッ ㄱ	+ 尸	29
4	ㄴ 尸 + 尸	ㄴ	+ 尸	14
5	ㄷ 尸 + 尸	ㄷ	+ 尸	12
6	ッ ㄱ 尸	ッ ㄱ	어절 끝	10
7	ノ 尸 入 乙	ノ	入 乙	7
8	ッ 尸 矢 ㄴ	ッ	矢 ㄴ	6
9	ッ 尸 乙	ッ	乙	5
10	ッ 尸	ッ	어절 끝	5
11	尸 乙	어절 시작	乙	4
12	ト ㄱ 尸 入 乙	ト ㄱ	入 乙	4
13	ッ 白 ㄱ 尸 + 尸	ッ 白 ㄱ	+ 尸	4
14	ㄴ 尸	ㄴ	어절 끝	4
15	ッ 尸 乙 ㄴ	ッ	乙 ㄴ	3
16	ノ ッ 尸	ノ ッ	어절 끝	3
17	尸 ㄴ +	어절 시작	ㄴ +	3
18	セ ッ 尸	セ ッ	어절 끝	3
19	ノ 尸	ノ	어절 끝	3
20	ッ ナ 尸 ㄴ ㄱ	ッ ナ	ㄴ ㄱ	3
21	ㄷ ッ 尸	ㄷ ッ	어절 끝	3
22	ㄴ 세 ッ 尸	ㄴ 세 ッ	어절 끝	2
23	세 ッ 尸 乙	세 ッ	乙	2
24	ッ 尸 入 乙	ッ	入 乙	2
25	ㄴ ㄱ 尸 + 尸	ㄴ ㄱ	+ 尸	2
26	ㄷ ッ 尸 乙 ッ ㄴ 乙 ㄱ ㄴ 세	ㄷ ッ	乙 ッ ㄴ 乙 ㄱ ㄴ 세	2
27	ㄴ 尸 入 乙 ッ 나 尸 ㄴ ㄱ	ㄴ 尸 入 乙 ッ 나	ㄴ ㄱ	2
28	ㄴ ㄴ ㄱ 尸 入 乙	ㄴ ㄴ ㄱ	入 乙	2
29	ㄴ 尸	ㄴ	어절 끝	2
30	ッ ㄴ ㄱ 尸 入 乙	ッ ㄴ ㄱ	入 乙	2
31	矢 ㄴ 尸 入 乙	矢 ㄴ	入 乙	2
32	尸 ㄴ 세	어절 시작	ㄴ 세	2
33	ㄱ 尸 入 乙	ㄱ	入 乙	2
34	ト 尸 矢 ㄴ	ト	矢 ㄴ	2
35	ㄷ ッ 尸 矢 ㄴ	ㄷ ッ	矢 ㄴ	2
36	ㄴ 尸 入 乙	ㄴ	入 乙	2
37	세 노 尸	세 노	어절 끝	2
38	ッ 尸 乙	ッ	乙	2
39	ッ ト ㄱ 尸 入 乙	ッ ト ㄱ	入 乙	2

구결학회 월례강독회

40	川又 1 矢 ㄴ	川 又	矢 ㄴ	2
41	ナ 1 入 乙 ㄴ	ナ	入 乙 ㄴ	1
42	ッ 1 +	ッ	+	1
43	ッ 1 + 1	ッ	+ 1	1
44	斗 ㄱ 1 + 1	斗 ㄱ	+ 1	1
45	ッ 𐄀 ㄱ 1 ㄹ +	ッ 𐄀 ㄱ	ㄹ +	1
46	ッ 𐄀 ㄱ ㄱ 1	ッ 𐄀 ㄱ ㄱ	어절 끝	1
47	セ ㄱ 1 + 1	セ ㄱ	+ 1	1
48	乙 ㄱ ㄱ 1	乙 ㄱ ㄱ	어절 끝	1
49	ッ ト 1 乙	ッ ト	乙	1
50	セ 1 乙	セ	乙	1
51	1 入 乙	어절 시작	入 乙	1
52	ジ ㄱ ㄱ 1 + 1	ジ ㄱ ㄱ	+ 1	1
53	ㄱ 1	ㄱ	어절 끝	1
54	ㄴ ノ 1 入 乙	ㄴ ノ	入 乙	1
55	𐄀 ㄱ 1	𐄀 ㄱ	어절 끝	1
56	白 ㄴ 1 + 1	白 ㄴ	+ 1	1
57	ッ 白 ㄱ 1	ッ 白 ㄱ	어절 끝	1
58	白 ㄱ 1	白 ㄱ	어절 끝	1
59	ッ 1 矢	ッ	矢	1
60	乙 ㄱ ㄱ ㄱ 1 + 1	乙 ㄱ ㄱ ㄱ	+ 1	1
61	ㄴ 1 ㄴ ㄴ	ㄴ	ㄴ ㄴ	1
62	𐄀 ㄱ 1 ㄷ ㄷ	𐄀 ㄱ	ㄷ ㄷ	1
63	ㄴ ㄷ 乙 ㄱ 1 ㄴ 四	ㄴ ㄷ 乙 ㄱ	ㄴ 四	1
64	ッ 𐄀 ㄱ 1 ㄷ ㄷ	ッ 𐄀 ㄱ	ㄷ ㄷ	1
65	ㄷ ナ 1	ㄷ ナ	어절 끝	1
66	ㄱ 1	ㄱ	어절 끝	1
67	支 ㄴ 1 乙 ㄴ ㄱ	支 ㄴ	乙 ㄴ ㄱ	1
68	ッ 又 1 入 1	ッ 又	入 1	1
69	ㄴ ナ 1 ㄴ	ㄴ ナ	ㄴ	1
70	ッ ㄴ ㄴ 1 ㄷ 1	ッ ㄴ ㄴ	ㄷ 1	1
71	ㄴ ㄱ ㄴ ナ 1 入 ㄴ	ㄴ ㄱ ㄴ ナ	入 ㄴ	1
72	ㄴ ナ 1 ㄴ	ㄴ ナ	ㄴ	1
73	入 乙 ㄴ ㄷ ナ 1	入 乙 ㄴ ㄷ ナ	어절 끝	1
74	ナ 1 ㄴ ㄱ	ナ	ㄴ ㄱ	1
75	入 乙 ㄴ ナ 1 ㄴ ㄱ	入 乙 ㄴ ナ	ㄴ ㄱ	1
76	ㄱ 牙 1 矢	ㄱ 牙	矢	1
77	支 ㄴ 1 ㄴ	支 ㄴ	ㄴ	1
78	ㄴ 尸 入 乙 ㄴ ㄱ ㄴ ナ 1 ㄴ ㄱ	ㄴ 尸 入 乙 ㄴ ㄱ ㄴ ナ	ㄴ ㄱ	1
79	ㄱ ㄴ 1	ㄱ ㄴ	어절 끝	1
80	ッ 𐄀 ト ㄱ 1 入 乙 ㄴ ㄷ 尸 入 1	ッ 𐄀 ト ㄱ	入 乙 ㄴ ㄷ 尸 入 1	1
81	𐄀 ㄱ 1 矢 ㄴ	𐄀 ㄱ	矢 ㄴ	1
82	𐄀 ㄴ ナ 1 ㄴ	𐄀 ㄴ ナ	ㄴ	1

83	丨ッ丨リミノ牙ヒ丨入乙	丨ッ	リミノ牙ヒ丨入乙	1
84	丨ッ丨リミノ牙ヒ丨入乙	丨ッ丨リミノ牙ヒ	入乙	1
85	ギトギ丨入丨	ギトギ	入丨	1
86	ギットギ丨入丨	ギットギ	入丨	1
87	ナハ而ギ丨矢ミ	ナハ而ギ	矢ミ	1
88	而ギ丨矢ミ	而ギ	矢ミ	1
89	ミッナト丨矢ミ	ミッナト	矢ミ	1
90	人ッ去丨丨十丨	人ッ去	丨十丨	1
91	支ッ丨乙	支ッ	乙	1
92	リ而丨乙	リ而	乙	1
93	ッ丨リミ	ッ	リミ	1
94	ジッ丨リミ	ジッ	リミ	1
95	ジッ丨リミノ今乙	ジッ	リミノ今乙	1
96	矢丨ミ	矢	ミ	1
97	ギナ丨ミ	ギナ	ミ	1
98	ムリト丨ミ	ムリト	ミ	1
99	丨ッ丨ヲ	丨ッ	ヲ	1
100	ットギ丨	ットギ	어절 끝	1
101	丨矢	어절 시작	矢	1
102	ッ畚ットギ丨入乙	ッ畚ットギ	入乙	1
103	丨ッ丨乙ヨカ	丨ッ	乙ヨカ	1
104	丨ミ	어절 시작	ミ	1
105	ッ畚ッナ丨リミ	ッ畚ッナ	리미	1
106	ナ丨入ム	ナ	入ム	1
107	ッナ丨リミ	ッナ	리미	1
108	斗而ギ丨	斗而ギ	어절 끝	1
109	ッ去丨ミ	ッ去	ミ	1
110	リノ丨入乙	リノ	入乙	1
111	ギ丨入乙ッヨ	ギ	入乙ッヨ	1
112	リギ丨	리ギ	어절 끝	1
113	ッナ丨入ム	ッナ	入ム	1

[3] -ㄷ

- 《화엄》에서 동명어미와 의존명사의 통합 구성인 ‘-ㄷ’의 앞에 오는 선어말어미로는 ‘-로-, -하-’가 있으며, 뒤에 결합하는 것은 대체로 속격조사 ‘ㄷ’임. 이외에도 보조사 ‘丨’과 ‘-火セハ尸入丨’ 구성이 1건씩 나타났음. 앞서 언급했듯 앞에는 동명사어미 ‘-丨’이 올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해 둘 수 있음(물론 두음 첨기로 보는 견해도 있음).

[표 26] 《화엄》에 등장하는 ‘-ㄷ’의 패턴

연번	구결자 연쇄	앞 요소	뒤 요소	빈도
1	ッㄷセ	ッ	セ	13
2	丨ㄷセ	丨	セ	2
3	ノㄷセ	ノ	セ	2
4	支ッㄷセ	支ッ	セ	1

구결학회 월례강독회

5	斗 七 七	斗	七	1
6	𐄂 𐄂 𐄂 七 七	𐄂 𐄂 𐄂	七	1
7	𐄂 𐄂 𐄂 𐄂 七 七	𐄂 𐄂 𐄂 𐄂	七	1
8	七 七 七	七	七	1
9	𐄂 𐄂 七	𐄂 𐄂	어절 끝	1
10	𐄂 𐄂 𐄂 𐄂 七 𐄂	𐄂 𐄂 𐄂 𐄂	𐄂	1
11	𐄂 𐄂 𐄂 𐄂 七 火 七 八 尸 入 𐄂	𐄂 𐄂 𐄂 𐄂	火 七 八 尸 入 𐄂	1
12	𐄂 𐄂 七 七	𐄂 𐄂	七	1
13	𐄂 𐄂 七 七	𐄂 𐄂	七	1

[4] 一令

- 《화엄》에서 동명어미와 의존명사의 통합 구성인 ‘-스’의 앞에 오는 선어말어미로는 ‘-노-, -이-, -하-, -자-, -고-, -나-, -로-’가 있으며, 뒤에 결합하는 것으로는 조사(乙, 七, 七, 七, 一, 口)와 ‘-시’(‘-스시’ 구성의 일부)를 포함하는 구성이 있다고 정리해 볼 수 있음.

[표 27] 《화엄》에 등장하는 ‘-ㅅ’의 패턴

연번	구결자 연쇄	앞 요소	뒤 요소	빈도
1	ミノ今乙	ミノ	乙	21
2	ノ今セ	ノ	セ	12
3	ッ今セ	ッ	セ	7
4	ㄱ今	ㄱ	어절 끝	6
5	ミノ今ㄱ	ミノ	ㄱ	5
6	ミノ今ㄱ+	ミノ	ㄱ+	4
7	ミノ今セ	ミノ	セ	4
8	ッナ今ミ	ッナ	ミ	3
9	ッㄱ今	ッㄱ	어절 끝	2
10	人今乙	人	乙	2
11	ミノ今	ミノ	어절 끝	2
12	ミノ今ㄱ	ミノ	ㄱ	2
13	ッ自ㄱ今セ	ッ自ㄱ	セ	2
14	ㄱッ今セ	ㄱッ	セ	2
15	ㄱ自今セ	ㄱ自	セ	1
16	尸丁ノ今口ッㄱ尸入ㄱ	尸丁ノ	口ッㄱ尸入ㄱ	1
17	ㄱッㄱ今	ㄱッㄱ	어절 끝	1
18	ㄱ今セ	ㄱ	セ	1
19	ㄱ今ㄱ+	ㄱ	ㄱ+	1
20	口今	口	어절 끝	1
21	ㄱッㄱㄱミノ今乙	ㄱッㄱㄱミノ	乙	1
22	ッナ今乙	ッナ	乙	1
23	ㄱ自今セ	ㄱ自	セ	1
24	ッㄱッ今乙	ッㄱッ	乙	1
25	ッナ今ㄱ	ッナ	ㄱ	1
26	ㄱ失ッㄱ今	ㄱ失ッㄱ	어절 끝	1

[5] 기타

- ‘-ㅁ’ 중에도 ‘Et+N’으로 분류된 것들이 있음.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음.

- (1) ㄱ. 則彼ヲ所行¹與セツコホ等ク今無²諸³天⁴: 世人⁵:ノオ能知⁶知⁷今莫⁸
ナシセ⁹。 [則彼所行無與等 諸天世人莫能知] <화엄14:08> (곧 저의 행한 것은
함께 하여서 대적할 이 없어 모든 천이니世人이니 할 이가 능히 알 이가 없다.)
- ㄴ. 若セ有¹ナ²出離セ法乙識ッ尸不(ノ)ッカ解脫ッコ誼憤乙離支ノ尸入乙
求尸 不(ノ)ッナオ: [若有不識出離法 不求解脫離誼憤] <화엄18:14> (만약
있다, 出離의 법을 알지 못하며 解脫해서 소란을 여의는 것을 구하지 못함이.)

- (1ㄱ)와 같이 주어 명사구의 끝 요소를 표기하는 경우, 동명사어미에 의존명사가 결합한 구성 혹은 다시 해당 구성에 주격조사 ‘-이’가 결합한 구성일 가능성이 있는 것들임. 문현수(2020: 9)에서는 ‘-ㅁ’가 다른 격조사와 함께 사용된 일이 없으므로 주격조사를 포함한 구성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한 바 있음.
- (1ㄴ)과 같이 도치구문에서 ‘-ㅁ:’ 구성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문현수(2020: 10)에 의하면 이는 항상 주어 명사구에만 사용된다는 특징을 지닌다고 하였음. 비록 ‘:’의 정확한 정체를 알기는 어려우나, ‘-ㅁ’는 동명사어미에 의존명사 ‘이’가 결합한 구성 혹은 해당 구성에 다시 주격조사가 결합한 구성으로 파악해 볼 수 있을 듯함.⁷⁹⁾
- 한편, 석독구결 전체에 ‘ㅁ[Et+J]’이 아래 (1ㄱ)과 같이 1건 등장하는데, ‘ㅁ’를 주격조사가 포함된 구성으로 본 듯함. 그러나, 거의 동일한 구성인 (2ㄴ)에서는 [Et+N]으로 처리한 것을 고려하면 동일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2) ㄱ. 量 無¹ 智慧セ 光明² 三昧³ 傾動⁴ ノ⁵ 可⁶セ⁷ ヲ⁸ ヲ⁹ 不¹⁰ 矢¹¹ ヒ¹² 能¹³ 矣¹⁴ 摧伏¹⁵ ヲ¹⁶ ヌ
[今Et+J] 無¹ 聞持陀羅尼² ス³ リ {爲⁴} シ⁵ ノ 本⁶ リ 入⁷ 乙⁸ 作⁹ ヲ¹⁰ ヌ¹¹ 入¹² 故¹³ ノ [無量智
 慧 光明三昧 不可傾動 無能摧伏 聞持陀羅尼 爲作本故] <금광07:02-03> (한
 량없는 지혜의 광명에 삼매가 傾動할 수 없는 것과 능히 摧伏시킬 이 없는 聞
 持陀羅尼가 위하여 근본이 되는 까닭으로,)
- ㄴ. 或 無常¹ 衆苦² ノ³ 可⁴セ⁵ 門⁶ 以⁷ 或 我⁸ 壽者⁹ ノ¹⁰ 可¹¹セ¹² [今Et+N] 無¹ 히² 세³ 門⁴ 以⁵
 [或以無常衆苦門 或以無我壽者門] <화엄17:14> (혹은 無常이니 衆苦니 하는
 문으로써 하기도 하며 혹은 나이니 긴 수명이니 하는 것 없는 門으로써 하기도
 하며)

- ‘ㅂ [Et+V]’는 석독구결에 총 4건 등장하는데, 그중 3건이 《화엄》에 해당함.

- (3) ㄱ. 若 如來尸體_リ 常住_ッ 卽_チ 見_ル 白_ク 尸入_リ 則 能_ク 法_ヲ 永_ク 滅_ス 卽_チ 不失_ハ 卽_チ 入_リ 知_ル 也_ナ [若見如來體常住 則能知法永不滅] <화엄11:15> (만약
如來의 몸이 常住하시는 것을 보면 곧 能히 法이 영원히 滅하지 않는 것임을
알 것이며)
- ㄴ. 若 能_ク 法_ヲ 永_ク 滅_ス 卽_チ 不失_ハ 卽_チ 入_리 知_ル 尸入_リ 則 得_ル 辯_才 卽_チ 障礙_ス
尸 無_モ 也_ナ [若能知法永不滅 則得辯才無障礙] <화엄11:16> (만약 能히 法

79) 한편, 《유가》에는 ‘ $\text{ㄷ} \text{ㅅ} \text{ㅅ}$ ’과 같은 구성으로 자주 출현하는데, 이것도 ‘Et+N’으로 분류되어 있음. 《화엄》에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다루지 않았음.

이 영원히 滅하지 않는 것임을 알면 곧 능히 辯才가 막힘 없을 것이며)
二. 乃_シ 至_リ 摩睺羅伽 {等} ノ_リ ヲ_レ ヲ_レ ヲ_レ ヲ_レ ヲ_レ 現_ス 其_ノ 樂_ヲ 所_ニ 隨_フ 悉_ク
見_ル 令_テ 見_ル 令_テ 見_ル 令_テ 見_ル 令_テ 見_ル [乃至摩睺羅伽等 隨其所樂悉令見] <화엄14:24> (내지 摩
睺羅伽 같은 이니 할 것임을 나타내며 그 좋아하는 것을 좇아 다 보이게 하며)

- 이외에 ‘ㄹEt+V’는 석독구결에 총 2건 등장하나 모두 《금광》의 예에 해당하므로 여기에서 다루지 않겠음.

6. 결론

(생략)

참고문헌

- 김두찬(2000), 『華嚴經十四』 口訣 機能體系, 『구결연구』 6, 구결학회, 343-449.
- 김영옥(1995), 『문법형태의 역사적 연구』, 박이정.
- 김영옥(1996), 14세기 문법형태 ‘-거/어-’의 교체에 대하여-기림사본 <능엄경>을 중심으로-, 『한글』 233, 한글학회, 69-115.
- 김영옥(1999), 전기 중세국어의 시제(時相)과 서법(敍法), 『先淸語文』 27,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719-751.
- 김지오(2012), 釋讀口訣에 나타난 ‘-은여/을여’에 대하여, 『동악어문학』 58, 동악어문학회, 217-242.
- 김지오(2019), 고대국어 연결어미 연구의 현황과 과제, 『구결연구』 43, 구결학회, 55-87.
- 김태우(2020), 명사 수식 구문의 통시적 변화, 『국어학』 96, 국어학회, 219-256.
- 남권희(1996), 高麗 口訣資料 『大方廣佛華嚴經』 卷第十四의 書誌的 分析, 『구결연구』 1, 구결학회, 377-402.
- 남권희(1997), 차자 표기 자료의 서지, 『새국어생활』 7(4), 국립국어연구원, 147-194.
- 남권희(2002), 『고려시대 기록문화 연구』, 청주고인쇄박물관.
- 남풍현(1994), 『新譯華嚴經』 卷14의 高麗時代 釋讀口訣, 『國文學論集』 14,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28.
- 남풍현(1996ㄱ), 高麗時代 釋讀口訣의 ‘ㄹ/ㄴ’에 대한 考察, 『구결연구』 1, 구결학회, 11-44.
- 남풍현(1996ㄴ), 고려시대 석독구결의 동명사어미 ‘-ㄹ/ㄴ’에 대한 고찰, 『국어학』 28, 국어학회, 1-48.
- 남풍현(2000), 條件法 連結語尾 ‘-면’의 發達, 『口訣研究』 6, 口訣學會, 11-40.
- 남풍현(2018), 「석독구결의 서술격 조사 ‘亦/여’에 대하여」, 구결학회 54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전기량(2018), 『중세 한국어 ‘-여’ 구문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문숙영(2019), 과연 한국어의 종속접속절은 부사절인가, 『언어학』 44-3, 한국언어학회,

489-532.

- 문현수(2019), 석독구결의 능력부정에 대한 연구: ‘不 ㄴ’의 특성과 장형 능력부정 구문의 어순을 중심으로, 『국어사연구』 28, 국어사학회, 269-298.
- 문현수(2017), 『주본 『화엄경』 점토석독구결의 해독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문현수(2018), ㄱ 약화 표기를 통해 살펴본 구결자 ‘良’의 원자(原字) 및 음가(音價) 연구, 『민족문화연구』 8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07-135.
- 문현수(2020ㄱ), <구역인왕경>과 <자비도량참법>의 석독구결 현토 양상에 대하여, 『국어학』 93, 국어학회, 123-155.
- 문현수(2020ㄴ) 구결자 ‘ㄹ’과 ‘ㅅ’가 나타내는 형태적 구성에 대하여, 『동양학』 79,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16.
- 문현수(2023), 형태소 표기 중심의 석독구결과 음성 표기 중심의 음독구결, 『어문논집』 98, 민족어문학회, 213-244.
- 박부자(2006), 『한국어 선어말어미 통합순서의 역사적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 박재연(2009), ‘주어 지향적 양태’와 관련한 몇 문제, 『한국어학』 44, 한국어학회, 1-25.
- 박진호(1998), 고대 국어 문법,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 고대 국어』, 국립국어연구원, 121-205.
- 박진호(2003), 周本 『華嚴經』 卷第36 點吐口訣의 解讀, 『구결연구』 11, 구결학회, 211-247.
- 박진호(2008), 鄉歌 解讀과 國語 文法史, 『국어학』 51, 국어학회, 313-338.
- 박진호(2015), 보조사의 역사적 연구, 『국어학』 73, 국어학회, 375-435.
- 박진호(2016), 신라의 언어 - 문법, 『신라의 언어와 문학』 16,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120-162.
- 백두현(1993), 高麗本 華嚴經의 口訣字 支와 矢 그 讀音과 문법기능, 『어문론총』 27, 경북언어학회, 125-153.
- 백두현(1995), 高麗本 華嚴經의 口訣字 ‘+’에 관한 고찰, 『國語史와 借字表記(태속남풍헌 선생회갑기념논총)』, 태학사.
- 백두현(1997), 高麗 時對 釋讀口訣에 나타난 선어말어미의 계열관계와 통합관계, 『구결연구』 2, 구결학회, 27-95.
- 심재기·이승재(1998), 『華嚴經』 口訣의 表記法과 한글 轉寫, 『구결연구』 3, 구결학회, 29-111.
- 안대현(2008), 주본 화엄경 점토석독구결의 해독(2) -12와 14 위치 및 51 및 55 위치 이외의 점토들에 대하여, 『國語學』 51, 國語學會, 195-227.
- 이병기(2014), 구결 자료의 어휘, 『구결연구』 33, 구결학회, 23-61.
- 이병기(2019), 고대국어 동명사 어미의 문법적 특징과 과제 -석독구결 자료를 중심으로-, 『구결연구』 43, 구결학회, 89-125.
- 이승재(1992), 『高麗時代의 吏讀(국어학총서 17)』, 태학사.
- 이승재(1993), 高麗本 華嚴經의 口訣字에 대하여, 『國語學』 23, 국어학회, 325-379.
- 이승재(1995), 동명사어미의 역사적 변화, 『국어사와 차자표기』, 태학사.
- 이 용(2003), 『연결 어미의 형성에 관한 연구』, 역락.
- 이 용(2007), <恒順衆生歌>의 解讀에 對하여, 『구결연구』 18, 구결학회, 173-205.

- 이 용(2010), 點吐釋讀口訣 資料의 否定法, 『구결연구』 24, 구결학회, 97-131.
- 이 용(2013), 지정사의 개념과 차자표기 지정문자설의 문제에 대하여, 『구결연구』 30, 구결학회, 107-138.
- 이현희(1982), 國語 疑問法에 대한 通時的 研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현희(1994), 『中世國語構文研究』, 신구문화사.
- 이흥구(2022), 연결어미 ‘-나’의 의미 기능에 대한 통시적 연구, 2022년 겨울 구결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자료집.
- 장경준(2007),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의 ‘지시선’에 관한 補論, 『국어학』 51, 국어학회, 175-194.
- 장경준·오민석·허인영·문현수(2015), 『『유가사지론』 권 20의 석독구결 역주』, 역락.
- 장요한(2010), 『15세기 국어 접속문의 통사와 의미(국어학총서 67)』, 태학사.
- 장윤희(2002), 『중세국어 종결어미 연구(국어학총서 41)』, 태학사.
- 장윤희(2004), 석독구결 및 그 자료의 개관, 『구결연구』 12, 구결학회, 47-80.
- 장윤희(2010), 中世國語 連結語尾 形成 文法史 - ‘-오디, -은디, -은대’를 중심으로 -, 『어문연구』, 한국어문연구회,
- 전영철(2023), 『한국어의 의미와 의미이론』, 박이정.
- 정재영(1995), 전기중세국어의 의문법, 『국어학』 25, 국어학회, 221-265.
- 정재영(1996), 『존재명사 ‘드’의 문법사(국어학총서 23)』, 태학사.
- 정재영(1997), ‘-오-’의 문법화, 『국어사연구』, 국어사연구회.
- 정재영(2000), 고대국어 선어말어미 ‘-ㄴ-’와 그 변화: 선어말어미 ‘-內-’, ‘-飛(ㄷ)-’와 ‘-臥(卜)-’를 중심으로, 『형태론』 2-1, 형태론, 73-106.
- 정재영(2006), 韓國의 口訣, 『구결연구』 17, 구결학회, 125-185.
- 최성규(2019), 고대국어 종결어미 연구의 현황과 과제, 『구결연구』 43, 구결학회, 5-53.
- 최성규(2025), 향찰과 석독구결의 선어말어미 비교, 『구결연구』 54, 구결학회, 43-118.
- 허인영(2019), ‘內’와 關聯 借字의 通時的 變化, 『구결연구』 42, 구결학회, 51-82.
- 최성규(2020), 의존명사 ‘스’ 다시 보기, 『구결연구』 46, 구결학회, 139-164.
- 허인영(2022), 『습部金光明經』 卷3의 발견 및 연구사, 『구결연구』 48, 구결학회, 5-33.
- 황선엽(2002), 『국어 연결어미의 통시적 연구 - 한글 창제 이전 차자표기 자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황선엽(2003), 구결자 ‘ㅅ’의 해독에 대하여, 『구결연구』 10, 구결학회, 115-141.
- 황선엽(2004), 석독구결 자료의 불연속 형태소 ‘-ㅁ 1’에 대하여, 『형태론』 6-1, 형태론학회, 109-127.
- 황선엽·이진경·하귀너·이용·박진호·김성주·장경준·서민욱·이지영·서형국(2009), 『釋讀구결사전』, 박문사.
- Aikhenvald, A. Y.(2012), “The essence of mirativity,” *Linguistic Typology* 16, 435-485.
- Bisang, W. (2007). Categories that make finiteness: discreteness from a functional perspective and some of its repercussions, *Finiteness-Theoretical and empirical foundations* (Nikolaeva ed.), 115-137.
- Bybee, J. L.(1985), *Morphology: A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Meaning and Form.*,

- Amsterdam: Benjamins.
- Cristofaro, Sonia. (2007). Deconstructing Categories: finiteness in a functional-typological perspective, *Finiteness-Theoretical and empirical foundations* (Nikolaeva ed.), 91-114.
- DeLancey, S.(2012), Still mirative after all these years, *Linguistic Typology* 16, 529-564.
- Kratzer, A.(1981). The notional category of modality. In Eikmeyer, H.-J. and Rieser, H. (eds), *Words, Worlds, and Contexts*, 38-74. Berlin: de Gruyter.
- Kuteva, T. & B. Heine. & B. Hong, & H. Long. & H. Narrog. & Rhee, S.(2019). *World lexicon of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ikolaeva, I.(2016). Analyses of The Semantics of Mood, *Modality and Mood*, Oxford University Press, 68-86.
- Portner P.(2009). *Modality (Oxford Surveys in Semantics and Pragmatics)*, Oxford University Press.

<부록> 석독구결 전체의 선어말어미 연결 패턴

연번	선어말 어미 연결 패턴	빈도
1	stem → ㄴ → ending	787회
2	stem → ㄷ → ending	278회
3	stem → ㄷ → ending	235회
4	stem → ㄷ → ending	156회
5	stem → ㅁ → ending	117회
6	stem → ㄴ → ㅁ → ending	94회
7	stem → ㅁ → ending	85회
8	stem → ㄷ → ㅁ → ending	80회
9	stem → ㄷ → ㅁ ㄷ → ending	74회
10	stem → ㄷ → ending	63회
11	stem → ㅁ → ending	51회
12	stem → ㄷ → ending	44회
13	stem → ㄷ → ㅁ → ending	44회
14	stem → ㄴ → ㅁ → ㄷ → ending	40회
15	stem → ㅁ → ending	35회
16	stem → ㅁ → ㅁ → ending	33회
17	stem → ㄴ → ㅁ {應可} ㄷ → ending	32회
18	stem → ㄷ ㄷ → ending	31회
19	stem → ㅁ → ending	28회
20	stem → ㅁ → ending	21회
21	stem → ㅁ → ending	20회
22	stem → ㅁ → ㄷ → ending	16회
23	stem → ㅁ {應可} ㄷ → ending	16회
24	stem → ㄷ → ㅁ → ending	15회
25	stem → ㅁ → ㅁ → ending	14회
26	stem → ㅁ → ㄷ → ending	12회
27	stem → ㅁ → ㄴ → ending	10회
28	stem → ㅁ → ㄴ → ending	10회
29	stem → ㅁ → ㄷ → ending	8회
30	stem → ㄷ → ending	6회
31	stem → ㅁ → ㅁ → ending	6회
32	stem → ㅁ → ㄷ → ending	5회
33	stem → ㅁ → ㅁ → ㄷ ㄷ → ending	5회
34	stem → ㅁ → ending	4회
35	stem → ㅁ → ㄷ → ending	4회
36	stem → ㅁ → ㄷ ㄷ → ending	4회
37	stem → ㅁ → ㅁ → ending	4회
38	stem → ㅁ → ㅁ → ending	4회
39	stem → ㅁ → ㅁ {應可} ㄷ → ending	4회
40	stem → ㅁ → ㅁ → ending	4회
41	stem → ㄷ → ㅁ → ㄷ → ending	3회
42	stem → ㄷ → ㅁ → ending	3회
43	stem → ㄷ → ㅁ ㄷ → ending	3회
44	stem → ㄴ → ㅁ ㄷ → ending	3회
45	stem → ㅁ → ㅁ → ㄷ → ending	3회

구결학회 월례강독회

46	stem → ㄷ → ㅅ ㄷ → ending	3회
47	stem → ㄴ → ㅅ → ㄴ ㄷ → ending	3회
48	stem → ㄹ → ㅅ → ending	3회
49	stem → ㅈ → ㅅ → ㄴ ㄷ → ending	3회
50	stem → ㄴ → ㅅ → ㅅ {應可} ㄷ → ending	3회
51	stem → ㅈ → ㅅ → ㅅ ㄷ → ending	3회
52	stem → ㅅ → ㄷ → ㅅ → ending	3회
53	stem → ㄴ → ㄹ → ending	2회
54	stem → ㄴ → ㄹ → ㅅ → ending	2회
55	stem → ㄹ → ㄹ → ending	2회
56	stem → ㅅ → ㄹ → ㅅ → ㄹ → ending	2회
57	stem → ㅅ → ㅅ → ending	2회
58	stem → ㅅ ㄷ → ㄴ → ending	2회
59	stem → ㄴ ㄷ → ㄴ → ending	2회
60	stem → ㄴ ㄷ → ㄴ → ending	2회
61	stem → ㄴ ㄷ → ㅅ → ㄴ → ending	2회
62	stem → ㅅ → ㄴ → ending	2회
63	stem → ㅅ → ㅅ {應可} ㄷ → ending	2회
64	stem → ㅅ → ㅅ → ending	2회
65	stem → ㅅ → ㅅ → ending	2회
66	stem → ㄴ → ㅅ → ㄷ → ending	2회
67	stem → ㄴ → ㅅ → ending	2회
68	stem → ㄴ → ㄹ → ending	2회
69	stem → ㅅ → ㅅ {應可} ㄷ → ending	2회
70	stem → ㅅ ㄷ → ending	2회
71	stem → ㅈ → ㅅ → ending	2회
72	stem → ㅅ → ㅅ ㄷ → ending	2회
73	stem → ㄹ → ㄷ → ㅅ → ending	2회
74	stem → ㅅ → ㄹ → ending	1회
75	stem → ㅈ → ㄹ → ending	1회
76	stem → ㅅ → ㄴ → ㄹ → ㄹ → ending	1회
77	stem → ㅅ → ㄹ → ㅅ ㄷ → ending	1회
78	stem → ㄴ → ㄹ → ㅅ ㄷ → ending	1회
79	stem → ㅅ → ㄹ → ㄷ → ending	1회
80	stem → ㅅ → ㅅ → ending	1회
81	stem → ㅅ → ending	1회
82	stem → ㄴ → ㄹ → ㅅ → ending	1회
83	stem → ㄴ → ㄹ → ㅅ → ending	1회
84	stem → ㄴ → ㄹ → ㅅ {應可} ㄷ → ending	1회
85	stem → ㄹ → ㅅ {應可} ㄷ → ending	1회
86	stem → ㄹ → ㄴ → ending	1회
87	stem → ㄴ ㄷ → ending	1회
88	stem → ㅅ → ㄴ → ending	1회
89	stem → ㅅ → ㅅ → ㄴ → ending	1회
90	stem → ㄴ → ㅅ → ㄴ → ending	1회
91	stem → ㅅ → ㄹ → ㄴ → ㅅ ㄷ → ending	1회
92	stem → ㄴ → ㄴ → ending	1회
93	stem → ㄴ → ㅅ → ㄴ → ㄹ → ending	1회

94	stem → ㄴ → ㄴ → ending	1회
95	stem → ㄴ → ㄴ → ending	1회
96	stem → ㄴ → ㄴ → ㄴ → ending	1회
97	stem → ㄴ → ㄴ → ending	1회
98	stem → ㄴ → ㄴ → ㄴ → ending	1회
99	stem → ㄴ → ㄴ → ㄴ → ending	1회
100	stem → ㄴ → ㄴ → ㄴ ㄴ → ending	1회
101	stem → ㄴ → ㄴ → ending	1회
102	stem → ㄴ → ㄴ → ㄴ {應可} ㄴ → ending	1회
103	stem → ㄴ → ㄴ → ㄴ → ending	1회
104	stem → ㄴ → ㄴ → ending	1회
105	stem → ㄴ → ㄴ → ㄴ → ending	1회
106	stem → ㄴ → ㄴ → ㄴ → ㄴ → ending	1회
107	stem → ㄴ → ㄴ → ㄴ → ending	1회
108	stem → ㄴ → ㄴ {應可} ㄴ → ending	1회
109	stem → ㄴ → ㄴ → ㄴ {應可} ㄴ → ending	1회
110	stem → ㄴ → ㄴ → ending	1회